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1 호

근로자사 1970

#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 (334)

## 차 례

# 레바논 《알 안와르》신문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김 일 성

**물음:** 수상각하! 당신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을 위하여 거대한 기적적성과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이 성과는 영생불멸할것이며 자력갱생하고있는 인민들의 통미로 될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가장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지침으로 될것입니다.

수상각하! 레바논 《알 안와르》신문을 통하여 아랍인민들에게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이룩할 새로운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대답:** 나는 먼저 당신이 지난날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에 대하여 떳떳한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이미 거둔 성과들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뿐아니라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겁고 어려운 혁명임무입니다.

우리앞에 놓인 혁명임무가 무겁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려는 우리 인민들

의 혁명적열의와 투지도 아주 높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도 또한 확고합니다. 우리 인민은 먼 앞날의 리상에 대하여서뿐아니라 가까운 몇해안에 실현할 휘황한 전망에 대하여서도 굳은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이루어질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모든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더욱더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정부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는데 깊은 주의를 돌릴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만들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가 가까운 몇해안에 이르게 될 목표는 매우 크고 고무적입니다. 우리 인민이 지난날 악전고투하여 닦아놓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것입니다. 공업부문에서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기계화를 완성하고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로동자들의 로동을 보다 헐하고 능률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생산을 훨씬 큰 규모로 늘이게 될것입니다.

특히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금속공업, 화학공업, 채취공업과 같은 중공업부문의 발전에서 커다란 비약을 일으키게 될것이며 방직공업과 식료 및 일용품 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을 벌리고있습니다. 7개년인민경제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국가로부터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될것이며 세계 선진국가들의 대렬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도 매우 빨리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앞으로 몇해동안에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전히 끝내고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일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는데 따라 우리 나라 농민들은 몇천년을 두고 시달려오던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더욱더 해방되여 현대적인 농기계와 여러가지 화학비료, 살초제와 식물성장자극제를 비롯한 농약을 가지고 헐하고 흥겹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농사를 짓게 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이 빨리 늘어나 우리 나라는 식량이 더욱 넉넉한 나라로 될것이며 근로자들에게 고기, 닭알,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을 충분히 공급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우리의 과학과 문화도 더 빨리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보다 주체적인 공업과 더욱 발전된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될것이며 이미 실시하고있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이 세워질것입니다. 이와 함께 썩어빠진 제국주의반동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배격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찬란히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질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목표들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의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은 새로운 높은 경지에로 발전할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보다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룩하려는 목표들은 매우 높은 목표들이며 우리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습니다. 우리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 일정한 지장을 받지 않을수 없으며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였고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은 이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갈것이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튼튼히 틀어잡고 자기앞에 나선 모든 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고야 말것입니다.

**물음:** 고무적인 당신의 령도를 받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은 미국폭격기들이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빼앗을수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념원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습니다.

수상각하! 당신께서는 미제가 영웅적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새로운 침략을 계획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어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20여년동안 전조선을 강점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와 사회주의 나라들을 침략하려는 강도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침략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매일과 같이 계속하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해동안에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이미부터 방대한 침략적인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즘에 와서 그것을 더욱 증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량살륙무기들을 많이 끌어들였으며 얼마전에는 또다시 남조선군사기지들에 수많은 전투폭격기들을 증강하고 핵추진항공모함과 대형전함을 비롯한 몇십척의 함선들로 71기동함대라는것까지 새로 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해에 배치하였습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군사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현지고용병을 더욱 증강할 목적으로 이른바 《향토예비군》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여기에 많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넣고 그의 완전무장을 서두르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도 대대적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더욱더 미친듯이 벌리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하루도 총소리가 멎는 날이 없습니다.

지난해 1월에 있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올해 4월에 있은 대형간첩기 《이씨—121》 격추사건을 통하여 여지없이 드러난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더욱더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체제》를 확립하고 남조선강점미군과 남조선괴뢰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리고있으며 전연지대에 무력을 증강하면서 《특별대기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때든지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군사적위협으로써도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인내성있는 노력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조선인민은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며 침략자들을 완전히 섬멸하고야말것입니다.

**물음:**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출판물들과 통신들은 청소한 귀국이 두 큰 사회주의나라사이에 벌어지고있는 분쟁에서 어느측에 치우치고있다고 떠벌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련, 중국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좋은 관계를 훼손하려고 기도하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분쟁의 계속이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신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출판물들이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상이에서 이 나라 편이라느니 저 나라 편이라느니 하고 떠벌여대는것은 우리 나라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반목을 조성하며 쐐기를 박으려는 어리석은 잔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가 커지기를 바라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음흉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세계의 온갖 반동들이 그러한 비렬한 책동에 매여달리는것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원래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자주적이며 독자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전세계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인것만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을 지키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아갑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성과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남이 하는대로 따라간다면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게 되며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 사업을 망칠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될것입니다.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는 혁명적인 당입니다. 우리 당은 반제투쟁이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벗들과 단결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부합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배울만한것이 있으면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립장은 형제당들도 다 리해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어떤 교활한 책동도 우리 당과 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을 훼손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약화시킬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상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정치적 및 경제적 기초를 가지고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같은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형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상리론상의 의견상이입니다. 이 의견상이는 제국주의나라들사이나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사이에 있는것과 같은 적대적모순을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처하여있는 력사적 및 지리적 조건과 민족적임무가 서로 다르고 맑스-레닌주의를 인식하는데서의 차이로 하여 현시대에 대한 평가, 제국주의와의 투쟁방도,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문제와 같은데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데로부터 생긴 일시적인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과정을 통하여 결국에 가서는 의견상이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가게 될것입니다.

**물음:** 수상각하! 당신께서는 아랍인민이 침략국가인 이스라엘과 그의 보호자인 미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침략을 당하고있으며 200여만의 아랍인민들이 자기 고향에서 쫓겨났다는것을 잘 알고계실것입니다.

중동위기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대답:** 중동위기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랍인민들속에서 앙양되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며 이 지역을 자기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있고 중근동정세가 계속 긴장되여있는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기인합니다.

오늘 아랍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반미반이스라엘투쟁은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지키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조선인민은 중근동에서의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물음:** 수상각하! 당신께서는 15성상 일본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유격전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고 투쟁하심으로써 마침내 조선인민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주시였습니다.

오늘 팔레스티나아랍인민은 당신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강점지역에서 해방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광스러운 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아랍유격대원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수 있습니까?

**대답:**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충실한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팔레스티나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유격투쟁에 나선것은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옳은 길입니다.

당신은 아랍유격대원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나는 조언이라기보다 우리의 투쟁경험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있는바와 같이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한 가장 높은 형태의 민족해방투쟁이였습니다. 이 투쟁과정에서 우리는 시련도 많이 겪었고 귀중한 경험도 얻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피압박인민들이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하며 그 투쟁의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형태는 무장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으며 나라를 빼앗긴 인민들이 자기자신이 일어나 싸우지 않고 남이 가져다주는 독립을 얻은 사실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압박인민들이 빼앗긴 조국을 다시찾고 민족의 참다운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철저히 버리는것이 필요합니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으며 해방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죽음에 가까와짐에 따라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자기의 모든 권력기구와 폭력수단을 다 동원하여 류혈적으로 탄압합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조선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싸우지 않을수 없었으며 오랜 기간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폭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을 격파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해방투쟁경험은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규모의 투쟁으로 발전하며 마침내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무장을 들고 해방투쟁의 길에 나선 팔레스티나인민들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대소규모의 투쟁을 가리지 않고 이르는곳마다에서 무장투쟁을 끝까지 견결히 벌린다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는것은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자체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과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며 모든 유격대원들을 확고한 주체의식과 열렬한 애국주의사상,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자각적규률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적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통하여 적의 무장을 빼앗아 유격대의 군사장비를 강화하였으며 유격대오를 더욱 확대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군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항일유격대와 광범한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유격대를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도록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일유격대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밑에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온갖 반제력량을 묶어세우며 정확한 전략전술적지도밑에 무장투쟁과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제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

항일유격대의 강화와 혁명의 대중적지반의 공고화, 항일무장투쟁과 여러가지 대중투쟁의 밀접한 결합, 이 모든것은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이 자기의 무장유격대를 조직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며 모든 혁명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력량의 통일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 전체 아랍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미반이스라엘투쟁을 전민족적으로 전아랍적으로 힘있게 벌린다면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해방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유격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는바입니다.

#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맞이하자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소집에 관한 소식에 접하여 전국이 새로운 혁명적앙양으로 약동하는 환경속에서 우리는 뜻깊은 새해를 맞는다.

기적과 비약으로 가득찬 1960년대를 보내고 더욱 큰 승리가 약속된 새로운 년대, 1970년대의 첫해를 맞이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령도하시며 우리 인민에게 무한한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의 마음으로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한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력사에서 또하나의 커다란 리정표로 될 당 제5차대회를 더욱 큰 승리로 맞이할 굳은 결의에 넘치고있다.

우리 당 제4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찬 시기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전진이 이룩된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우리의 혁명대오가 반석같이 더욱 튼튼히 꾸려진 시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으며 보수와 침체를 반대하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투쟁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 나아갈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능숙하게 그리고 확신성있게 령도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0~281페지)

지난기간 우리 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 교조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고 당의 통일을 좀먹는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당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체 당원들이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된 불패의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당의 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로선,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투쟁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강철

같은 통일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쟁취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전략적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 제4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공고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에 의거하여 우리의 공업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더욱 정비보강되여 그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 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촉진하는 튼튼한 기지로서 거대한 위력을 나타내고있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발전에 더욱 훌륭히 복무하게 되였다.

경공업발전에서도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공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앞으로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더많이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강력히 추진된 결과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농업지도체계는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농촌에 대한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촌의 면모를 급속히 개변시켰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농촌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발전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빨리 진척되고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인민생활이 더욱 향상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나라의 방위력은 더한층 강화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서있으며 전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강력한 전투적보루로 전변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발악적책동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다.

당 제4차대회가 있은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도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믿음직하게 자라고있으며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조직화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원쑤들의 그 어떠한 최후발악도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결코 가로막을수 없으며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의 영광의 날이 더욱더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은 확고한 반제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한 커다란 공헌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를 받고계시며 오늘 우리 당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는 전례없이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실로 우리 당은 4차대회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왔다.

지난기간 우리 당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결코 순탄한 환경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쳐물리쳐야 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시련도 이겨내야 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이후 새롭게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독창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길을 개척하면서 전진하여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이후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된 모든 성과는 오직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가장 혁명적으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 제4차대회이후의 혁명과 건설의 로정을 감회깊게 돌이켜보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다함없는 영예와 행복,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한 충성을 다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오늘 당과 인민 앞에는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모든 과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여야 할 전투적임무가 나서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이 전투적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 7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할것을 호소하였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불꽃튀는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온 나라는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인민경제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국가로부터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될것이며 세계 선진국가들의 대렬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입니다.》(레바논 《알 안와르》신문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혁명적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할 때 우리 공업은 현대적으로 발전되고 자립적체계가 더욱 확고히 선 공업으로 될것이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한층 강화되고 인민생활은 더 높아지게 될것이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할 때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우게 될것이다.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전면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또한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진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에서 승리의 길을 찾고있으며 이 로선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우리 인민이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전투에서 승리할 때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혁명적투지에서 더욱 큰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얻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게 될것이다.

우리는 수령의 교시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7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한 총돌격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완수하고 승리자로서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전력고지, 석탄고지, 철고지, 광물고지, 세멘트고지, 비료고지, 수산물고지, 직물고지, 알곡고지 등을 비롯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는 보람찬 전투에 한사람과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중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는것은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제철, 제강 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림업부문들을 힘있게 앞으로 밀고나가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앞길이 환히 열리고 사회주의건설이 계속 천리마로 내달릴수 있다. 그래야 또한 나라의 경제적 자립과 그 위력이 가일층 강화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질수 있다.

전력공업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은 대규모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과 중소규모 발전소들을 다 돌리며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놓은 석탄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석탄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늘어가고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과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고 로천채굴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강철고지는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이다. 제철, 제강 부문에서는 현존생산시설들에 살을 붙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이 부문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선철, 립철, 강철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규격의 강재와 강관, 인발관 생산을 늘이며 질좋은 합금강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강철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파고철수집을 위한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색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보내주어야 한다.

금속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광물생산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방대한 건설사업을 위하여 건재공업 특히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알곡증산의 첫째가는 예비는 비료증산에 있다. 현존생산시설들을 최대한으로 돌려 질소비료, 린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각종 농약과 살초제 생산을 훨씬 늘

여야 한다.

또한 림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우리의 살림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 제4차대회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면 중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과 함께 직물고지, 수산물고지, 알곡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당이 내세운 직물고지를 점령하고 좋은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천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산물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먼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며 천해양식과 담수양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먹는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고리는 알곡생산을 높이는것이다. 농촌경리부문의 당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알곡을 더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이 내놓은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생산전반을 더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국영가금업과 협동농장 공동 및 개인 축산을 더욱 발전시키며 과수원을 잘 관리하고 분수식관수체계에 의한 남새생산을 강화하며 기름작물을 더 많이 심어 인민들에게 고기, 닭알, 기름, 과일, 남새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자면 입는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 동시에 그들에게 아담하고 문화적인 주택을 더 많이 지어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에게 좋은 문화주택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올해에 주택건설배가운동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르시였다. 도처에서 벽돌공장과 기와공장들을 개건확장신설하며 국가로부터 세멘트와 강재를 더 받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지방건재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주택을 더 짓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기계공업은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기계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성능이 좋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여야 한다.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의 해결은 막대한 물자의 수송을 요구하고있다. 수송문제를 풀어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해결할수 있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철도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자동차, 선박 운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경제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것은 7개년계획을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수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이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입물자를 잘 보관관리하고 아껴쓰며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 부속품, 자재들을 국내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현존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을 정상화, 정규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9페지)

지난기간 우리는 도처에 수많은 공

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여놓았다. 우리가 마련하여놓은 이 경제적밑천은 대단히 위력한것이다. 우리가 건설한 공장들을 보강완비하고 그것을 제대로 다 돌린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불비한 공정들에 살을 붙이고 대보수와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여 생산시설들과 기계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표준조작법을 지키며 설비관리를 잘하고 원자재를 제대로 대주어 생산을 정상화, 정규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는 투쟁에서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할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로력문제를 푸는 기본열쇠는 있는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존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며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촉진하는것은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며 로동생산능률을 급속히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선진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보다 적은 로력으로 헐하게 일하면서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원자재의 소비기준을 낮추며 있는 자재와 원료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연길폭탄》을 만들기 위하여 한쪼각의 쇠붙이와 한치의 쇠줄도 아끼고 소중히 다루던 그러한 정신, 그러한 기풍으로 원료와 자재들을 극력 아껴쓰며 절약하여야 한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휘성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전투에서 성과는 중요하게 매개 초소에 선 지도일군들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발동하며 생산투쟁을 어떻게 조직지도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근로자들의 창발력을 고도로 발양시켜야 하며 군중속에 들어가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대중적으로 토의하여 걸린 문제들을 풀고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실현함으로써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계획을 세부에까지 맞물려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휴식조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 후방사업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며 그들의 천리마진진을 다그쳐야 할것이다.

7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마지막 돌격전은 벅찬 투쟁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우리는 또한 이 투쟁을 매우 긴장된 정세하에서 벌리고있다.

오늘 멸망에 직면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미쳐날뛰고있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이씨—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후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괴뢰군병력을 더욱 증강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기에 광분하고있다. 미제는 지상과 공중, 해상으로

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적 도발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하며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기 위한 국방건설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물론 우리와 같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 방대한 국방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건설을 추진하여 제5차당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투쟁도상에는 허다한 난관들이 있을수 있으며 여러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를 위한 모든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7개년계획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모든 분야에 제시하여주시였으며 가장 정확한 수행방도를 빠짐없이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봐주시고계신다.

우리에게는 또한 튼튼히 꾸려진 물질적토대가 있다. 우리의 중공업은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있으며 우리의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다져졌다.

문제는 모든 일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투장에 나선 전사의 심정으로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혁명적으로 생활하고 혁명적으로 투쟁하는데 달려있다.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는데서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전당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할때 우리에게는 무서울것이 없으며 어떠한 사나운 폭풍도 격랑도 뚫고 전진하며 승리할수 있다.

우리는 혁명적학풍을 세워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과 교시들,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철저한 확립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수령의 혁명전사, 혁명하는 시대의 일군답게 전투적기백에 넘쳐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며 모든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혁명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원래 혁명투쟁의 과정은 낡고 썩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과정이다. 이 투쟁과정에 난관과 시련은 있기마련이며 바로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과정이 승리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습니다. 혁명의 새로운 전진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와 같은 책 486페지)

지난기간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위대한 승리는 바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는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는 세계혁명력사상 류례없는 험난한 투쟁환경에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영웅적투쟁을

빌려 마침내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대 시련의 시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존로를 피로써 지켰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심대한 패배를 안기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불타버린 전후 페허우에서 불사조마냥 일어나 웅대한 공장과 기념비적대건물들, 오늘의 현대적인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원쑤들이 안팎으로부터 덤벼들고 우리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1956~1957년에 오직 《천리마로 달리자!》는 수령의 호소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일으켜 20세기의 기적을 낳은 영웅적인민이다.

바로 이러한 영웅적투쟁정신, 혁명적기세, 전투적기백으로 일하며 투쟁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7개년계획의 전면적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바로 우리들이 혁명가의 투쟁정신, 로동계급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투쟁하며 일을 전개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며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앙양이 일어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86페지)

난관과 투쟁을 회피하며 모든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면서 일을 헐하게 할 깃만 바라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명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원의 사고방식이 아니며 천리마시대의 우리 인민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더 찾아내며 모든 조건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사람들, 투쟁과 창조, 혁신만을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 당과 수령의 참된 전사들이다.

7개년계획을 당 제5차대회전으로 끝내기 위한 오늘의 긴장된 투쟁은 우리들에게 오직 혁명적인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면서 용감히 돌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부단히 혁신하고 부단히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며 우리의 대오를 혁명가들, 투사들의 대오답게 튼튼히 꾸리며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앙양을 더욱 발전시켜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뛰여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창조하여야 하며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7개년계획의 고지마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수 있으며 우리 당 제5차대회에 보다 훌륭한 로력적선물을 마련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으며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항상 빛나는 승리가 약속되여있다.

모두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도처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점령한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자.

#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그이께서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우리 혁명발전의 전행정에 걸쳐 심화발전시켜오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또 수행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혁명과 건설, 나라의 독립과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다. 이리하여 주체사상의 창시는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의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나라에서 창시되였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이 사상을 심오하게 연구체득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천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이 영예, 이 자랑을 더욱 빛내여야 할것이다.

## 1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3페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인인 그 나라 당과 인민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반드시 로선과 정책을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관철하는데 최대한의 력량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오직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옳바른 립장에 튼튼히 서는 때라야만 가능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바로 혁명의 주인인 당과 인민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혀준 지도사상이다. 혁명의 주인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야만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고 그 관철을 위한 혁명력량을 훌륭히 마련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혁명수행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우리 당과 정부의 모든 활동을 관통하고 그 활동의 가장 훌륭한 성과를 보장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우와 같은 책, 219페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성, 창조성 원칙과 모든 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주체사상의 기본요구이다.

자주성원칙은 주체사상에서 근본원칙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정신이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것입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겠는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맹종맹동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제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적로선으로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이란 제정신으로 사는것이며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신념에 기초하여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행동하는것이다.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당들은 다 같이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그의 력사적사명을 위해 투쟁한다. 이에 있어서 그들의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주체는 바로 조선혁명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을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당과 인민에게 맡겨진 국제주의적본분이며 매개 당들은 이에 대하여 자기 인민과 세계 인민앞에 책임진다. 세계혁명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진영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만큼 국제주의적의무에 진실로 충실하려면 누구든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 혁명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제일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또 제일 잘 알고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는 없다.

혁명을 령도하는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기 인민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당이 어떤 로선과 정책을 내세우고 대중을 어느 길로 어떻게 이끄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모든것은 혁명의 주인이 맹목적으로 남을 추종하거나 남이 하는것을 본따서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의 주인은 반드시 자주성을 견지하고 제정신으로 살고 일해야 하며 그래야만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관철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실정과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자주성은 결코 자기 나라 혁명문제만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것이 아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매개 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해야만 자기 나라 실정에도 맞고 국제혁명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다.

자주성은 그것을 호상 존중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형제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5～346페지)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당, 모든 인민은 다 자주적이고 평등하다. 매개 당과 인민의 자주성은 그것을 호상 존중하는 조건밑에서만 실제적으로 보장된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사

이, 큰 당과 작은 당들 사이에서 다 자주성을 지니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야만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주성원칙은 모든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창조성원칙은 주체사상에서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라는것은 모든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00페지)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을 매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의 창조적적용을 보장할 길을 밝혀주었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때라야만 맑스-레닌주의일반리론을 자기의것으로 소화할수 있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써먹을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적자주성이 없이 남이 하자는대로 따라만 다니는자는 제정신을 못가진자입니다. 이런 얼빠진 사람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을 사랑할수도 없고 자기 실정에 맞게 무슨 일을 창조적으로 해나갈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88페지)

혁명하는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소화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든 기초우에서 자기 나라 현실과 제기된 과업을 놓고 독자적으로 사고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 일반원칙을 실정에 맞게 적용할 혁명적 창발력이 나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우리의 정책을 규정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이와 같이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자주성이 없이는 창조성이 나올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것도 바로 자주성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에서 자주성은 창조성의 담보로 된다.

자주성은 사대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교조주의와도 대립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거듭 교시하시였다. 자주성, 창조성 원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로 되며 담보로 된다. 제정신이 없이 행동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적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성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주체사상에서 또 하나의 근본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이란 자기의 힘으로 일떠서자는 말인데 이 정신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상이 없어야 합니다. 의존심을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02페지)

자주성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체 실정과 리익에 맞게 풀기 위하여 제정신, 자기의 의지를 똑똑히 살릴데 대한 문제이며 자력갱생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킬데 대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이란 자기 인민의 힘과 국내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체의 힘으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

여 자체의 해방과 행복한 생활을 이룩하려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이 필연적인 객관적요구로 되는 근거를 밝히시였다. 그것은 첫째로 착취자, 침략자들이 자진하여 피착취, 피압박 대중에게 자유와 유족한 생활을 선사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며 둘째로는 혁명에서 국제적벗들의 지원이 주인의 역할을 대신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계급들과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스스로 물러가는 일이 없는만큼 피착취, 피압박 대중이 자체의 힘으로 싸워야 해방을 이룩할수 있고 해방된 다음에도 자기 힘으로 근면하게 노력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이께서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주체적력량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체로 노력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서 남의 힘에 의존하려는 해독적경향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로, 담보로 되는것이다.

자력갱생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 때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나라의 모든 자원,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자주성과 자력갱생, 이것은 다같이 혁명의 주인된 립장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는 동시에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자력갱생과 결합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적자립성이 없이는 정치적자주성이 보장될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체의 힘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우리의 현실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힘이 든든할 때라야 자주성을 꿋꿋이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은 또한 자주성을 전제로 한다. 제정신이 없고 자주성이 없이 제발로 걸어간다는것은 생각할수 없다. 당과 인민이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는 때라야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로선과 정책을 규정할수 있고 그 집행에서도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에 의거하는 방침을 관철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나라의 독립과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당과 인민이 제정신, 제힘으로 살며 일하며 싸울데 대한 근본립장을 밝혀준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 2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공산주의운동 및 국제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으로서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상이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의 객관적법칙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선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는 객관적법칙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합니다.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입니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

할수 없으며 조선의 력사와 전통, 조선사람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0페지)

이 교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제조건은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조성된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남에게 예속된 나라 인민은 우선 민족적, 국가적 독립을 위해 혁명을 해야 하며 다음은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전세계에서 계급이 페절되고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국가도, 민족도, 국경도 없어질수 없다. 때문에 혁명의 주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서 자기의 국가적,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고수하며 자체의 실정과 리익에 맞게 정치를 하고 자립적 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수 없고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자결의 권리이다.

혁명과 건설은 이와 같이 민족을 떠나서 수행될수 없고 민족적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민족적불평등도 없애야 하는데 이것은 민족들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되는것,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혁명의 주인이 주체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이 보편적의의를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와 같은 혁명운동의 객관적법칙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가 본질상 행동의 일반적지침으로서 매개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는 객관적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70페지)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매개 나라의 정세와 조건은 허다한 정치적, 경제적 및 력사적, 민족적 요인들로 하여 무한히 다양하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의 특수한 정세와 조건들에 맞게 일반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자면 반드시 그에 대한 교조주의적, 기계적 태도를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력사에서 처음으로 교조주의를 없애고 일반원칙들의 창조적적용과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창조적발전을 보장할 구체적인 길을 밝혀주었다.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한 주체사상의 위대한 공헌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외세의존의 사상과 같은 반맑스주의적사상경향이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는 객관적사실을 반영하고있다.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반동적사상과 근로자들, 공산주의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칙적인 현상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외세의존의 사상 등은 혁명의 주인된 립장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해독적인 사상경향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대주의를 하면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

고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면 결국 그 나라 민족의 혁명성이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할수 없게 됩니다.》

사대주의자들은 자기의것을 깔보는데서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로선에 대한 교조주의를 범하게 되며 남이 기회주의를 하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대주의는 외세의존의 사상과도 련결되여있다. 자기를 낮추보면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이 생길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자체의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대신 남의 힘에 의존하려 한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이런 위험한 사상경향들을 반대하여 투쟁함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이 모든것은 주체를 확립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되며 주체사상이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지도사상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관철하고 력사적사명을 수행하자면 반드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처음으로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서 초석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전적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각이한 단계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들을 일반화하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의 절박한 문제들에 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포괄하고있다.

이 사상은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무한히 풍부히 하였으며 그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이룩하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발전에 대한 그이의 탁월한 공헌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여로 된다.

이것은 중요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두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들의 창조적적용을 보장하며 실천행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의 독창적인 해결을 보장하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창조적발전을 보장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생활은 혁명과 건설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때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들을 매개 나라의 구체적정세에 맞게 적용하여 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창조적으로 규정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일정에 오르는 새로운 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 근본원리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혁명의 40여년에 걸친 력사는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례증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국해방투쟁시기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출발하심으로써 비로소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혁명과 결합시키셨으며 선행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조건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의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시종일

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령도하심으로써 우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수행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독창적으로 적용하시여 새로운 경험들을 창조하시고 혁명에 관한 리론들을 풍부히 하시였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조건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현실의 요구와 맑스-레닌주의의근본원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시면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경험은 주체사상이 과학리론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맑스-레닌주의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지도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도 다른 모든 과학리론적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서 출발하여 풀어야 할것입니다. 결코 고전의 명제에 매달려 교조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하여도 안되며 사대주의사상에 사로잡혀 남이 하는 식으로 해석하려 하여도 안됩니다. …오직 사대주의가 없고 교조주의가 없이 자기의 머리로써 문제를 풀어야만 옳은 결론에 이를수 있습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과학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구는 고전명제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나 다른 나라의 리론에 대한 사대주의적태도를 없애는것이며 력사적현실과 실천적경험에서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사고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와 같이 할것을 가르치는 지도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을 위하여 방법론적지침으로도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관한 천재적인 새 리론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맑스가 과도기문제를 설정할 때의 력사적환경과 전제를 분석하시고 이를 오늘의 변천된 력사적환경과 조건, 우리의 실천적경험과 대비하여 고찰하심으로써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시간상 일치한다고 본 맑스의 견해대신 오늘에는 그것이 일치할수 없다는 새로운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가장 뚜렷한 례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전통에 대한 리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을 창조하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농촌문제, 사상혁명과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방법과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무계급사회의 실현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민족적불평등의 청산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기본문제, 현대제국주의와 현시대 세계혁명의 제문제에 관한 리론 등 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맑스-레닌주의적 리론들을 창조하시고 발전시키시였다. 이 모든 리론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서 출발하시여 창조하신것이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매개 나라에서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꾸리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경험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거할 때라야만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훌륭히 꾸리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진정하고 공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초를 밝혀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것은 자주적인 민족들, 국가들간의 국제주의이지, 민족과 국가들을 떠난 국제주의란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86～487페지)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래 공산주의운동은 국제적이고 세계공통적인것이지마는 매개 민족, 매개 나라는 따로따로 자주적으로 혁명을 해야 한다. 때문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협조와 단결이 필요한것이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평등하고 자주적인 립장에 서서 그것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우에서만 진정하고 공고한 국제주의적친선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있는데 참다운 국제주의적단결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뻔한 일이다.

더우기 오늘날 크고 작은 나라들, 더 발전하고 덜 발전한 나라들, 혁명에서 앞서고 뒤선 나라들, 각이한 조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호상 존중하지 않는다면 공고한 기초우에서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발전시킬수 없다.

또한 매개 나라는 자력갱생의 원칙밑에 자체의 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형제적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때 실제적인 국제주의적지원도 줄수 있다.

자주성과 자력갱생은 이와 같이 진정하고 공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이상과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의 요구를 훌륭히 해결해주는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은 지나날 맑스주의창시자들의 시대에 예견되였던바와는 다른 환경속에서 발전하고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운동이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구라파의 큰 나라들, 독립국가들에서의 운동이였고 주로는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혁명이 당면의 일정에 오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오늘에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정에 오르고있으며 크고 발전한 나라들만이 아니라 덜 발전하고 작은 나라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 각이한 력사적, 민족적 특수성을 가진 나라들에서 각이한 단계와 성격의 혁명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오늘에는 하나의 국제적조직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없고 그러한 조직도 없다.

이러한 력사적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리론과 전술을 매개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데는 독자성과 창조성을 견지하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견결히 배격하는것이 긴절한 문제로 된다.

지난날 독점전자본주의시대에는 또한 사회주의혁명이 중요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승리할것으로 예견되였던만큼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나라들이 장기간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것을 상상할수 없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시대의 력사적조건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오래동안 외부의 침략세력과의 대치상태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해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를 악랄하게 교란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혁명의 주인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만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혁명이 심화발전되여 맑스-레닌주의선행고전가들이 제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들이 거의 다 실천에 옮겨졌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세계혁명발전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창조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시대의 력사적 조건에서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자주성과 창조성,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이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날 이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여줌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오늘 혁명과 건설, 나라의 독립의 공고화와 민족적번영을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세상사람들은 지금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이라고 부르고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력사적, 지리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하여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이 혁명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은 창시될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의 경험에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시키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와 발전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끝없는 충실성과 책임성의 가장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 3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힘은 생활에서 확증되고있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됨으로써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또 수행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함으로써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불후의 업적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로선을 창조적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수립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는데서 자주적립장이 확고히 견지되고 종파분자들의 사대주의와 민족배타주의적경향들이 철저히 극복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되여 력사상 류례없는 간고성을 훌륭히 이겨내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이리하여 인류의 해방투쟁력사에서 길이 빛날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 승리가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주체사

상에 철저히 의거하시여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으로 구현되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빛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하고 그 수행에로 근면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풍부한 국내부원을 동원하였기때문에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5 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사상분야에서 주체가 서게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자주의식과 민족적긍지가 매우 높아지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남의것을 높이 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경향이 없어지고 제정신으로 살며 제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려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종일관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계급투쟁과 사상혁명, 경제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규정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령도하시였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위대한 업적이 이룩되고 《사회주의의 모범》이 창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개혁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독창적인 계급정책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철저하게 완수되였으며 그 경험들은 우리와 류사한 조건들을 가진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커대한 기여로,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원쑤들과는 반드시 제힘으로 싸워야 하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의지로 자신을 무장함으로써 과거에 항일빨찌산들이 그 간고한 조건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한것처럼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와 맞서 그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릴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하여 그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의 철저한 관철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천리마의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또 창조되고있다. 정치분야에서 자주로선이 관철되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우리 당의 군사로선 등 독창적인 로선들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가장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으로 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업이 또한 승리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 혁명기지로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자주적조국통일방침, 남조선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이 관철되여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이 결

정적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남반부에서도 주체적혁명력량이 급속히 자라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자주적이고 공명정대한 로선과 방침으로 하여 국제적혁명력량의 지지성원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대외정책분야에서도 우리 당은 자주로선을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결과 공화국의 위신과 우리 민족의 존엄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관계와 국교관계가 부단히 확대되고있으며 우리를 지지하는 혁명의 벗들이 날로 더욱 늘어가고있다.

오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를 국제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모시면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진보와 번영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의 최고지침》으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결정적인 기여》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지침으로 삼고 자기들의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반제반미투쟁,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박한 요구, 세계혁명발전의 현시대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여주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으로서 그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았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최근시기의 국제정세발전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힘을 실지로 보여주고있다.

경험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주체를 튼튼히 세울 때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5페지)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세계 진보적인류속에 널리 인식되고 파악됨에 따라 남을 쳐다보고 남의 힘에 의존하는 일이 없이 자주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게 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에는 사대주의적맹동으로 하여 로선상 좌우경적오유를 범한 실례가 적지 않았다. 오늘 혁명적인민들,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사상의 가르침을 따라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서 자기 나라 현실을 진지하게 연구분석하고 자체의 판단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고있다.

다음으로 현실은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주체를 튼튼히 세운다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있으며 침략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은 나라들의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험은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주체를 세우고 견결히 일떠서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페지)

오늘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전략—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주체를 세워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모두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은 전세계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명

을 받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이 투쟁전략을 자기들의 사활적인 투쟁전략으로 접수하고 조선인민이 미제의 한다리를 뜯어내면 자기들은 미제의 다른 다리를 뜯어낼 임무를 맡겠다고 결의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각을 떠내고 목을 잘라버리기 위한 세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실로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그들을 반제반미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뚜렷이 나타날것이다.

*　　　　*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수령의 충실한 전사된 우리 인민의 기본임무이다. 우리 인민이 실천에서 주체를 세우는 길은 수령의 교시와 당의 로선,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의 당중앙위원회와 자기의 당대회가 제시한 로선에 따라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위반되는 온갖 사상과 경향을 배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오직 이를 자로 삼아 사고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과 수령께 참말로 충실한 혁명전사가 될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라야만 제기된 혁명과업들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라야만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세계혁명에도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치여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또다시 간부들과 당원들이 학습을 강화하며 혁명적학습기풍을 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혁명승리의 앞길을 명확히 밝혀주는 지도적 지침인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칠저히 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장구하고도 간고한 우리 혁명을 령도해오시면서 언제나 학습을 혁명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시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정치활동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몸소 대원들의 학습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보아주시였으며 해방후 어려운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는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충실한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학습을 강화하도록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학습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될수 있었으며 해방후 그처럼 빠른 시일안에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날수 있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의 간곡한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칠저히 세워 전당이 학습하고 전체 인민이 학습하며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을 오늘과 같은 어엿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신 당과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배려에 기어이 보답하여야 한다.

⁂ ⁂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이란 곧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려면 먼저 간부들자신부터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의 발전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서는, 다시말하여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복잡한 사업이며 사나운 풍파와 어려운 고비를 겪어야 하는 간고한 사업이다.

이처럼 간고하고도 힘난한 투쟁을 요

하는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담당자들 특히 간부들과 당원들이 그 어떠한 곤난과 시련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혁명적세계관과 강한 혁명적의지를 소유하여야 하며 생활을 개조하며 건설하는 무기와 수단을 가져야 한다. 다시말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속에서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유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연과 사회와 혁명발전법칙에 관한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백만 근로대중을 위한 그들자신의 사업으로서 당과 수령의 령도하에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세워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제시된 다음에는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느냐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성과가 좌우된다.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혁명과 건설에 불러일으키자면 간부들과 당원들이 튼튼한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그리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이 모든 자질들을 소유하여야만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가로서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넓은 시야와 예리한 안광을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를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으며 자기들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감당해낼수 있다.

이러한 자질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며 저절로 쉽게 얻어지는것도 아니다. 오랜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은 반드시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쉬임없이 배워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주신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책읽기를 좋아하고 짬만 있으면 책을 들고 한폐지라도 더 읽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며 그를 생활화하고 책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그러한 습성을 키워야 한다.

오늘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문제는 특별히 긴절하게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며 모든 일군들이 다 지도리론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지도리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며 간부들속에서 학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은 더욱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그 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해졌고 그 전진속도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추진됨에 따라 낡은 기술이 날로 더욱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얼마나 촉진시키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는가 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와 지도수준 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사업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을 강

화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학습을 강화하여 자기들의 정치사상수준,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적요새도,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사상의식명역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인 사상혁명,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앞세워야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도 간부들과 당원들은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높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더우기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도 간부들과 당원들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이길수 있는 사상적준비를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실무수준을 한층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간부들이 다 사상의식수준과 실무수준이 높고 한결같이 당정책을 받들고 투쟁하는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혁명도, 사회주의건설도, 조국의 평화적통일도 다 문제없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사상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는것, 이것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의 심화발전을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동무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당문헌들을 학습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혁명전통자료들을 학습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와 자기 전문부문의 기술서적들을 보아야 합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26페지)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며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도록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며 혁명과 건설에 관한 과학적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될수 있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군중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선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학풍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을 잘 연구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입니다. 당정책을 모르고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정책학습을 잘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혁명하

는 사람들, 간부들과 당원들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어느때, 어떤 조건하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계급적립장,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정확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당정책을 관철해나갈수 없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우리 당의 사상과 배치되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기회주의사상, 반동적사상조류의 사소한 요소라도 제때에 물리치고 수령과 그이의 혁명사상을 가장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그것을 자로 삼아 모든 문제를 재보고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사업을 능숙하게 전개하여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된 조선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한 근본적인 요구로 되며 첫째가는 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하여 수령께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보고와 연설, 론문 등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해야 한다.

당면하게는 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 등을 수령의 다른 로작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면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학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시기 제시되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들을 지체없이 집중적방법으로 학습하여 당앞에 나서는 중심적과업들을 똑바로 파악하고 매개 부문에 주신 수령의 교시, 해당 지역, 해당 단위에 주신 수령의 현지교시들을 일상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기 부문과 자기 초소들 앞에 나서는 혁명과업들과 수령의 요구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있게 학습하는 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한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는 것은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방침들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혁명적신조로 삼고 살며 투쟁하게 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될수 있게 한다.

혁명전통학습에서 기본은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고 발전되여온 력사이며 우리의 혁명위업이 승리해온 력사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학습할 때에만 우리는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 독창성을 전면적으로, 력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고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수령의 혁명적가정, 초기혁명활동,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이께서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그의 정당성을 심오하게 체득하고 거기에 일관된 수령의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또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자료들을 학습하여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끝없는 충직성을 본받음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어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기 위해서는 또한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소유함이 없이는 발전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전면적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수 없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 그리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높은 기술실무수준을 소유하기 위하여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꾸준하고도 완강하게 학습을 해나가야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수령께서 이룩하여주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할수 있으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사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사상이다. 확고한 로동계급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된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포괄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실천적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명철한 해명을 주고있으며 사상정치적으로나 과학리론적으로나 헤아릴수 없이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간고한 환경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이 창조할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혁명정신, 영생불멸하는 무한히 귀중한 업적과 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담겨져있다.

김일성동지의 바로 이와 같이 폭넓고 심오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든다는것은 결코 하루이틀에 쉽게 이룩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다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부단히 습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두고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맡겨진 혁명과업들을 무조건 보장해나가야 하는만큼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일하면서 학습하며 학습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참말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

우는 때라야만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하면서 제기된 학습과제들을 수행할수 있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 혁명전통, 그리고 기술실무지식 등을 깊이 체득해나갈수 있다.

오늘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그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임무의 하나이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는 우선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학습열의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께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을 위하여 수많은 출판물들을 발간하여주시고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 등 이르는곳마다 현대적인 도서실을 마련하여주시며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학습기풍을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자기자신들의 각오정도, 학습에 대한 자각성여하에 달려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당과 수령께 충직할수 없고 당정책을 관철할수 없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히 배우면서 일하며 일하면서 배워야 한다.

지난날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원쑤들과의 가렬처절한 전투의 나날에도, 눈보라 휘몰아치는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한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배우고 또 배웠다.

그들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뼈와 살로 만들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우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이와 같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본받아 자각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하는 동시에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자체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일 두시간이상 학습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계획은 그날에 꼭꼭 수행하고야마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를 막론하고 교양망들에서의 정기학습과 매시기 진행되는 수령의 교시들에 대한 집중학습,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습들에 의무적으로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하며 강연회에도 반드시 참가하고 당적출판물들을 정력적으로 읽어야 한다. 수령의 로작, 교시, 당정책 학습은 직장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며 어느때 어느곳에서든지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간부들과 당원들은 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그들의 이신작칙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 자극을 주며 학습을 생활화하고 철저한 학습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간부들과 당원들은 자기자신부터 학습에 모범적으로 참가할뿐아니라 아래사람들과 군중들에게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알려주며 아래사람들의 학습을 조직하고 도와주며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움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학습을 보다 실속있게 함으로써 학습과정이 진실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자신의 뼈와 살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사업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 사상교양사업이며 사상투쟁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지 않고 겉만 핥는 형식주의적인 학습, 혁명적실천활동, 사상수양과 동떨어진 학습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사상리론적으로 심오히 학습함으로써 수령께서 내놓으신 혁명리론의 진수와 그 창조성, 그것이 구현된 우리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폭넓게 인식함으로써 수령의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학습을 사상수양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항상 수령의 가르치심을 거울로 하여 자신을 비쳐보고 자신의 그릇된 사상과 관점을 고쳐나가며 혁명적수양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이 단순히 지식과 리론을 얻기 위한것으로 될것이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인 사업으로 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의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혁명실천을 위한 무기로, 모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야 한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학습은 당규약상 당원의 의무이다. 따라서 간부들과 당원들은 학습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학습에 대한 의무수행정형에 대하여 응당 자진하여 당조직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또 당조직들은 학습에 대한 통제를 당원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에 놓고 실시해야 한다.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총화이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수령의 로작과 교시, 그이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할데 대한 당적분공을 구체적으로 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며 당생활총화에서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며 그들의 학습정형을 료해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학습의 사상리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도와 통제를 보다 강화하며 특히 학습강사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고 정치리론적으로 준비된 일군들, 당 및 행정 책임일군들로써 학습강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강사들을 위한 강습, 제강토의, 방식상학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며 그들의 당생활과 학습지도정형을 늘 지도통제하여 강사들의 책임성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당면하여 각급 당조직들은 당교양망들에서 진행하는 학습총화를 잘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통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당조직들의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 속에서 더욱 철저히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　　*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앞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4차당대회가 내놓은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완수하며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 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어김없이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려면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교시,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만듦으로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 항일유격대내에서의 혁명적학습기풍

## 전 문 섭

오늘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 속에서는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어느때보다도 학습열의를 높이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그리고 혁명전통학습이 심화됨으로써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해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불패의 힘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학습기풍의 위대한 실천적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학습기풍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반드시 계승하고 본받아야 할 실로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항일유격대내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학습하지 않는다면 파오를 범할수 있다. 우리가 언제 승리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암둔해질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면 마치 령마루에 올라선것처럼 모든것을 잘 볼수 있고 자기 갈 길을 똑바로 찾아낼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산기슭에서 헤매는것처럼 앞이 막혀서 옳은 길을 찾아낼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떤 곤난속에서도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열심히 학습함으로써 우리 혁명승리의 전망을 정확히 내다보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준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학습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며 수양하지 않고는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없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자신을 혁명화하며 수령의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하기 위하여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때에도 학습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꾸준히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은 항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 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으로 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가 드문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으로 특징지어진다.

항일유격대는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같은 강대한 적을 대상으로 하여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이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

서 15성상에 걸치는 피어린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자면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게 해야만 하였다. 또한 혁명승리후 새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 되기 위해서도 정치사상수준, 리론실무수준을 높여야 했다.

혁명을 위해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지 않으며 혁명승리의 굳은 신념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켜 싸울수 없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한가하게 앉아 학습할 그런 기회란 없었다. 항일유격대의 생활은 밀림을 집으로 삼고 눈비와 서리, 이슬을 맞으면서 길고 또 길은 행군과 싸우고 또 싸우는 긴투의 련속이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엄혹한 시련이 중첩되군 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학습을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에서는 학습을 혁명사업의 한부분으로, 혁명가의 량식으로 삼고 어느때, 어느곳에서도 학습하는 기풍이 전대오에 지배하도록 하였다.

항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이 또한 항일유격대내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이였으며 그 목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는 강도 일제침략자를 격멸하고 이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것을 지향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무장력이였다.

항일유격대는 적과 싸우는 전투대오였을뿐만아니라 또한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이 숭고한 목적과 사명을 다하자면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적군중관점과 능숙한 군중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해야만 했다. 이것이 없이는 강대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없울수도 없으며 군중을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갈수도 없었다. 이 모든것은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유격대내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심으로써 조선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려나가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시였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학습기풍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실천적모범은 항일유격대내에서의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기본요인으로, 크나큰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영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대원들에게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

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학습에 육친적인 배려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몸소 혁명적학습기풍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적과의 싸움으로 날이 새고 싸움으로 날이 저무는 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간고한 행군을 하시는 때에도 숙영지만 택하시면 추위도, 시장기도, 육체적피로도 잊으시고 그날의 일기를 쓰시고 책을 읽으시면서 밤을 새우군 하시였다. 심지어 그이께서는 속한으로 의식마저 잃으시였던 때에도 위급한 고비를 넘기시자 곧 책을 펼쳐드시고 학습에 힘을 기울이시였다. 그이를 직접 모시고 생활한 사령부의 전령병들까지도 그이께서 자리에 누우시기를 아무리 늦게까지 기다리다가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먼저 잠들게 되였으며 아무리 일찍 일어나보아도 그이께서는 어느새에 벌써 일어나시여 학습하고계시였던것이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것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에도 여라문번이상씩 원쑤들과 싸우면서 허리를 치는 생눈길을 헤치고 행군하고나면 아무리 기운이 장사같은 사람도 솜처럼 맥이 풀리고 눈을 뜰 기력조차 없어지건만 일단 숙영지만 택하면 김일성동지께서는 초불을 마주하고 앉으시여 그날의 일기를 쓰시고 책을 읽으시군 하시였다.

실로 우리 전령병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언제 주무시고 일어나시는지를 잘 몰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싸움의 나날, 고요한 서재나 따뜻한 방에서가 아니라 천고의 밀림을 집으로 삼으시고 눈비와 이슬내리는 나무밑에서 조선의 혁명로선을 세우시였고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짜시였다.

실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그 위대한 전략은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 적탄이 비발치듯 하는 포화속에서 쌓아졌고 조선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혁명로선은 바로 밀림의 눈빛과 우등불 아래서 한자한자 아로새겨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때에도 학습을 중단하시지 않으시고 꾸준히 진행하시였을뿐아니라 항상 대원들의 학습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조국과 인민에 무한히 충실한 불굴의 혁명투사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서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부닥칠 때마다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집중학습과 단기강습을 비롯한 대대적인 군정학습을 조직해주시였으며 개별적대원들의 자체학습까지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대원들에게 혁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워주시며 그들의 안목을 넓혀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시간을 짜내시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대원들의 학습을 위하여 피로도 무릅쓰시고 불후의 로작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과 학습교재도 쓰시였으며 부대의 군정학습에 앞서 직접 교육강령도 짜시고 식량도 넉넉히 장만하시는 등 대원들의 학습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학습을 조직한다는것은 어떤 강의실이나 준비하고 제강이나 만들고 강사나 동원시키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꾸준하고 완강한 노력과 피어린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정학습때마다 대원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제강도 짜시고 학습강사들을 몸소 선발배치하시였으며 강의도 해주시고 학습토론도 친히 지도해주시였다. 그리고 학습반도 대원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따로 조직해주시였다. 일정하게 정치리론적으로 준비된 간부들은 자습반에 망라시키고 일반대원들은 식자반에 망라시켜 공부시키

시였다. 학습방법도 강의를 하고 토론과 론쟁을 하는 방법, 개별적으로 담당하여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방법, 글을 써워서 배운것을 굳건히 하는 방법등 실로 다양하고 창발적인 방법들을 적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학습에서 가장 뒤떨어진 대원들을 비롯하여 개별학습지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담당하시였으며 그것을 훌륭히 실행하시였다. 또한 수준이 어린대원들을 위해서는 노래도 지으시여 그들이 노래를 통하여 학습의 내용을 쉽게 리해할수 있게 해주시였으며 손수 그들의 학습장까지 매주시고 글을 모르는 신입대원들에게 우리 글의 본과 구구표까지 써주시는 등 육친적인 배려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유격대내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학습에서의 자각성과 함께 그에 대한 엄격한 요구와 강한 통제를 잘 결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유격대내의 당 및 청년 조직은 물론 정치일군들과 군사간부들이 매개 대원들의 학습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통제하며 학습을 게을리하는 사소한 현상과도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당 및 청년 조직들과 정치일군, 군사간부들이 학습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유격대내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수 있었다.

어버이수령의 이처럼 크나큰 배려와 이신작칙의 위대한 모범과 현명한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원쑤와의 치렬한 싸움을 벌리는 때에도, 간고한 행군의 나날에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초를 아껴가면서 학습함으로써 전대오내에 혁명적학습기풍이 꽉 들어차게 하였다.

* *

항일유격대에서의 혁명적학습기풍은 우선 시간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정력적으로, 이악하게 달라붙어 학습한데서 발휘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행군과 전투가 일피나 다름없는 우리 유격대원들에게 언제 학습할 시간이 따로 있겠소. 한가한 시간을 보아서 학습하자는것은 결국 학습을 하지 않겠다는거나 마찬가지요.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싸움을 하면서도 짬만 있으면 배워야 하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때, 어떤 조건에서도 학습을 꾸준히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한 싸움의 나날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넘기는 때는 있어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우기 위한 학습은 단 하루도 중단한 때가 없었다.

그들은 어려운 행군과정의 쉴참에도 공부하였고 하루밤 묵어가는 숙영지의 우등불과 달빛 아래서도 책을 읽으며 조국을 되찾을 진리와 원쑤를 칠 전술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밤길이나 어두운 수림속으로 행군할 때에는 앞사람의 배낭뒤등에다 큼직한 글을 쓴 흰수건이나 천쪼박같은것을 매달아놓고 따라가면서 구구도 익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과 싸우는 토막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학습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왕청현 쟈피거우전투》, 《적들의 통로에 매복하여》 등에서 찾아볼수 있는바와 같이 그들은 매복전투에 나가 적들을 기다리는 한순간에도 경계근무를 빈틈없이 조직해놓고는 열심히 공부하였다.

빨찌산의 영웅 김진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유격대원들은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우리 글을 배우고 혁명의 진리를 배움으로써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불굴의 혁명투사로 자라날수 있었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시간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학습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혁명적학습기풍은 또한 모든 기회와 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학습을 강화한데서 발현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우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밑에 진행되는 집중학습과 단기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러한 학습은 항일유격대의 집체적인 학습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거의 매해에 걸쳐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조직하시여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심으로써 조성된 난관을 뚫고나가군 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러한 학습기간을 자기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며 군사기술을 부단히 련마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1분1초를 아껴가면서 정력적으로 학습하였다.

그들은 집중학습이나 단기강습기간에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전달받거나 강의받은 후에는 그것을 한두번 읽어보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그속에 담겨진 사상을 체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출연하시는 강의를 듣게 되는 때면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놓칠세라 심장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받아썼으며 그것을 몇번이고 읽고 또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진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군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강의와 함께 학습토론을 통하여 배운 학습내용을 공고히 하며 자기 활동을 총화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그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들은 《장차 수립될 인민혁명정부의 성격에 대하여》, 《혁명의 동력에 대하여》, 《일제는 조선인민을 어떻게 압박하고있는가?》 등 구체적제목을 놓고 론쟁하였다. 실로 이러한 론쟁은 정열적이였다.

1937년 겨울 마당거우밀영에서의 군정학습때 일부 대원들이 지식계층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론쟁을 벌린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그들의 론쟁은 좀체로 옳은 해명을 얻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의 토론을 다 들으시고 언제나 문제를 일면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을 구체적실례를 들어가면서 분석하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장차 해방된 우리 조국에서 제반민주주의적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는 모든 분야에서 지식이 없으면 사회를 더 발전시킬수 없을것이다. 지식은 우리 혁명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량식이다. 그러므로 우리자신들도 많은 지식을 빨리 소유해야 하고 동시에 많은 지식인들을 개조하여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을 당에 받아들여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해야 한다. 그래야 지식계층들이 동요성과 약점들을 빨리 극복하고 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훌륭한 지식인으로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배운 문제를 론쟁을 통하여 제힘으로 자기의 정치리론적식견을 계발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깨워주심으로써 대원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리해하도록 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강의와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기때문에 학습에서 배운 사상을 명백하게 인식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친히 강의를 해주시고 학습토론을 지도해주시는 한편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실 때마다 조국광복의 위대한 구상과 투쟁방도에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조국의 유구한 력사와 지리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에 대하여, 국제국내정세에 대하여, 그리고 혁명에 대한 넓은 지식을 안겨주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흥미있게 말씀해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 그이의 말씀을 주의

깊게 믿었으며 심장깊이 새겨넣었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독서기풍은 학습기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리용한 혁명적출판물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데 있어서 위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그들은 당시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집필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등 소책자들을 가지고 학습하였다. 그리고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발간된 《3.1월간》, 《서광》, 《종소리》, 《칠힐》 등 신문, 잡지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도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에 귀중한 방식으로 되였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배낭에 식량이 떨어지는때는 종종 있어도 혁명의 광석인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혁명적출판물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면서 꾸준히 학습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가 빨찌산투쟁을 할 때에는 책 하나 얻어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찌다 책을 하나 얻게 되면 보풀이 일어 글자가 보이지 않고 책이 닳아떨어질 때까지 돌려보았으며 나중에 글이 정 보이지 않으면 다시 써넣기도 하고 책장이 떨어져나가면 다시 써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신문 한장 얻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였으며 신문을 얻으면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숱한 사람이 돌려가면서 보았습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2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로작들에 담겨진 심오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밤잠을 잊어가면서 탐독하였다. 그들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받게 되면 이손에서 저손으로 옮겨가며 읽고 또 읽었다. 그들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외에도 벽신문, 전투속보, 선전문, 표어 등 다양한 출판물들을 리용하였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례외없이 모두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해설선전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모든 기회와 수단들을 다 리용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학습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혁명적학습기풍은 또한 학습을 교조적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혁명투쟁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배운것을 실천투쟁에 적용하여 더욱 공고한 지식으로 만든데서 발현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리론은 우리의 구체적인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만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실천은 반드시 혁명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야만 승리할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항상 대원들에게 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시켜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쌓을것을 강조하시면서 《글뒤주》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학습을 한갖 지식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학습목적은 어디까지나 창조적인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배워 그것을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때문에 그들의 학습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선혁명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관되여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한 문제를 배우면서도 바로 눈앞에 일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모진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그리며 그들을 하루속히 해방하고 인민이 살기좋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할 생각을 안고 열심히 학습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하나를 배워도 똑똑하게 자기의 산지식으

로 습득하였으며 그 지식은 곧 그후의 실천활동에서 은을 나타내군 하였다.

1933년 왕청유격근거지에서 유격대원들과 적위대원들이 전투에서 지형지물을 잘 리용해야 한다는 전술적원칙을 학습하면서 마을의 얼빙개산을 효과있게 써먹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돌을 무데기로 쌓아두었다가 50여명의 적기병이 쳐들어왔을 때 그 돌을 굴려 놈들을 일격에 물리친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은 배운지식을 공고히 하며 더 잘 써먹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자주 글을 짓군하였다. 그리하여 출판물에도 많은 글을 실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실천과 결부시켜 학습하였고 배운지식을 실천투쟁에 적용하여 큰 물질적힘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그 진리의 정당성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 공고한 산지식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내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실천적모범과 대원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 따뜻한 보살핌에 의하여 혁명적학습기풍이 수립된 결과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에 대한 승리의 신심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키울수 있었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계급적원쑤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로 하여 자립적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행동할수 있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은 꾸준한 학습과 혁명적수양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만들었다. 실로 그들은 살아도 혁명과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혁명과 수령을 위해 죽는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이였다. 바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커다란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　　　*

15성상 류례없이 가렬한 전투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생활로 일관된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실천적모범과 대원들에 대한 그이의 육친적인 배려와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적학습기풍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하고 본받아야 할 귀중한 재부이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령도된 항일유격대내에서의 혁명적학습기풍은 우리들에게 학습을 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의 혁명화를 어떻게 밀고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로 훌륭한 본보기로, 귀감으로 된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학습기풍의 모범을 따라배우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학습을 혁명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의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깊이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수령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되여야 할것이다.

#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

편 광 성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영도하시는 전과정에서 협동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지난해에 진행된 우리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이 경제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을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해주시였다.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이 경제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리론적으로 정확히 해명하며 협동생산을 잘 조직하고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찾아내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켜 절약과 증산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충분히 동원리용하며 사회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앞당겨 점령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또하나의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협동생산에 관한 리론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이 받들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실천활동에서 그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과학적근거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협동생산의 정확한 조직과 철저한 보장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를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한다면 개별적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은 그안에 있는 직장이나 작업반들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어느 한 부문이나 어느 한 기업소라도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협동생산규률을 어기면 인차 그와 련관된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과학적근거를 명시하고있다.

협동생산의 정확한 조직과 그 철저한 보장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이 작용한다. 정

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국가는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이 객관적경제법칙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계획화하며 생산과 분배, 교환, 소비를 통일적으로 실현한다.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간의 자유경쟁으로 하여 생산의 무정부성이 지배하며 사회적로동의 막대한 랑비현상을 불가피적으로 낳게 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국가는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이러한 우월성은 협동생산의 정확한 조직과 철저한 보장에 의하여 충분히 발휘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은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생산활동을 진행하며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룬다.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보장하여야만 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대규모적사회주의적생산의 유기적인 고리들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다할수 있게 된다. 협동생산을 통하여 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은 치차와 같이 서로 맞물고돌아가게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매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계획을 지표별로 제때에 수행하고 협동생산품을 질적으로 만들어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적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협동생산의 조직은 군대로 말하면 하나의 협동작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여러 군종, 병종, 부대들이 서로 보조를 잘 맞추어 협동작전을 옳게 진행하여야 적을 완전히 포위섬멸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부문,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질적으로 잘 만들어 보장해주어야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는 것이다.

협동생산의 정확한 조직과 철저한 보장은 모든 경제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을 계획대로 생산하여주지 않는다면 금속공업부문에서 강철을 제대로 생산할수 없으며 강철생산이 뒤면 기계생산과 기본건설에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 기계가 계획대로 생산되지 못하면 천도 짤수 없으며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있는 팔다리와 눈, 코, 입, 귀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 기능을 놀지 못하면 온몸이 제대로 활동할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이 생산정상화의 중요담보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정상화를 보장하는것은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고리의 하나이며,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이 없이는 생산의 정상화를 바랄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과정에서 호상 의존하고 제약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즉 한 공장에서의 생산물이 많은 경우 다른 공장에서의 로동대상 또는 로동수단으로 되는 식으로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는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비단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만이 아니라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사이, 1차가공공업과 2차가공공업사이 그리고 모든 경제부문들사이에 있으며 공장, 기업소내 생산단위들사이에도 있다.

자재의 적시적인 공급은 생산정상화의 필수적조건의 하나이다. 자재공급은 계획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생산조직사업에 대하여 말할 때 자재를 원만히 대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사

업은 없다.

그런데 생산정상화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자재는 바로 협동생산에서 나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생산정상화의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보수정비사업도 협동생산에 의하여 나오는 기계부속품들이 없이는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장비를 개선하는 사업도 결국은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다.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질적으로 만들어주어야만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들이 제대로 보장될수 있으며 생산이 정상화될수 있다.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은 또한 생산에 투하된 자금의 순환을 촉진하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생산에 투하된 자금의 순환은 생산기간이 단축되고 생산된 제품이 실현되여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 소비령역에 빨리 들어서면 빨리 들어설수록 촉진된다.

협동생산품을 질적으로 제정된 기일내에 만들어 보장해주어야만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오작품을 없애고 생산을 제대로 진행할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투자의 보람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내게 할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은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또 필수적요구로 된다.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생산에서의 전문화가 더욱더 심화발전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생산의 전문화는 생산공정을 단순화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제고 그리고 원가저하를 촉진한다. 그렇기때문에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이 더욱더 전문화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생산을 전문화하는 원칙에서 새로운 경제부문, 공장, 기업소들이 생겨나며 따라서 경제부문구조가 다양해지고 그들간의 련계가 더욱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경제의 발전과 생산의 전문화에 따라 한 제품의 생산에 더욱더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참가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생산의 전문화원칙에 기초하여 분화된 모든 생산적고리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키는 협동생산의 정확한 조직과 철저한 보장은 전반적인민경제의 조화적이며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 튼튼한 경제토대가 마련되고 경제규모가 방대해졌으며 부문간, 공장, 기업소들간에 생산적련계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조건에서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인민의 헌신적로동에 의하여 쌓아진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그것은 인민경제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기 위한 밑천이며, 당이 이미 제시한바와 같이 이 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다.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철저히 보장하여야만 인민경제의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국가재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더우기 올해에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더욱 긴장된 투쟁을 벌려야 할 현실적요구로 보아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여 현존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된다.

현실은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철저히 보장하는 여기에 현존경제토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국가재산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하여 증산하며 7개년계획의 모든 봉우리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엄격히 보장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는것은 특히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새로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로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당면한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원들과 일군들은 협동생산의 거대한 의의를 인식하고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생산을 잘 조직하고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계획은 결코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것이 아니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법적과제라고 하시면서 협동생산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에 맞물린 협동생산품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기한을 앞당겨 생산하여 보장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서로 맞물려진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과제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와 그 실현의 가능성들을 다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한것이며 거기에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인 결의와 창발적의견들이 다 담겨져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장해주는것은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자신들의 결의를 그대로 실천하는것으로 된다.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원칙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생산에 물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보내는것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매달 협동생산품을 먼저 생산하여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기의것을 생산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국가계획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생산규률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를 위하여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남이야 계획을 하든말든,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부문, 자기 기업소만 계획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협동생산규률을 지키는 문제는 강한 사상투쟁이 없이는 결코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없다.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는 개인주의, 개인리기주의에 뿌리를 박고있으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와는 량립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에서야 일이 잘되든 못되든, 흥하든 망하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놈들은 오직 자기만 돈을 많이 벌어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치부하기 위하여서는 도리여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가 일이 안되고 망하기를 바라는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달리는 될수 없다.

그러나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밑에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이 생산과정에서 서로 맞물고돌아가는 사회주의사

회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기업소만 잘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할바 없다고 생각하는 기관본위주의적사업태도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것이다. 만일 그 어느 한 단위에서라도 기관본위주의 및 지방본위주의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적으로 맞물려놓은 계획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협동생산규률을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련관된 단위와 부문들에 인차 영향을 미쳐 전반적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것은 명백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활동과 경제관리에서 언제나 기관본위주의적인 사소한 표현에 대하여도 허용하지 말고 타협없이 투쟁하여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협동생산품을 반드시 제정된 기간에 생산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각급 당조직들이 당적원칙에 확고히 서서 사업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인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원칙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단위에서 협동생산계획수행에 대한 당적통제를 강화하며 일부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협동생산과제수행에 대한 경제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물론 협동생산규률을 강화하는데서도 기본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는것이지만 통제를 전혀 필요치 않는것으로 여기거나 도외시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다. 그렇기때문에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데서도 협동생산에 물린 제품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하여 보장하였는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당이 내놓은 세부계획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세부계획화의 필연성과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서로 밀접하게 련관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해나가려면 반드시 세부계획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들과 모든 기업소들의 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의하여 치차가 맞물고 돌아가듯이 똑바로 맞물려지지 않고 어느 한 고리라도 뛴다면 빨리 발전하여나갈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부계획화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맞물리도록 계획을 세부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과 협동생산조직의 필수적요구이다.

계획을 세부화한다는것은 우리의 인민경제계획이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옳게 보장하는것과 함께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맞물린 계획으로 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큰것과 함께 작은것들까지도 다 계획에 들어가고 그 어떤 제품의 생산과제도 결코 《도의적》인것으로서가 아니라 법적과제로서 다 맞물려질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부계획화가 협동생산의 구체적이며 정확한 조직을 자체의 주요내용으로 한다는것을 말한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세부계획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생산과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국가지표에 의하여 다 맞물려준다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만들거나 당장 필요한것을 생산하지 않는 현상도 없을것이며 모든 부문, 모든 공장에서 생산이 정상화될것이다. 그리고 자재상사들은 정확한 계약을 맺고 그에 근거하여 기업소들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들을 제대로 내려보내줄수 있을것이다.

생활은 당의 세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며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지금 가지고있는 경제적밑천으로 생산을 훨씬 높이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세부계획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에서 낡은 틀, 낡은 방법론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낡은 틀, 낡은 방법론을 가지고서는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보장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새로운 계획화방법론, 다시말하여 계획의 일원화체계의 요구에 맞으며 세부계획을 세울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리론발전과 계획경제의 관리운영개선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계획화방법론에 철저히 의거하여 계획일군들이 관료주의적이며 주관주의적인 낡은 사업방법을 버리고 생산현장에 직접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널리 토론하고 계획세포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면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타산되고 세부분에까지 정확히 맞물려진 세부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따라서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잘 보장할수 있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세부계획을 세우는것과 함께 일단 세워진 세부계획이 똑바로 집행되도록 통제를 강화하며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부계획을 잘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협동생산이 제대로 보장될수 없다.

당이 제시한 방침에 기초하여 계획기관들을 비롯한 국가, 경제 기관들의 통제적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특히 지구계획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지구계획위원회는 기업소들에서의 계획수행정형에 대하여 늘 통제하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제때에 풀어주는 등 국가계획의 정확한 수행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생산을 보장하는데서 자재상사들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 자재공급사업을 바로잡는것입니다.…

자재공급사업에서 기본은 모든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현물로 [illegible]현장까지 날라다줄데 대한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는데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이 중심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아무리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잘 지키려고 하여도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대주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생산할수 없다. 자재공급사업을 잘 해야만 계획규률을 세울수 있으며 협동생산규률도 강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 자재공급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은 국가계획수행과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협동생산에 필요한 자재공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재상사들이 자기의 위치에 튼튼히 서서 그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재상사들은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자재의 예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산현장에 깊이 파고들어가 생산에서 오작품을 없애며 생산량을 조절하며 생산기간을 줄이는데 능동적인 작용을 가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자재상사가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적시적인 자재공급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협동생산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상사들은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에 따라 산하 공장, 기업소들의 자재수요를 생산시기별, 품종, 규격, 재질별로 정확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다른 자재상사들과 계약을 정확히 맞물리며 자재를 제때에 받아다 공급하여야 한다. 한편 자재상사들은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실현하기 위한 계약을

다른 자재상사들과 맺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기동성있게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재상사는 원료, 자재의 계획적공급을 상품류통의 형식을 통하여 실현하는것만큼 공급계획을 바로세우는 한편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자재상사들이 자재공급사업을 이러한 원칙에서 정확히 진행함으로써만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여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국가계획의 수행과 협동생산의 보장에 더 많은 힘을 넣을수 있게 될것이다.

자재상사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시한 방침대로 성 및 자재공급위원회 지도일군들이 자재상사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것이 중요하다.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집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 때야만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며 협동생산을 더 잘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며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겨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며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높은 혁명정신은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동시에 풍부한 경제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경제를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으며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다.

국가계획을 정확히 수행하며 협동생산을 잘 보장하는 사업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며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반드시 국가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여야 하며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돌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 남조선인민들은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

조 명 일

투쟁의 한해 1969년을 보내고 새해, 1970년을 맞는 오늘 남조선 인민들앞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일제가 패망한지 25년이 접어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의 명에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가혹한 압박과 착취를 받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더욱 커가고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사회는 《공기 없는 천지, 즙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침식당한 폐허》로 전락됨으로써 인민들은 더는 견딜래야 견딜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에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온갖 민족적 재난과 고통을 제거할수 없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앙양시켜 빛나는 승리에로 고무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견지해야 할 근본적립장과 남조선혁명승리의 기본방도를 똑똑히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주인된 자각을 높이고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을 원쑤들의 야수적인 탄압속에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면서 끝까지 견결히 싸워 이길수 있게 하는 투쟁의 확고한 무기를 마련해 주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그들에 대한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신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시여 남조선혁명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놀아야 할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본래 혁명은 해당 사회의 내부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으로서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사회내부의 혁명력량이다.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남조선혁명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고있는 남조선사회자체의 고

유한 모순에 의하여 생긴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사이의 모순에 의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다. 따라서 남조선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의 주인은 바로 남조선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남조선인민자체의 힘이다.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일떠서지 않고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민족해방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한 부분인만큼 공화국북반부인민들도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이 혁명을 완수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혁명력량은 또한 현실적으로 남조선혁명반전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으며 필요한 때면 언제든지 어떤 형태의 지원도 다 줄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여 있다. 그러나 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할수는 있어도 그들을 대신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할수는 없으며 그러한 지원도 남조선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있는 조건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직 남조선인민들이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원쑤들과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남조선인민들은 변천하는 정세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혁명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으며 투쟁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시련들을 능히 이겨낼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5성상의 오랜 기간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전혀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꺼꾸러뜨리고 조국을 광복하신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모범으로, 귀중한 재부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따라 남조선인민들도 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할 각오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선다면 원쑤들의 그 어떤 반혁명적공세도 주동적으로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들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밀고나감으로써 승리를 앞당기려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혁명적폭력으로 때려엎고 남조선혁명을 결정적승리에로 전환시키는 혁명적원칙으로 일관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견지해야 할 주인된 립장과 역할을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79폐지)

남조선혁명에서 기본문제로 나서는것은 주권문제이며 그것은 어데까지나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혁명이란 낡은 사회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반혁명세력과 그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창조하려는 혁명세력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으로서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인민들의 결정적투쟁을 요구한다.

혁명의 담당자인 인민들자신이 결정적투쟁에 일떠서지 않고서는 반혁명세력을 요정낼수 없으며 따라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없다.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결정적투쟁은 반혁명의 폭력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혁명적폭력은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0페지)

착취계급은 군대, 경찰, 감옥 등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탄압하면서 자기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해나간다. 따라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착취계급의 반혁명적폭력에 맞서게 된다. 착취계급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앙양되면 될수록 저들의 지배를 지탱하려고 더욱더 포악한 반혁명적폭력에 매여달린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들의 결정적투쟁이 없이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갖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력사에는 아직 착취계급이 자진하여 자기의 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한 일이 없으며 어떤 반동계급이 반혁명적폭력을 쓰지 않고 공순히 정권에서 물러선 실례도 없다.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테로통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의 조건에서 인민들의 혁명적폭력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인민들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와 같은 악랄한 적을 직접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가장 포악한 반혁명적폭력에 매여달리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의 전인민적항쟁이 없이는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난 20여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이 겪은 쓰라린 체험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여러번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여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타도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놈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통치를 세워놓고 인민들에게 전례없는 야수적폭압을 가하여나섰다.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폭압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그것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극악한 식민지파쑈통치가 감행되고있는 남조선에는 오늘 6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을뿐만아니라 70여만의 괴뢰군과 수많은 경찰들과 정치룡부들이 있으며 남조선은 파쑈폭압의 총검으로 뒤덮이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 남조선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오늘 그 어떤 야수적이며 파렴치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발광하고있다.

혁명과 반혁명이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고있는 남조선에서 혁명의 승리가 인민들의 결정적투쟁이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빼앗긴 인민주권을 도로 찾을수 있다.

* *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하여 자유와 해방을 쟁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에서 필수적인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39페지)

남조선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없다. 혁명력량이 강해야 반혁명을 때려부실수 있고 반혁명을 때려부셔야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객관적법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바라는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시기 남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그 이후시기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준비되지 못하였기때문에 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유리한 기회들을 놓치고말았다.

경험은 남조선에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이 동원되여야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89페지)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의 지도력량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당이다. 로동자, 농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주위에 굳게 뭉쳤을 때에만 진정으로 위력한 정치적부대로 될수 있다.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임으로써만이 혁명의 기본계급들의 조직성과 혁명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승리의 확고성을 보장할수 있다.

당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의 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이 있어도 강력한 지도핵심이 없으면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전투력을 발휘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수령의 탁월한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혁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들로써 당의 지도적골간을 꾸리고 그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력군을 꾸리는것과 함께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결속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남조선의 인테리들과 청년학생들, 도시의 소시민들과 량심적인 민족부르죠아지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통일전선에 굳게 결속하는것은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하며 반혁명력량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결속하는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그들은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수 있는 힘있는 부대를 만들어낸다. 또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로동자, 농민과 힘을 합할 때에는 적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줄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굳게 뭉쳐야 한다.

혁명투쟁에서 반혁명무력을 와해하고 그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대는 지배계급이 의거하고있는 마지막 아성이다.

혁명의 력사는 군대가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 때 어떠한 지배계급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국군》은 미제의 고용군대이며 반혁명무력이지만 그 기본대중을 이루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절대다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출신이며 특히 병사대중은 군복입은 로동자, 농민들이거나 그 자제들이다. 이것은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능히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국군》 병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킨다면 그들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이다.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오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할수 없으며 혁명도상에 조성되는 어려운 국면들을 타개해나갈수도 없게 된다. 희생을 피한다는 구실밑에 혁명투쟁을 외면하는것은 사실상 인민들을 자본의 종신노예로 내맡기는 것이며 모진 착취와 압박, 빈궁과 무권리를 영원히 참으라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혁명운동의 경험은 오직 반혁명세력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속에서만 인민대중은 준비된 혁명투사로 자라나며 그들속에서 진정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혁명력량이 확대강화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오를 육성확대하고 그 주위에 광범한 혁명군중을 집결시켜 부단히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몸소 창조하신 맑스-레닌주의적인 과학적인 전략적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기부터 선진적인 청소년들과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결속하여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였을뿐만아니라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속에서 그들을 단련시켜 혁명가로 육성하시였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무장대오를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로써 부단히 확대강화하시면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된 공산주의자로, 혁명적골간으로 키우시는 한편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고 맑스-레닌주의교양과 실제투쟁을 통하여 혁명가로 육성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이와 같이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일제를 반대하여 불굴의 투쟁을 전개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행정에 이룩하여놓으신 이 고귀한 업적과 빛나는 투쟁경험은 남조선혁명력량을 꾸리며 그를 부단히 장성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

중하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더욱 장성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그것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함으로써만 혁명의 결정적시기에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승리를 위한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의 구호밑에 합법과 비합법, 폭력과 비폭력,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를 배합하면서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요즘 남조선에서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친듯이 벌리고 있는 범죄적인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간고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각성되고 조직화되고있으며 훌륭한 혁명적지도간부들이 많이 자라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결정적인 반미투쟁에 일떠설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배겨내지 못할것이며 남조선에서 쫓겨나고야말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3페지)

인민대중이 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서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란 없다.

문제는 남조선인민자신이 혁명을 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는데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다.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사회주의혁명력량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도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야 말것이며 진정한 인민주권을 세우고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기어코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 현대제국주의 괴수 미제의 종국적 멸망은 불가피하다

박 영 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괴수인 미제의 력사적지위와 그 취약성 및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지만 지금 더욱더 죽어가고있으며 놈들의 종국적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앙양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1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김에 있어서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교시는 반미투쟁의 휘황한 전망을 똑똑히 밝혀줌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그들을 반미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며 이 합법칙적과정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고 죽어가는 력량이며 반제혁명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은 진보와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력량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면서 허장성세하는것은 놈들의 취약성과 부패성의 반영이며 죽어가는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지난날 제국주의패망의 력사와 오늘 세계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으로써도 종국적인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멸망의 나락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현대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운명도 결코 달리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멸망하여가는 징조는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있으며 미제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 취약성이 그 어느때보다 드러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미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야만다는 교시의 내용을 깊이 체득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의 위대한 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

*　　　*

오늘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렬이 더욱더 늘어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반미혁명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내리막길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전세계적범위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반미혁명투쟁은 미제의 멸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세계적범위에서 날로 확대되고있는 반미투쟁대렬에는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운동, 민주주의운동과 평화애호운동이 망라되고있으며 그것들은 하

나의 흐름속에 합류하여 사면으로부터 미제에 타격을 가하고있다.

실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력사에서 오늘처럼 강력하고 광범한 력량이 떨쳐나선 때는 없으며 오늘처럼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된 때는 없다.

사회주의력량의 확대발전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현시기 인류력사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35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력량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으로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며 전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고무하여준다.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은 꾸바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의 문앞에까지 확대되였으며 인민들의 거세찬 해방투쟁에 의하여 세계무대에서 미제의 세력범위는 현저히 축소되였으며 놈들의 침략정책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격렬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력량은 계속 장성발전하고있으며 미제국주의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날로 쇠퇴몰락하고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만무례한 미제침략자들의 등뼈를 분질러놓음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여버렸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놈들과 맞서 용감히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놈들의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격추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미제침략자들의 코대를 여지없이 꺾어놓았고 놈들을 더욱 깊은 궁지에 몰아넣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은 그때마다 우리 인민의 단호한 조치에 의하여 철저히 분쇄당하고있다. 놈들은 그 어떤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으로써도 저들의 위기를 만회할수 없으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제는 웰남에서도 같은 운명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에 부딪쳐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빠져있다. 놈들은 웰남전쟁에 이미 50여만명의 침략군을 끌어들이고 막대한 돈을 전쟁마당에 쏟아부으면서 각종 악랄하고 야만적인 전쟁방법을 다 쓰고있으나 놈들의 종국적패배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웰남전쟁에서의 군사정치적패배로 하여 미제의 위기는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동남아세아에서의 미제의 지반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미제는 혁명적꾸바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영웅적꾸바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계속되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성과적으로 짓부시면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제의 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한 혁명적사회주의나라들의 확고부동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위대한 성과에 고무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근동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미제에 투쟁의 예봉을 집중하면서 놈들

의 각을 뜨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확대발전하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은 미제의 종국적멸망과정을 촉진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가장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2～13페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이미 막을수 없는 힘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이 지역의 더욱 많은 인민들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철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어져가고있으며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여지없이 붕괴되여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제 더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동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마지막 숨통이 바로 이 지역에서 끊어져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투쟁의 현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서산락일의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각성된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하에 있거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당하고있는 나라 인민들은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민족적존엄과 국토의 완정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그들은 이 투쟁에서 서로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미제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이와 함께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위한 투쟁도 반제반미투쟁의 일환으로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해방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될 때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적방침을 밝혀주고있으며 미제국주의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투쟁, 날로 세차게 일어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완강한 반미투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멸망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악랄하게 벌리며 횡포하게 날뛰고있는 오늘 놈들의 취약성은 더욱더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리면서 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면 뻗칠수록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는 결정적요인은 더욱 증대되는것이다. 미제의 침략책동은 세계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으며 그들을 하나의 투쟁전선에 단합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제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로부터 심히 고립당하고있으며 제놈들의 군사, 정치적 취약성을 극도로 발로시키고있다. 이것은 이미 칠성판에 오른 미제의 극복할수 없는 위기의 산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급격히 자라나고있는 로동계급의 반미투쟁에 의하여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은 자국의 독점자본가들을 반대하여 더욱더 세차게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반동의 지주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국제적착취자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광범히 벌림으로써 미제의 침략적지반을 걷잡을수 없이 뒤흔들어놓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써도 각성된 인민들의 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막을수는 없다. 놈들이 세계인민들의 거세찬 반미투쟁의 포화속에서 종국적으로 멸망하는것은 피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십자포화에 걸려 죽음의 고비를 겪고있는것은 바로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2페지)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로,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으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흉악한 교살자로, 세계평화의 교란자로 되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달성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미제국주의를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로,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락인하고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히 일떠서고있는것이다.

전세계적범위에서 날로 늘어나고 막을수 없는 힘으로 자라난 반미혁명력량의 강력한 타격을 받아 미제의 더러운 숨통이 끊어져가고있으며 마침내는 종국적인 멸망을 당하고야 말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반미혁명투쟁과 함께 미국내부에서 확대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 그리고 자본주의세계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쇠퇴몰락하게 하며 놈들을 종국적멸망에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부에서 날을 따라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인민들의 대중적진출로 하여 지금 막다른 골목에 빠져있으며 부단한 붕괴과정을 겪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에서 반동통치자들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도 더욱 강

**화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피에 굶주린 제국주의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습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것은 독점지배층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소굴에서 광범히 일어나고있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으로 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독점자본의 지배와 전횡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근로자들의 진출이 강화되고있으며 범죄적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특히 미국인민들의 반전투쟁은 그 규모에 있어서 국내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있으며 그 투쟁대렬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하고있다.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웰남침략전쟁을 당장 중지하라!》, 《우리의 투쟁은 승리할 때까지 계속될것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시위, 군중집회, 동맹휴학, 모임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로 닉슨도당의 범죄적인 웰남침략전쟁을 준렬히 항의규탄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미국의 전지역은 격렬한 반전투쟁의 도가니로 들끓고있다.

미국인민들의 반전투쟁에는 미제침략군병사들도 합류해나서고있으며 지어 웰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간 침략군병사들속에서도 반전투쟁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격렬성을 띠고 조직화되고있는 미국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제국주의자들을 안으로부터 손발을 묶어놓음으로써 놈들의 침략정책을 파탄에로 이끌어가고있는것이다.

미국로동계급들의 파업투쟁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반전운동에 때를 같이 하여 일어나고있는 흑인들의 폭력적진출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 큰 곤궁에 몰아넣고있으며 놈들의 정치적위기를 가일층 심화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인종주의정책을 반대하여 결연히 일떠선 미국흑인들은 자유와 평등,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완강히 싸우고있으며 흑인독립국가의 창건을 일정에 올리고 결정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반동지배층들이 미국흑인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제놈들이 《100년래의 최악의 사태》에 부딪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사태의 직접적인 반영인것이다.

미국인민들의 이와 같은 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날이 갈수록 안으로부터 광범한 인민대중의 불만과 항거에 부딪치고있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혁명력량이 내부에서도 더욱더 장성강화되여가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진지는 안으로부터 붕괴되여가고있으며 그 지반은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놈들의 소굴에서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적위기는 놈들의 반인민적정책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국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대중적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파쑈통치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써도 인민들의 이 대중적진출을 막아낼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극소수의 대독점자본이 국가기구를 틀어쥐고있는 미국에서 모든것은 한줌도 못되는 독점자본의 착취와 략탈에 복종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사소한 진보적운동도 총칼로 마구 유린당하고있다.

현대제국주의,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독점의 지배와 전횡의 강화는 필연코 제국주의의 온갖 모순을 격화시키며 그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극도로 첨예화된 모순과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의 강화, 그리고 침략적인 해외팽창과 략탈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함으로써 경제는 항시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권은 심히 위협당하고있다. 이와 함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르는 정치에서의 파시즘의 강화는 인민들을 완전한 무권리의 처지에 몰아넣고있다. 이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의 불만과 반항을 야기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결국 그들을 독점지배층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로 떨쳐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는것이다.

제국주의의 고유한 모순의 필연적인 산물인 독점지배층들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것은 놈들을 계속 약화시키면서 종국적멸망에로 이끌어가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착취와 압박,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놈들의 쇠퇴몰락과정은 더욱 앞당겨지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부인민들의 투쟁뿐만아니라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에 의해서도 멸망과정이 촉진되고있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승냥이법칙이 작용하는 제국주의세계에서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제국주의렬강들간의 개싸움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날로 격화되고있는 제국주의렬강들간의 모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늘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현시기 제국주의세계내부모순의 중요한 측면은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제국주의렬강들의 반항과 대립화의 경향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것이다. 많은 제국주의나라들이 미제의 지배와 통제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미제와 다른 제국주의렬강들간의 이와 같은 모순은 특히 미제의 해외침략전쟁과 놈들이 만들어놓은 침략기구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직후까지만 하여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을 제놈들의 손아래에 넣고 그들을 좌지우지할수 있었으며 제놈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손쉽게 동원할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태가 변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날이 갈수록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제국주의《동맹국》들이 이 전쟁에 끌려들어 개죽음을 당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그에 외면해나서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남조선의 박정희괴뢰악당과 타이반동들, 그리고 일본 사또도당과 같은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지원을 얻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미제의 지위가 약화되고 미제에 대한 제국주의렬강들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미제의 침략도구인 《북대서양군사조약기구》는 심한 분렬상태에 놓여있고 《동남아세아조약기구》는 유명무실하게 되였으며 《동북아세아군사동맹》조작책동은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고있다.

날로 격화되고있는 제국주의렬강들간의 모순과 대립으로 하여 제국주의진영에서 미제에 의한 지배와 예속 관계가 점차 허물어져가고있으며 놈들은 제국주의《동맹자》들로부터도 더욱 고립되여

가고 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동맹자》들을 침략전쟁에 끌어들여 세계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제의 음흉한 침략기도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다.

자본주의발전의 불균등적법칙의 작용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진영내부에서 세력관계가 부단히 변화하며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이 날로 장성강화되고 새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세계제국주의시장과 세력권이 현저히 축소되여가고있는 조건에서 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렬강들간의 모순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렬하여지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제국주의세계에서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는 제국주의렬강들간의 모순은 놈들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계속 심화시키고 제국주의진영전반을 부단히 약화시켜 결국 놈들의 종국적멸망과정을 앞당기게 하는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며 제멋대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걸으며 망하여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추세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낡은 력량으로서 이미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 대한 지난날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고있으며 지금 회피할수 없는 붕괴와 멸망의 길을 걷고있다.

현실은 미제의 운명이 이미 칠성판에 올랐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변할수 없는 본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옛처지를 꿈꾸며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결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침략과 전쟁에서 칠성판에 오른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제국주의자들이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더 발악하고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오늘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죽어가고있으나 의연히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제놈들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드러내놓고있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놈들을 종국적으로 때려엎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피압박민족들은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해방된 인민들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민족적독립을 튼튼히 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반미투쟁전략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취약성과 현시기 세계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전략은 내리막길에서 죽어가고있는 미제를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하는 가장 혁명적인 투쟁전략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광범한 반제력량이 집단적으로 미제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전략적방침은 미제국주의자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이러저러한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전략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작은 나라들과 분렬되여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미제국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대하여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의 두족을 각개절단하는것으로 대답하여야 한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21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뜨면 놈들을 능히 때려엎을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반제력량이 공동으로 미제를 공격하여 그 각을 뜰데 대한 이 전략은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을 치렬한 반미투쟁전선으로 만들어 사면팔방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가하여 놈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그 숨통을 죄여들어가는 령활한 전략이며 미제의 세계전략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 좌절시키는 진공적인 전략이며 인민들로 하여금 매 전선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전략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 동시에 미제를 성과적으로 때려엎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미제의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미제의 힘은 그만큼 약화되는것이다.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력량, 민주주의력량과 평화애호력량 등 세계의 광범한 반제반미력량이 굳게 뭉쳐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릴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맥을 추지못할것이며 결국 서산락일의 운명을 면치못할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전략은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자아내고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반미투쟁의 현실속에서 날이 갈수록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힘차게 관철하여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더 빨리 건설할수 있다.

근로자 제1호 (루계 33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12월 30일 발행 • 1970년 1월 5일
값 50전
ㄱ—93543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2 호 (335)


## 차 례

#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2월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고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실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그에 적응하게 당 및 국가의 지도를 어떻게 개선완성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처음으로 전면적이고도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준것으로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이후의 지난 10년간은 그것이 전면적으로 일반화되고 더욱 심화발전된 10년이며, 그 위력이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된 10년이다.

생활은 청산리방법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손에 쥐여진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 이것은 온갖 낡은 사업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온나라가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연정으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청산리방법을 힘있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 당이 내놓은 모든 과업을 빛나게 완수한 승리자로서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촉진할수 있다.

## 1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주체사상, 심오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방법을 소유하시고 오랜 혁명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되였으며 더욱더 심화발전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전면적확립은 정치와 경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 환경에 맞게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책임적인 임무이다.

변천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당과 국가의 지도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사회주의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생활이 제기한 성숙된 요구를 적시에 포착하시고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내놓으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는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우리 나라의 한 농촌인 청산리를 찾으시고 15일간이나 현지에 계시면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새로운 지도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당 및 국가의 지도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창조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고귀한 결실이며 심오한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을 가지시고 대담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방법의 기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8~299페지)

청산리방법은 우가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어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그 지도가 대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문제해결의 정확하고도 현실적인 방도를 찾게 하는 방법이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는데 지도의 기본을 두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바와 같이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생동한 모범으로 일군들을 가르치고 당정책을 철저하게 구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중심고리를 찾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이여의 고리들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사업전반을 추켜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적인 앙양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군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고 자신도 배우면서 힘을 합쳐 현실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고 혁명과업을 정확히 해결하여나가는 과학적지도방법의 전형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본받게 하여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게 하며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요점을 찾은 다음 그것을 뚫고 선후차를 가려 모든 과업을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맑스-레닌주의적방법의 전형이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령도의 근본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며 그것을 집대성한것이다.

청산리방법이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령도방법의 전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한 초석으로 삼고있으며 철저한 군중로선의 정신인 청산리정신을 사업방법에 구현한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298페지)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고 선후차를 가리는 등 청산리방법의 근본요구들은 바로 혁명적군중로선에서 출발한것이며 그것을 훌륭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청산리방법은 이와 같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기때문에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맑스-레닌주의적령도방법의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협조와 단결이며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이 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는것이다.

오직 혁명적인 청산리방법만이 이러한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관계의 기본에 부합되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령도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청산리방법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고 당 및 국가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청산리방법을 보다 심도있게 구현하도록 지도하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말과 1962년초에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공업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청산리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개선하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개척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바로 여기에서 청산리방법을 경제지도사업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뚜렷한 방도를 찾았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청산리방법은 그 위대성과 창조성, 혁명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으며 또 나타내고있다.

청산리방법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에 널리 퍼져나갔으며 당사업에서, 생산과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이 보급되여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군중로선의 관철, 청산리방법의 일반화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빨리 확대강화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299페지)

청산리방법은 무엇보다도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따라세우며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근본적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던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부서져나가고 새로운 혁명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지도가 아래에 접근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의 자각적열성을 발동하게 되였으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상하가 합심하여 당정책을 관철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당과 대중의 련계는 비상히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국가경제기관들의 기능이 훨씬 높아졌으며 사회주의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청산리방법이 일반화됨에 따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수많은 공산주의교양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 큰 변혁이 이룩되고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수령의 사상과 의지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혁명적대가정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을 더욱 발전시킨데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청산리방법이 깊이 들어감에 따라 당의 혁명적령도의 위력, 정치사업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은 자기가 무엇때문에 일하며 무슨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더 잘 알고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전체 근로자들이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면서 온갖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비상한 로력적앙양을 일으켰으며 그들속에서 집단적혁신과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사회의 혁명적개조를 위한 강유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며 맑스-레닌주의적령도방법의 귀감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청산리방법은 무엇보다도 당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게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성과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달려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철저하게 자기의 본성에 맞는 사업방법대로 일하게 함으로써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우선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게 함으로써 당을 강화하게 한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때 간부들과 당원들을 더 잘 료해할수 있고 더 잘 교양할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진심으로 당을 사랑하고 당을 받들게 함으로써 당을 더욱더 강화하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당을 강화하자면 당이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이 항상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접근하며 그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는다면 그 당은 백전백승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5페지)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있으며 이것을 강화하여야만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4~385페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당을 튼튼히 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이다.

혁명적사업방법이 확립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의 의도를 대중속에 거침없이 침투시킬수 없으며 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제때에 반영할수도 없다. 이때에는 당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우고 내놓는다 하여도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수 없으며 옳게 실현할수 없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맑스-레닌주의당이 군중로선에 확고히 의거하여 사업할 때에는 당과 대중을 유리시키거나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저애하게 하는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뿌리채 부서져나가며 당과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 한몸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

우리의 현실은 청산리방법이 깊이 들어갈수록 지도일군은 대중의 요구와 아래의 구체적실정을 잘 료해하고 모든 사업을 당의 의도와 군중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게 되며 대중은 당정책을 자신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접수하고 당주위에 굳게 뭉쳐 그것을 철저히 관철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당정책의 집행자인 국가기관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지도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국가기관들의 중요한 임무는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잘하고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나가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이 이러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국가기관들의 근본성격에 맞는 사업방법, 다시말하여 군중로선에 립각한 사업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은 국가기관들이 군중로선에 의거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할수 있게 하며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의 국가기관들은 바로 청산리방법에 의거하여 활동하고있음으로 하여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대중을 혁명승리의 길로 확고히 이끌어나가고있다.

특히 청산리방법은 국가경제기관들이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쌓을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경제건설을 잘하자면 그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요구들을 실현하고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우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경제를 당이 요구하는 길로 발전시켜나가게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중앙집권적지도를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중앙집권적지도는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도는 민주주의와 결합될 때에만 커다란 힘을 낳는다.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고 상하가 합심하게 될 때 훌륭히 이루어지게 된다. 웃기관과 아래기관,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간에 서로 돕는 공산주의적관계가 맺어질 때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의 참된 결합이 실현된다.

청산리방법은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게 한다. 중앙이 지방을 도와주고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는 청산리방법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당과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움직이게 하며 생산자대중이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의 위력은 단결과 협력의 위력이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의 위력이며 당의 지도가 아래에 깊이 들어가는데서 나오는 위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3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이 혁명적인것으로 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것으로 되게 하려면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는 근로자들을 생산자인 동시에 기업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하며 그들이 생산자로서 열성을 내게 할뿐아니라 기업관리자로서 경리운영문제들을 주인답게 해결하여나가게 한다. 바로 이렇게 군중로선에 기초한 청산리방법과 그를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게 한다는데 그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지도를 따라세우며 생산력발전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산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한다.

사회주의경제—복잡한 현대적공업과 협동화된 대규모 농촌경리는 일군들의 높은 지도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이 요구를 더욱 날카롭게 제기한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당정책을 더 잘 알고 더 많은 경제관리지식을 소유한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현실에 발붙이고 그에 맞는 산 지도를 보장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장 훌륭히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길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9페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야 그들을 철저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또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전사회를 혁명화하는것은 장기성을 요하는 매우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바로 이 과업을 청산리방법이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선 청산리방법이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사람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적극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드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 사업방법이기 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혁명화하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자신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시킬것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다. 그렇기때문에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은 곧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이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일군들이 군중속에, 현실속에 들어가게 하고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과 결부되게 함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를 촉진한다.

군중은 언제나 당과 수령께 충실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운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갈 때 그들은 군중에게서 혁명성을 배워 혁명화를 촉진할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고 혁명화하는 《용광로》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 깊이 체득하게 되고 이미 습득한 혁명적리론을 의식속에 확고히 뿌리박게 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사상사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적실천을 통한 단련을 결합시켜 근

로자들의 혁명화를 촉진한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전체 군중이 달라붙게 하는 혁명화의 대중적방법이다.

수백만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사업은 오직 광범한 대중이 이에 적극 참가하고 또 그들자신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개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당일군이나 행정경제일군이나 할것없이 모두 자신의 사상개조에 힘쓰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하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면서 모든 사람을 그 특성과 생활조건에 맞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교양하게 된다. 여기에 혁명화의 힘있는 방법으로서의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청산리방법이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훌륭히 점령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로 청산리방법은 사회의 경제생활과 정신생활 령역을 모두 급속히 변혁시키면서 우리의 전진운동을 촉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맑스-레닌주의당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방법이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청산리방법의 창조와 확립은 당건설에 관한 특히는 령도방법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이며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 3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급속히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청산리방법을 더욱 심도있게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멀지않아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총동원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당 제4차대회가 내놓은 모든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웅대한 7개년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승리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군들이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미 생활을 통하여 그 위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청산리방법을 틀어쥐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나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의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께서 몸소 보여주고계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방법을 따라 배우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을 체현한것이며 그이께서 40여년간 우리 인민을 이끄시고 혁명을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령도방법을 집대성한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소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청산리방법의 진수를 체득할수 있으며 실생활에 구현할수 있다.

이와 함께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와 혁명적본질을 깊이 체득하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방법, 그이의 위대

한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우리들에게 지도사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며, 실정을 료해분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지도사업은 어떻게 결속총화하며, 정치사업은 어떻게 하고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 모든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일군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지도사업의 근본원칙이며 행동규범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실제사업에서 구현해나갈 때 우리는 온갖 낡은 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히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받들고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부문의 모범단위, 기준 공장과 기업소들을 하나씩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단위를 끌어올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이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군중에 의거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과업도 해결할수 있다는 공산주의자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체현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우만 쳐다보면서 조건이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거나 난관앞에서 주저앉고 그와의 투쟁을 회피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의 사고방식, 사업태도와는 인연이 없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혁명적사고방식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투쟁을 통하여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오직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혁명적으로 투쟁하여 모든 조건을 자체로 마련하고 불리한것을 유리한것으로 전변시키며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기풍을 높이 발양할 때 우리는 청산리방법을 실속있게 관철할수 있으며 그 위력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수준을 소유할것을 요구한다. 정치실무수준이 높지 못하고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도 잘 할수 없고 아래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줄수도 없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기술, 문화 혁명이 촉진되고있는 현조건에서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파악할수 없고 문제를 높은 정치적안목에서 보고 처리할수도 없으며 기술경제적문제들을 옳게 해결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로작들,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지식과 기술지식을 배워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힘써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회주의경제를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해결하여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긴장하며 투쟁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당과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용감히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 군당위원회사업개선에서의 강령적지침

김 철 원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강서군당전원회의에서 새 환경에 맞게 군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하고 더욱 반전시킬데 대하여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강서군당전원회의에서 하신 연설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의 군당위원회의 위치와 임무,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로작이며 불후의 력사적문헌이다.

이 천재적로작은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선 우리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기 시작하던 력사적시기에 나왔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58년에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완수되였다. 또한 생산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농촌에서 협동농장들이 리단위로 통합되면서 농장의 살림살이는 더욱 늘어나고 복잡하게 되였다. 대중의 정치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도 높아졌다.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그에 맞는 새로운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은 아직도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개인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낡은 사업체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일본새를 버리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은 짧은 시일안에 사회주의적협동경리로 개조되였으며 그 규모가 급격히 커진 농촌경리를 주로 지도대상으로 하고있던 군당위원회와 군내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며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거점인 군의 사업을 개선해야 했으며 군사업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부터 고쳐야 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당조직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몸소 혁명적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확고히 세우는 실천적모범을 보이시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현지지도기간에 하신 연설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는 군당조직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모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고치는데서 실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이의 이 천재적로작은 그 심오하고도 풍부한 사상적내용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군당조직의

사업에서, 나아가서는 모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활동에서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새 환경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군당위원회의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까지는 군당이 자기 아래에 또 무슨 지도기관이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사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지도기관은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까지며 군당위원회밑에는 직접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단체들이 있습니다.… 결국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내 모든 초급당단체들을 직접 지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1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는 말단지도기관이다. 협동농장들이 리단위로 통합되기전에는 리당위원회가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와 직접 련결된 우리 당의 말단지도단위였다. 그러나 협동농장들이 리단위로 통합되여 그것이 하나의 생산단위로 된 조건에서 군당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초급당조직들과 직접 련결된 우리 당의 마지막 지도단위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군당위원회의 위치를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우리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며 군내의 전반적인 사업을 직접 지도통제하는데 모든 힘을 넣을수 있게 하시였다.

군당위원회가 우리 당조직체계에서 마지막 지도단위로 된 사정은 그 앞에 나서는 임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발전에서 나서는 이 절박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군당위원회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그 임무를 명백히 규정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산단위에 있는 리당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당원들을 늘 맑스-레닌주의와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며 당정책을 당원들속에 깊이 침투시켜 리당단체들과 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에 따라 당생활을 하며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9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군당위원회가 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내 모든 초급당조직들에 깊이 들어가 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정책,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초급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높이는것이며 당원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확고히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군당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의 다른 하나는 군내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동시에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것이다.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당의 인전대들이며 믿음직한 방조자들이다.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만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결속시켜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튼

튼히 다질수 있으며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국가, 경제 기관들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에서 기본은 그들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도록 도와주고 통제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며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도록 군당위원회가 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은 그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키잡이》원칙의 기본요구는 당위원회가 행정경제사업을 가로타거나 그 뒤꼬리를 따를것이 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검열통제하며 잘못된것은 제때에 고쳐주도록 하는것이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국가, 경제 기관들의 창발적이고 독자적인 활동과 당적지도를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필수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가장 정당한 원칙이며 당적령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군중을 당주위에 결속시키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고리는 간부사업을 잘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셨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건설과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간부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간부사업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다지는 기본사업이다. 간부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 정치사상적수준이 높아야 당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당의 핵심진지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모든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전반적으로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질수 있다. 간부사업을 잘하는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실현을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간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조직하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세워진 다음에 그 성과적 수행여부는 간부에게 크게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그 집행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간부대렬이 튼튼히 꾸려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 그러므로 간부들을 끊임없이 료해하고 교양하여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우는것은 군당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군당위원회의 위치와 임무를 명백히 규정하심으로써 그가 자기의 사명과 해야 할 일을 똑똑히 알고 사업을 확신성있게, 전면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새 환경에 맞게 군당위원회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명백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군당조직의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셨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은 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우리 당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함으로써만 당의 전투적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체계와 지도

방법을 개선완성하는것이 가지는 이렇듯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을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전투적이고 힘있는 당으로 더욱더 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선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도록 군당위원회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고칠데 대하여 가르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다 리당에 내려가서 조직하고 선전하도록 군당사업을 고쳐야하겠습니다. 전당이 중앙위원회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있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충천하여있는 오늘 군당사업을 이와 같이 고치고 군인민위원회사업체계도 고쳐 군급간부들이 모두 아래에 내려가 리사업을 직접 조직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촉진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524페지)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였으며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시종일관 견지해오시는 혁명적인 지도방법이다.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오직 당원들과 군중의 창조적열의와 지혜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당원들과 군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여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며 당정책집행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는것이다.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간부들을 끊임없이 료해하고 교양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들의 사업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군당위원회의 조직부와 선전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일군들이 아래에 직접 내려가 그곳 일군들을 도와주며 간부들, 핵심들, 당원들, 그리고 군중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셨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초급당조직들에 내려가 회의도 지도해주고 아래일군들에게 구체적인 사업분공을 줄수도 있으며 선동원들과 일상적으로 만나 그들을 가르쳐주며 그들과 함께 군중속에 들어가 독보회도 조직하고 강연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아래일군들을 불러올려 지시나 주고 통계나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한다면 당정책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수 없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도 없으며 간부들과 당원들 그리고 군중을 옳게 교양할수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군당위원회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를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96페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그이께서 당사업의 본질과 우리 당의 숭고한 사명, 당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 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당사업은 결국 사람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여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나서게 하는 산사람들과의 창조적사업이다. 더우기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

들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전투적선봉대인만큼 어디까지나 군중을 설복하고 교양하여 그들이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하는것이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당사업의 이러한 본질과 우리 당의 사명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또한 긴장한 정세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더욱더 높이며 그들의 창조적적극성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오직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울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군중에게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침투시키며 당면한 혁명과업의 본질과 그 수행방도를 잘 알려주는것이다. 그것은 당원들과 군중이 나아갈 방향과 투쟁목표를 명확히 알수 있게 하며 그들속에서 창조적열의와 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군중의 창조적열성에 의거하여 그들과 함께 혁명과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토론하며 이에 근거하여 분공을 조직하고 혁명과업수행에 모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실로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당정책을 진심으로 받들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당위원회가 지닌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한 방향에 따라 모든 사업이 조직되고 집행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경제사업뿐만아니라 군내의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군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27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당위원회가 모든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옳게 동원하도록 하는것으로서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에 부합되는 고유한 사업방법이며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원칙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은 특히 변천된 새 환경과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그 부문구조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기술발전수준이 현저히 높아진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일부 일군들의 총명만으로는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뿐만아니라 사상,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수많이 나서고있으며 이것도 역시 몇몇 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써는 도저히 원만하게 해결할수 없다.

오직 대중의 창발적의견과 열성에 의거하여 지도기관 전체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집체적지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때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군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집체적지도기관인 당위원회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핵심들로 구

려는것이다. 그래야 군당위원회가 군내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 등 모든 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다.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군중의 지혜를 발동시키며 그들의 건설적의견을 제때에 종합하는것이다. 그래야 당정책관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더욱 높일수 있다.

참으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위들을 다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능숙하게 지도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하고도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당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당위원회가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군당위원회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고치는데서 선결조건은 간부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고 그를 위한 정확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간부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을 지도하려면 군중이 모르는것을 알려주며 군중에게 늘 옳은 길을 가리켜줄수 있도록 당정책을 충분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당정책에 따라 그것을 옳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498페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은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가일층 발전된 맑스-레닌주의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정책에는 공업, 농업, 상업, 교통운수, 교육, 문화, 반혁명과의 투쟁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방향이 명시되여있으며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해명되여있을뿐만아니라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간부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넓은 정치적시야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담하게 해나갈수 있으며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간부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당정책을 폭넓게 체득시키는것이며 그 본질을 똑똑히 알려주는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어느 분야, 어떤 정황에서나 능동적으로 활동할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군당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군당지도원들을 비롯한 아래일군들과 자주 만나 새로 나온 당정책을 알려주며 사업방법을 친절히 가르쳐주는 등 그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간부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심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친재적로작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는 우리 혁명

발전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로작은 당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며 주체를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한 력사적문헌이다.

특히 이 로작은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선 새 환경에 맞게 군당조직들의 사업을 빨리 고치고 그 전투적기능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이 문헌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방도를 천재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발전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로작은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의 맑스-레닌주의당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 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그에 명철한 해명을 줌으로써 당 및 국가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실천은 김일성동지의 이 천재적로작에 담긴 심오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힘있게 증시해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그이의 위대한 청산리지도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에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지도가 아래에 더욱 접근되고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며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이 전당, 전국가에 확고히 서게 되였다.

새 환경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이 고쳐진 결과 당사업이 산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이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당의 령도밑에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이 새 환경에 맞게 전면적으로 고쳐짐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제고되였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강화된 결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사회주의경리운영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류례없이 빠른 발전이 이룩되였다.

이 모든것은 그이의 력사적로작에 담긴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의 무한한 생활력에 대한 빛나는 실증으로 된다.

오늘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앞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켜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더 빨리 앞당기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계속 깊이 연구하여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체계와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해야 할것이다.

#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

### 방 문 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유일하게 정당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가장 정확히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영웅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우리 민족과 조선혁명의 운명을 일대 위기에서 구출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정권이 있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이 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그 구현인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자랑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과 영웅적항일무장투쟁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며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여름 카륜에서 소집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당면목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대상인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이다.… 그러므로 일제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는가?! 외국의 원조로써는 절대로 독립을 찾을수 없다.…**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서 싸워이기는것이다.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로선이였다.

혁명로선을 세우는데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각이한 력사적조건에서 그 나라 인민에 의하여 진행된다.

혁명발전의 이 합법칙성은 혁명로선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사로잡히면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혁명로선을 세울수 없게 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로선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끌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그이께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과 적아간의 력량관계, 우리 나라 혁명정세를 가장 천재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기존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이의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인민과 일제와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이에 따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에 폭력으로 항거하여나섰다.

공산주의대렬에 잠입한 종파분자들은 아무런 자주적립장도 없이 사대의존사상에 물젖어 기존공식을 교조적으로 대함으로써 혁명의 전진을 심히 저애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종합분석하심으로써 외부적요인은 혁명승리를 촉진시킬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것이며 결정적힘은 오직 주체적력량이라는 신조를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이로부터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사람이 대신하거나 책임질수 없으며 따라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조선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마침내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종주국의 로동계급이나 다른 나라의 힘에 의거하여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할데 대한 유일하게 정당한 주체적혁명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또한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무장투쟁으로써만 무장한 반혁명을 타승할수 있다는 가장 철저한 반제혁명로선이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민족해방투쟁에서는 여러가지 투쟁형태들이 있을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며 최고형태의 투쟁은 무장투쟁이다.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착취계급의 반동적독재기구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결국 승리할수 없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을 타승해야 한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반혁명적폭력이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통치수단으로 되여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착취계급은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인민을 억압착취하며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 이자들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고 제놈들의 패망이 가까와오면 올수록 반혁명적폭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최후발악을 다한다.

인류력사는 아직 어떤 통치계급도 자

기의 지배권을 인민에게 스스로 양보한 실례를 모른다. 때문에 식민지나라의 로동계급은 오직 혁명적폭력으로써만 식민지예속으로부터 해방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적들의 야만적인 백색테로에 대처하여 우리는 정의로운 무장투쟁으로 적들을 박멸하여야 하며, 놈들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우리는 정의의 전쟁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처음부터 조선인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식민지폭압통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군사파쑈통치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더욱 극도에 달하였다. 놈들은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우리 나라를 군대와 헌병, 경찰과 밀정들로 뒤덮인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시켰으며 각종 악법과 총검의 힘으로 조선인민의 모든 합법적활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하였다.

조선인민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청원이나 평화적시위, 파업이나 소작쟁의와 같은 투쟁만으로써는 결코 민족적해방을 달성할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천명하시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앙양된 폭력적진출을 조직화하며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였던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한 실로 정확한 반제혁명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또한 상비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되는 투쟁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에 대한 전반적지도를 실현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승리를 강력히 추진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정당한 혁명로선이였다.

혁명투쟁에서 그 형태와 방법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혁명승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추이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로동자, 농민의 폭동적진출을 조직화하여 무장투쟁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되는 형태로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주로 유격전쟁의 형식으로 전개할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유격전쟁은 혁명전쟁의 한 형식으로서 그것은 적아간의 력량관계의 구체적타산에서 출발한다. 유격전쟁은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기술적측면에서 비록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전투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적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타격소멸할수 있다.

일제는 현대적무기와 기술 그리고 현대적기동수단으로 장비한 륙해공군을 가지고있었으며 그 침략군대는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의 《경험》을 가지고있었으며 그 어느 나라 침략군대보다도 악독하고 흉포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창건초기에 무장장비가 매우 미약하였다. 병력의 수와 무장장비 그리고 후방보장문제들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진 항일유격대는 적과 장기적으로 대치하여 련결된 전선을 형성하고 필요한 물질적수단들과 타격력을 부단히 증대시키면서 적을 소멸하는것과 같은 정규전쟁으로써는 일제침략군을 성과적으로 타격소멸할수 없었다. 만일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타산함이 없이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군사모험주의에 빠져 정규전쟁의 형식으로 일제침략군과 맞선다면 혁명에 큰 손실을 끼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유격전쟁의 형식으로써만 적은 력량으로 일제침략군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고 타격소멸할수 있었

다. 특히 한두번이나 한두달의 전투로 끝장을 낼것도 아닌 항일무장투쟁에서 유격전의 형식을 취하는것은 항일유격대를 부단히 확대하고 그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일제침략군을 타승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이여의 모든 형태의 반일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항일유격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이어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3페지)

항일무장투쟁은 이여의 모든 형태의 반일투쟁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혁명투쟁으로 하여금 오직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조직전개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확고한 승리를 담보하게 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키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몸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실제투쟁에서 세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혁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할것이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닥치든지간에 이들을 골간으로 하여 그 주위에 혁명군중을 튼튼히 집결시킨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도 있으며 제기된 복잡한 혁명과업을 정확하게 수행할수도 있을것이다.…**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 즉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폭력투쟁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키우는것은 초기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해방을 위한 당면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긴절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특히 혁명적인민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여 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로동계급은 혁명무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민족군대의 로대에 적지 않게 의거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를 창건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존로대를 가질수 없었으며 따라서 모든것을 전혀 새롭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만 하였다. 그것은 조선의 민족군대가 일제침략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해산된지 오랜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키움으로써만 상비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무장투쟁을 줄기차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혁명적골간을 키우는것은 또한 항일무장투쟁이 우리 나라 혁명에서 주되는 투쟁형태로 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당건설과 인민정권의 수립, 혁명적대중단체건설과 통일전선형성, 정규무력건설 등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능숙히 해결할 핵심들을 마련하는것으로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제기되는 선결적인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핵심적골간육성방침은 실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핵심적골간

육성방침은 그이께서 몸소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시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유격대원들이 혁명군중을 교양하여 공산주의자대렬을 늘구어나아가는 방법으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그 정당성은 항일무장투쟁의 확대강화와 그 빛나는 승리의 전과정에서 뚜렷이 증명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것은 혁명승리의 합법칙적요구였을뿐아니라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주권도, 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는 환경에서 무장투쟁을 하여야 하였던 항일유격대는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확고히 보장하여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거함으로써만 간악한 일제침략군을 성과적으로 격멸소탕할수 있었다.

대중적지반을 축성함이 없이는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또 조직된 항일유격대의 진투행동은 물론 자체의 조직된 력량을 보존하기조차 곤난하였다.

대중적지반을 꾸리는것은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관련하여 유격대의 력량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여야 하였던 조건하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것은 혁명에서 주체적력량과 후비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고 무장대오의 전투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매개 공청원들은 후비력의 준비가 없는 군대는 필연코 실패한다는것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된다. 현계단에 있어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무장투쟁을 요구하며 반일무장투쟁은 광범한 청년군중들의 직접 참가를 요구하고있다. 때문에 청년공작원들은 광범한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궐기시키여 혁명력량과 후비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혁명발전의 일반적요구와 항일무장투쟁의 특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방침이였다.

항일유격대는 혁명의 후비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자기 대오를 단련되고 세련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혁명적청년들로 부단히 보충하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강화함으로써만 무장투쟁을 끊임없이 성과적으로 진개해나갈수 있었다.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문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성과적관철을 보장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서 군중을 혁명화함으로써 무장대오의 골간을 육성하시였으며 그 주위에 혁명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시여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거지창설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능숙히 령도하시였다.

혁명적무장력이 자체의 근거지를 가지는것은 반혁명무력을 타승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혁명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이 유격전쟁의 형식으로 진행된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유격대는 군사전략상기지인 유격근거지를 가져야만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고 확대강화하며 일제놈들을 타승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었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이 전반적조선혁명의 주되는 투쟁형태로 되였던 조건에서 유격근거지는 군사활동의 거점으로서만 아니라 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 절실히 필요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 이후 혁명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완전유격구, 반유격구, 비밀적인 림시근거지 등 각종 형태의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무장투쟁이 확고한 대중적지반우에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

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치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환경속에서도 공청을 비롯한 각종 혁명적대중단체와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 생산돌격대 및 생산유격대 등의 반군사조직들을 가장 정확히 조직지도하시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시고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정력적인 투쟁으로 무장투쟁이 확고한 대중적지반에 의거하여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는 터전을 닦으시였다.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그이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전체 조선인민이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였으며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실로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전술과 군사경험을 축적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물론 우리는 지금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무의미한 충돌과 희생을 삼가하여야 하지만 실지투쟁을 통하여 단련하고 또한 전략전술도 연구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군대가 우수한 전략전술과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는것은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하는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항일무장투쟁이 유격전쟁의 형식으로 전개되였던 조건에서 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적응한 전략전술과 군사경험을 축적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력사에서 식민지나라의 인민이 종주국의 정규무력을 반대한 무장투쟁의 전략전술이나 군사경험을 알지 못하였다. 더우기 세계제패를 참망한 정예무력인 일제침략군을 타승할 유격전술은 창조하고 군사경험을 축적하는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이 어려운 문제는 오직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원쑤들의 병력과 무장장비, 적들의 움직임을 손금보듯이 통찰하시고 전투를 조직하시며 실전을 통하여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천재적인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군사경험을 축적하시였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군사경험을 쌓으시였을뿐아니라 대원들을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시키고 세련시킴으로써 그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유격전술과 군사경험을 체득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유격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하시고 항일유격대를 핵심으로 하여 반군사조직성원들과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이 능란한 유격전술과 군사경험을 소유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일단 유사시에는 인민들이 항일유격대의 전투행동을 성과적으로 방조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신출귀몰》하는 천재적유격전술의 비결과 그에 대응할 전법을 도저히 찾을수 없었던 일제침략군은 공포속에서 전률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수백수천차례의 전투들에서 매번 어김없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재적인 유격전술과 고귀한 군사경험의 절대적인 우세로써 확고히 보장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의 침략을 받고있는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반일무장력량과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방침들은 선행시기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우리 나라 혁명을 새롭고 높

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이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천명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 그리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방침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여름 친히 키우신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선혁명군의 결성은 무장대오의 핵심적골간의 육성과 정치군사적준비 그리고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의 결속을 통한 대중적지반의 축성 등 항일무장투쟁의 본격적준비를 갖춤에 있어서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의 정치 및 군사 활동을 친히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직접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놈들이 《9.18》사변을 조작한 이후 실천투쟁에서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무장대오의 성원으로 결속하고 무장을 갖추기 위하여 꾀어린 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간에 걸쳐 육성하신 조선혁명군성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성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의 진두에 서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것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인 1930년대 전반기에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인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시여 무장투쟁을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천재적인 유격전술로 일제침략군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다.

그이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천명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며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혁명적대중단체사업을 힘차게 밀고나아가심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하나의 흐름속에 결합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웃나라인민들과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반일무장력량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는 선구자적모범을 창조하시여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기간에 걸치는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해 5월에 있은 동강회의에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시고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며 새로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심으로써 무장투쟁을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일대와 나아가서 국내깊이 확대하여 적들에게 보다큰 타격을 주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설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조직형식을 가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동시에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모든 반일력량을 단합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력

사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승승장구하는 무장투쟁과 합류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어린 투쟁으로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신 이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하며 당창건준비와 혁명적대중단체지도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키심으로써 확고한 대중적지반우에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정치활동을 가장 정력적으로 조직전개하시는것과 함께 원쑤들에게 치명적인 군사, 정치적 타격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전투를 비롯한 국내진공작전과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전투, 그리고 백두산동북부에서의 대기동작전 등 수백차례의 전투들에서 가장 령활한 전술로 일제침략군을 섬멸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백전백승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위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원쑤들을 공포속에 전률케 하고 인민들에게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륙침략전쟁의 확대에 광분하면서 쏘만국경을 침범한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여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였으며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함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시였다.

당시 파쑈국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확대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의 속결과 쏘련 및 동남아세아에로의 진출을 기도하면서 그 침략적야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격멸》할 목적밑에 100만에 달하는 관동군주력과 조선주둔일본침략군사단까지 《토벌》에 내몰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시여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된 수많은 간부들을 양성하시며 한편으로는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시고 지하투쟁을 강화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전인민적봉기를 준비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시적인 비밀근거지들을 설치하시고 그에 의거하시여 민족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수많은 소부대로 편성하여 각지에 파견하시고 그들의 정치, 군사 활동을 직접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은 각지에서 일제침략군을 기습소탕하고 놈들의 군사시설과 도로, 교량을 방화파괴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깊이에까지 진출하여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무어 그를 확대강화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해설함으로써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으며 전인민적무장봉기를 준비하여나아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부대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시는 한편 군정훈련을 강화하시여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정치활동가로, 대규모적현대전에 필요한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습득한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항일무장투쟁로선의 관철을 위하여 간고한 15성상을 하루같이 가장 정력적으로 투쟁하심으로써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민이 갈망하던 민족해방의 력사적혁명위업을 달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

치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며 오늘도 래일도 우리 혁명 승리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과 방침들을 천명하시고 몸소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가장 정확한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조선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하나의 통일적인 흐름속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나라의 계급적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심으로써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패망시켰을뿐아니라 조선혁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주체적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 몸소 키우신 혁명의 핵심적 골간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전진에서만아니라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실로 믿음직한 기둥으로 되였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빛나게 실현하시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오직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그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 유일하게 정당한 진리를 실증하여주시였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력사에서 민족해방의 길에 떨쳐나선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에게 처음으로 안겨준 가장 정확한 투쟁의 지침이였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시는 위대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이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조선혁명의 튼튼한 뿌리이며 밑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이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16개국 무력간섭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위적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창조하면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영웅적투쟁 그리고 그이께서 친히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다.

# 교원혁명화와 주체적인 교육발전의 길을 명시한 력사적교시

양 형 섭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의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지나갔다.

김일성동지의 이 연설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학교교육사업앞에 나서는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에 리론실천적인 해답을 주신 위대한 문헌이며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고전적로작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이 확고하게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행정에서 교육부문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기간 교육부문일군들과 교원인테리들 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 튼튼히 서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촉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자로 육성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끝없는 배려밑에 학교교육기관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이 현대적인 실험설비들과 시설들로 굳건히 꾸려지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학교교육기관들은 당의 믿음직한 민족간부육성의 기지로서, 사상혁명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혁명과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연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계속 심오하게 연구하고 수령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모든 교육기관들이 공산주의교육원칙을 튼튼히 견지할수 있게 하며 당중앙위원회 제4기 20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학교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들이 로동계급화, 혁명화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구체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교육성일군들과 교원들이 다 당적수양, 공산주의적수양을 쌓아 당성과 계급성이 높고 인민성을 갖추고있다면 교육사업이 잘 안될리 없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

에 대하여》, 21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에 충실한 나라의 민족간부를 교양육성하는 교육일군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복무하는 교원인테리들이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 자신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원들은 우리 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교육교양하고있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로동계급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자면 교원들자신이 먼저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누구보다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도적역할을 수행하게 될 훌륭한 민족간부를 길러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는 교원인테리집단속에서 낡은 사상이 표현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낡은 사상 잔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생산활동에서 떨어져있는 인테리들속에 그것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09~21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교원인테리들은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의 오랜 교원인테리들은 대부분이 지난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부르죠아교육을 받은것으로 하여 낡은 사상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내부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또 밖으로부터 부르죠아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습해들어오는 조건에서 새로 자라난 인테리들도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을수 있다.

인테리들은 자체의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게 되는것만큼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인테리속에 부르죠아사상잔재가 남아있는 근거를 밝히시면서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로동계급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없으며 후대들을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교원인테리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빨리 발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나라의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부문 교원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낡은 사상잔재는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원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은 로동계급을 위한 교육,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을 위한 교육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교육기관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이와 같은 계급적성격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사람들을 로동계급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도록 교육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

산주의화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원리이며 기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교육의 기본원리를 훌륭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자면 무엇보다먼저 교원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해야 한다. 교원인테리들의 머리속에 있는 부르죠아사상잔재는 공산주의교육원리를 실현하는데 저해로 되며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화하는데 지장을 준다. 그것은 교원들이 낡은 사상을 가지고서는 공산주의교육원리와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맞게 후대들을 교육교양할수 없고 로동계급적선이 명백한 공산주의교육을 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공산주의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상혁명의 수단이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학교의 역할을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등교육성은 간부양성사업을 책임지고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생산성들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경제기술적으로 잘 지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성에서는 사람들을 잘 교육교양하는것이 본신임무입니다. 고등교육성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상교양기관입니다.》(우와 같은 책, 20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상혁명수행에서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기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국가정권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동시에 학교교육기관들을 통하여 자라나는 후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학교교육기관들은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상교양의 중요한 무기이며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의 하나라고 가르치시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학교교육기관들이 사상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작용한다.

사회는 새로운 세대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충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훌륭히 점령하자면 사회성원들속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학교교육기관들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모두다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 학교기관들이 젊은 세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사회에 내보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회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될것이며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지연시키게 될것이다. 학교교육기관들에서 후대들을 완전히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에 내보내야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학교교육기관들에서 이 어려운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교원인테리들이 자신을 얼마나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교원인테리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후대들을 공산주의투사로 키우며 나아가서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교원인테리들은 모든 가능성과 수단을 다 리용하여 우선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전체 교원인테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선전자, 집행자로 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수령의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아 자신을 수령의 붉은 교육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인테리들이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뿐만아니라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비판의 기치를 높이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서 로동계급의 혁명성, 조직성, 규률성을 배우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교원인테리들은 또한 언제나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총화해보며 글도 자주 쓰고 강연도 하고 꾸준히 학습하며 부단히 수양하여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 교원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민족간부를 육성하며 사회주의교육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원칙적인 방침을 밝혀주신것이다.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는 김일성동지의 교육사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며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고 우리의 과학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의 학생들과 교원들을 혁명화하는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429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학교교육기관이 조선혁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쓸모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교육기관들 특히 고등교육기관들은 조선의 혁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쓸모있는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있으며 따라서 고등교육기관들은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가들을 길러내는 믿음직한 기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가들을 길러내는것, 바로 여기에 학교교육기관들에서 주체를 세워야 할 근본적인 요구가 있는것이다.

조선의 혁명, 이것이 곧 우리 교육사업의 주체이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태여나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땅에서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며 공산주의 미래에 가서도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살아야 한다. 조선혁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현실을 잘 알고 우리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민족간부를 육

성해내야 한다.

학교교육기관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을 훌륭히 길러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현재뿐아니라 장래운명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학교교육기관들이 우리 혁명을 떠메고 나갈 젊은 세대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공산주의자로, 혁명가로 길러내야 우리 혁명이 제기하는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살려면 조선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땅과 바다를 알며 조선의 풍토와 자연부원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를 잘 알아야만 모든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해나갈수 있으며 또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과 자기 나라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우와 같은 책, 23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교육교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젊은 세대들과 간부들을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의 모든 내용들이 전적으로 우리 혁명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는것으로, 우리 혁명의 리익에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친것이다.

학교교육기관들이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젊은 세대들을 교육교양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공헌하신 위대한 업적, 그이의 높은 덕성에 대하여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의 참된 전사로 자라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수령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영예롭고 고상한 의무로 여기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교육기관들에서는 또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알며 우리 나라에 있는 자원을 잘 알고 그것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힘쓰며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민족간부로 교육교양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조선혁명에 대한 무한히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공산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교육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공산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천재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만큼 교육학도 그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교육학은 젊은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로동하기를 좋아하고 공동재산을 사랑하고 집단생활을 좋아하며 개인의 리익보다 전체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며 전체의 리익가운데 자기 개인의

물도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살아야 자기도 행복할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도록 하는것이 곧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공산주의교육학의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우리나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구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교수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 동시에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체로 해결하기 힘든 것을 배워야 하며 또 그것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뿐아니라 도리여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우와 같은 책, 23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는것은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민족간부양성사업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이 요구되며 우리의 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는 과학이 요구된다고 교시하시면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할것없이 모든 과학이 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조선혁명에 이바지하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교육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원칙에 튼튼히 서서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명한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을 리론적으로 잘 해설선전하며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의 빛나는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모든것이 거의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대주의를 버리고 과학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킨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인민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만들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교육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결코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과 경험을 덮어놓고 배격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교들과 과학기관들에서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주체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의 자연기술적특성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업과 기술의 발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선진국가들을 따라앞설수 있다.

전체 교육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교수

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민족간부양성의 질을 한층 높이고 우리 나라의 주체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또한 간부양성사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렬을 량적으로도 계속 늘여야 하지만 오늘에 와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테리들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간부들의 과학기술수준은 빨리 발전하고있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3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빨리 추진되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 특히 교육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고등교육기관들에서 교수교양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가르친것이다.

우리 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것은 과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특성과 관련되여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해방전 우리 나라 공업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것마저 전쟁으로 인하여 다 파괴되였고 민족기술간부는 거의 없었다. 우리의 공업은 전후 몇해동안에 현대적인 대규모공업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급속히 확대되는 민족공업을 능숙하게 관리운영하는 민족기술간부를 매우 짧은 시일내에 육성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대적과학기술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민족공업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조건에서 낡은 기술은 이미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게 되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절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멀지않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될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고 농촌경리를 공업화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함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야 한다.

혁명발전의 이와 같은 객관적현실은 교육기관들 특히 고등교육기관들앞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부단히 심화되는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교원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한계단 높여야 간부양성의 질을 높일수 있고 전반적민족간부의 질적수준을 제고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기술장비를 부단히 개선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교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 교원,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진지한 학습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37페지)

교원인테리들이 학습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려는 그들의 확고부동한 신념, 조선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쓸모있

는 민족간부를 훌륭히 양성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요구로 된다. 무엇보다먼저 교원인테리들이 이러한 립장과 사상적준비가 되여있어야 학습기풍을 세우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교원들속에서 학습기풍이 서야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세울수 있고 나아가서 전사회의 학습기풍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교수교양사업에서와 과학연구사업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빼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도 결국 교원들과 과학자들이 진지한 학습을 통하여 자기의 과학기술적자질을 훨씬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교원들은 우선 우리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교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교수교양에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하고 공산주의적교육원리에 기초하여 교육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교원들은 또한 자신의 전공과학부문에 더욱 정통하고 최신과학기술을 부단히 습득하며 교수교양사업의 과학리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온갖 창조적지혜와 정력을 다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교육일군들은 현실을 잘 알고 혁명실천에서 이룩된 생동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과학연구사업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간부양성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것은 학교교육기관에 현대적인 실험설비들을 갖추어주는것이다. 그러자면 국가가 이것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통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세우며 경제기관들은 학교들에 필요한 실험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학생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로 필요한 실험설비들을 적극 만들어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사업 특히 고등교육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학교교육기관내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교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간부양성사업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는 사회주의하에서 학교교육의 위치와 역할, 학교교육의 방향과 내용,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의 원칙과 방도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를 전재적으로 밝히신 고전적문헌으로서 우리 나라 교육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전체 교육부문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연설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수령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20차선원회의에서 하신 결론과 밀접히 결부하여 연구하고 그 심오한 사상을 깊이 파악함으로써 학교교육 특히 고등교육사업을 당의 정책적요구에 따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군대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뜻깊게 기념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군대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보살핌속에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지난 기간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인민군대는 준엄한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언제든지 흉악한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가렬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장성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의 자유독립과 우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영예롭게 지키고있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61페지)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충실하였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시종일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3년간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반동의 괴수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힘으로써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온세상에 떳떳이 시위하였다.

전후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의 발악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자라났다.

우리 인민군대는 장기간에 걸쳐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세련되고 유격전쟁과 현대전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많은 혁명적골간으로 꾸며진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군대가 이처럼 당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내외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면서 승리와 영광에 찬 전투적로정을 긋긋이 걸어올수 있은것은 그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자위적인 군사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정치성이 강한 혁명군대로 튼튼히 꾸며진데 있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두돐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조국보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여있으며 수령

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아갈 혁명적열의와 충성심에 불타고 있다.

*　　　*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면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군대로 육성하는것을 무력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원칙으로 삼으시고 이 문제해결에 온갖 정력을 기울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 등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지닌 숭고한 사명과 그 구성의 계급적성격에 기초하시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이 바로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무력건설에서 반드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원칙으로 된다.

자기 사명에 대한 깊은 자각과 높은 계급의식, 열렬한 조국애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자각적인 군사규률에 기초하고있으며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맺고있는 혁명군대는 기술적우세에만 매여달리는 제국주의침략군대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혁명군대는 바로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어떤 침략자와도 싸워이길수 있으며 싸우면 싸울수록 그 위력은 더욱 커지는것이다. 현대적군사기술도 그것이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과 결합되였을 때에만 참다운 힘을 낳을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실증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육성하신 조선인민군은 혁명군대의 이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장 훌륭히 갖추고 있는 혁명적무장력이다. 인민군대는 바로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새롭고 독창적이며 비할바 없이 풍부한 내용을 가진 혁명군대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과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며 모든 유격대원들을 확고한 주체의식과 열렬한 애국주의사상,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자각적규률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페루 《알 안와르》신문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이 고귀한 전통은 우리 인민군대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이루고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

명정신을 비롯한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상하일치, 군민일치, 무장투쟁의 풍부한 경험과 귀중한 업적 등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이어받았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인민군대는 이렇게 그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함으로 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질수 있었으며 비할바 없는 위력을 낳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여기에 바로 인민군대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기초가 있으며 그가 혁명군대로서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는 담보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건설도 그 활동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조직되였습니다. 당은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는 정신으로 인민군장병들을 교육교양하였습니다. 정전후에는 정전협정을 지키며 시간을 얻어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빨리 키우며 군대의 기술적장비를 개선하며 군대내에서 사회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할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인민군대의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400페지)

인민군대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오늘과 같은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꾸려질수 있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인민군건설과 인민군대의 모든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며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발휘케 하는 근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의 혁명적원칙에 확고히 서시여 혁명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정확한 군사건설방침을 세우시고 그의 성과적관철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사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시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무장한 혁명군중의 자각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돌리시였다.

특히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된 혁명대오로 키우며 그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군대안에 당위원회제도를 내오게 하신것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항일유격대와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령도하신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군대로, 로동계급의 군대로 육성할수 있게 하신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대안에 당위원회제도를 내오시고 그의 지도밑에 군대내 정치기관들과 사로청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진정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되게 하시였다.

군대내 당조직들과 사로청단체들은 전당과 전군이 학습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군대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되였다. 모든 군인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게 되였다.

인민군대가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일당백의 위력을 온세상에 당당히 시위하게 되는것은 그가 바로 이렇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군사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전체 부대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가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군인들이 당중앙과 같이 숨쉬고 당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면 인민군대는 어떤 적이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강철같은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될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민군대가 아무리 좋은 현대적무기로 장비되였다 하더라도 맥을 추지 못하는 무기력한 군대로 될것이며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완수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만듦으로써 모든 군인들이 탁월한 수령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 물과 불 속도 뚫고나아갈 드높은 전투적결의로 충만되여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본받아 상하간의 혁명적동지우애와 자각적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등 인민군대의 전통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자위의 군사사상과 군사정책으로의 튼튼한 무장은 특히 군사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우며 자위의 원칙에 튼튼히 서서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군사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와 전반적방위체계를 더욱 훌륭히 갖출수 있었으며 전투훈련에 대한 당의 지도적원칙을 관철하여 군관들의 군사적 자질과 지휘능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인민군대를 굳건한 간부군대로 꾸려놓았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보살핌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의 인민군대는 언제나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우리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족치고 남녘형제들을 해방하려는 심정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현대적군사기술에 보다 빨리 정통하고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는데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쏟아부었다.

력사의 페지들은 혁명의 탁월한 령도

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교양육성하신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위훈을 찬란히 기록하고있다. 혁명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조선인민군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놈들을 죽음의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게 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와 원쑤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는 모든 전투들에서 자기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과 맞서 무분별한 불작난을 일삼는 미제침략자들에게는 오직 시체와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으리라는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그것은 그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정당한 위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충만되여 수령의 전략전술적방침과 그이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고야마는 그 열화와 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원쑤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렸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용감무쌍하게 싸웠으며 분별없이 날치는 미제침략자들과 온갖 원쑤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 우리 인민이 피로써 전취한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치 땅과 인민의 모든 고귀한 재부들을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우리 인민군대가 지난 22년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렸고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 일당백의 강철의 무력으로 자라난것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성이 강한 혁명군대로 육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이며 그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 *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놓여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도상에 있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긴장된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미제침략자들은 요즘에 와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친듯이 날뛰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군사분계선일대에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있다. 놈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격추사건을 통해 최근에만도 여러차례의 호된 불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안 일대에서 무분별한 군사도발책동을 멈추지 않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더욱더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군사적위협으로써도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군사

적도발책동은 결국 놈들의 처지가 더욱 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줄뿐이며 이미 죽음의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진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한것이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제침략자들의 온갖 경거망동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이 단호한 징벌로써 대답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당백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앞에서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대가 그들을 위해서 마련되여있지 않다는것을 똑바로 보아야 할것이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조선에서의 놈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짐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놈들을 일격에 섬멸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정세가 긴장되고 우리 혁명이 간고할수록 전체 근로자들과 조국보위의 임무를 맡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힘은 결국 무장한 혁명군중의 자각성에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인민군 전사, 하사, 군관들에게 우리 혁명의 목적과 임무와 전도를 똑똑히 알려주고 모든 군무자들을 우리 당 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불굴의 투사로 만들어야만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군중을 각성시키고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할수 없습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406~407폐지)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군무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군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며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를 수령으로 모시고 조국보위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인민군장병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게 하며 전군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계속 힘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발현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 고매한 혁명가적품성의 생동한 모범을 따라배우게 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한 전투영웅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투쟁경험을 적극 본받고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본신임무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군인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한 의지, 높은 혁명적각성을 가지고

적과 싸울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군장병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미워할뿐아니라 자기 계급과 자기 인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열렬히 사랑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목숨바쳐 보위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이 참다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가져야만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것을 잘알고 적과 용감하게 싸울수 있다.

당원들과 군인들의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화하는 위력한 방도이다.

군대내 당위원회들의 영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당사업을 철저하게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무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건전한 조직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붉은기중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군인들을 혁명과 조직의 리익에 개인을 복종시킬줄 아는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불굴의 혁명투사로 준비시키며 군대를 규률있고 공산주의적으로 단결된 강철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인들속에서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관병일치를 보장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관병일치의 기풍을 높이 발양시켜야 모든 군인들이 항상 단결하여 곤난을 이겨낼수 있으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군관들은 언제나 전사들을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전사들은 군관들을 믿고 존경하며 모든 군무활동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일치단결하여 싸우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계승되여온 인민군대의 전통적기풍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바와 같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우와 같은 책, 433페지)

군민일치의 기풍을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유격대원들과 혁명적 인민들사이에 발현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확고히 체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일치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특히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전반적전투준비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과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빈틈없이 다지며 수령께서 부르실때에는 언제든지 동원될수 있도록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지며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원 윤 섭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싸우게 하는 중요한 사상교양으로 된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련의 천재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심오한 사상과 교양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몸바쳐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이 우월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9～55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생활력을 발양시키며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이 어버이수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몸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이와 같이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락원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끌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최근 몇해동안 신창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깊이 명심하고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왔다. 이 과정에서 군당위원회는 군내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을 일층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약간의 경험을 얻었다.

# 1

지난 시기의 경험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도 포함한 모든 교양사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자면 우선 일군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고 그것을 목적지향성있게 끌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때 신창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군당전원회의에서도 토의하고 일군들의 협의회에서도 여러번 토의하였다. 그러나 그후 군당위원회가 몇개의 리당조직들에 나가 실정을 알아보니 이 사업은 기대했던것과는 달리 잘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선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가르쳐달라—일부 일군들은 이렇게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고 구체적인 교양방도까지 가르쳐주셨는데도 일부 일군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모든 사실은 우리 지도일군들이 아직도 이 사업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이런데로부터 일부 당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중심목적을 똑똑히 세우고 교양사업을 적극 밀고나갈 대신에 우에서 제강이나 내려보내주면 그것을 해설해주는데 머무르는 형편이였다.

군내 당조직들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실에서 군당위원회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우선 군당위원회자체가 일군들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주고 구체적인 대책과 지도를 앞세울 대신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라고 거저 일반적인 강조만 하는 형식주의적사업방법에 빠져있었던것이다.

나타난 부족점을 고치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로 모든 일군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대한 그들의 인식부터 바로잡아주어야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군당위원회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시키기 위한 집중학습을 조직하고 며칠동안 계속하여 토론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하여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중심목적을 똑똑히 파악하고 교양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끌고나갈수 있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이것은 일부 일군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구체적내용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교양의 중심을 똑똑히 세우지 못하며 그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현상에 비추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중심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결코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보람찬 혁명사업을 한다는 자부심,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이와 같은 중심목적을 옳게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결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문제와 별개의것으로 될수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혁명적자부심은 결국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부심은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이며 그이께 무한히 충직하고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혁명투쟁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는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서만 우리 인민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이 제도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행복한 생활과 보람찬 투쟁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것이며 수령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뜨거운 사랑의 정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실성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최고의 표현으로 된다.

근로자들속에서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바로 이와 같은데 중심을 두고 나라살림살이 하나를 가지고 교양하여도 나라의 모든 재부와 인민생활에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배려와 고매한 덕성,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옳게 인식시키며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조선인민으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 간직할 때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그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로 될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할 때에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항상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보다 훌륭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계급적원쑤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온갖 비계급적현상을 명백히 가려볼수 있게 되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군당위원회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학습과 토론은 확실히 성과가 컸다. 집중학습을 통하여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악할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여기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끌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양의 중심을 정확히 세우고 교양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군직맹, 군사로청, 군농근맹, 군녀맹 등 근로단체일군들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집중학습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후 군당위원회는 선전선동부일군들을 비롯한 군내사상부문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옹근 나흘동안에 걸쳐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잘못된것을 다시한번 깨우쳐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무슨 문제를 틀어쥐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충분히 학습한 토대우에서 조직된 이러한 협의회에서는 모든 원인들이 보다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적극적인 시정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우선 지난 시기 일부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구체적내용들을 교양의 중심목적과 밀접히 결부시키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을 철저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소홀히 한

사실이 심각히 분석비판되였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의 구체적내용들, 례컨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하는 문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거리와 마을을 더잘 거두도록 교양하는 문제, 국가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는 문제 등을 어디까지나 교양의 중심목적에 옳게 결부시키면서 확고한 계급적립장에서 끌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응당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마찬가지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파악시켜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로 지향하여야 하며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의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남조선혁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데 돌려져야 한다는 문제들이 정확하게 토론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계급적선을 똑똑히 긋는데 기초하여 근로자들속에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주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이 강조되였다. 지난 시기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혁명적자부심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주는것은 마치 그와 전혀 딴 문제인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진지한 토론과정을 통하여 회의참가자들은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백히 가르치신바와 같이 진정한 공산주의자, 혁명가가 되려면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워진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며 수령의 크나큰 배려와 은덕이 깃들어있고 우리 인민의 피땀이 스며있는 조선혁명의 전취물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혁명적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인 동시에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으로도 되며 이 두 측면을 언제나 밀접히 결합시켜 끌고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게 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신하는 공산주의자, 열렬한 애국자를 교양육성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리당일군들과도 세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고 모든 일군들을 수령의 교시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렇듯 꾸준하고 실속있는 토론과정을 통하여 일부 일군들이 종전에 가지고있었던 그릇된 인식은 점차 극복되여갔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중심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며 이 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 애국자로 키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달라붙을수 있게 되였다.

## 2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는것이 중요하였지만 이것을 해결하였다 하여 교양사업이 곧 잘되여나간것은 아니다. 실천과정에서는 또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그 어떤 새로운 형식과 방법이 없겠는가— 일부 일군들은 이런 질문을 군당위원회에 자주 제기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사상교양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우리가 근로자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구체적인 교양내용과 결부시켜 옳게 리용한다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얼마든지 실속있게 끌고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군들이 그 어떤 새로운 형식과 방법이 요구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이것은 단순히 일부 일군들의 수준이 어린데서 온것이라고만 생각할수 없었다. 한때 군내의 개별적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계급적내용이 명백치 못한 여러가지 형식의 《운동》을 고안하여 단순히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데만 관심을 돌렸던것인데 이때에 와서 그런것은 비판시정되였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이 명백했다. 이러한 사정은 군당위원회로 하여금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교양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일군들에게 그것을 깊이 침투시키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깨닫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잘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하여서는 책을 읽게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가지는 방법,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는 방법,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는 방법도 있으며 강연회, 학습회, 담화를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군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이 여러가지 교양방법을 실천을 통하여 구현하며 그것으로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위하여 한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선전선동부일군들이 군농근맹, 군사로청 일군들과 함께 상세동리에 내려갔다.

그들은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농장원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키는데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중심을 두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리내책임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북반부와 인민의 생지옥으로 전변된 남조선》등의 제목으로 해설담화자료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런 해설담화자료를 준비시킴에 있어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관심을 돌린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농장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속에 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기 위하여 생동한 자료들을 어떻게 리용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리내책임일군들은 자기 손으로 이런 해설담화자료를 직접 만들어보고 또 농장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과정을 통하여 우선 자신들이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독자적으로 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예술소조원들을 발동하여 과거 이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을 비롯한 온갖 착취자들에게 억눌리고 뜯기우면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단막극 《잊지 못할 이야기》, 그림극 《행복할수록 과거를 잊지 말자》를 만들어 공연하게 하였다. 또한 일부 늙은이들에게는 과거 머슴살이를 하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은 이야기를 준비시켜 수령님의 은덕아래 그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과 대비하면서 착취제도의 악랄성과 부패성, 착취자들의 교활하고 간악한 본성에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해주는 모임도 조직하였다. 이러한 모임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착취받고 억압받던 과거를 잊지 말고 착취제도와 계급적원쑤들을 무한히 증오하며 계급적각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청년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된 오늘의 상세동리》라는 제목으로 웅변모임도 갖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혁명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적문화농촌건설에 앞장서나가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지도일군들은 상세동리에서의 모범창조를 통하여 단순히 일군들에게 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보여주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교양사업을 통하여 그 결과가 실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데 많은 관심을 돌렸다.

그러한 노력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해 겨울에 상세동리청년들은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대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그들은 불모의 땅으로 일러오던 통암천기슭에서 바위와 자갈을 들어내고 흙을 날라다 펴서 5정보나 되는 땅에 논을 풀었다. 그리고 물이 넘어나지 못하도록 둥뚝도 높이 쌓아올렸다.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는 기풍은 모든 농장원들속에 생활화되여 이해에 그들은 10키로메터나 되는 물길을 말끔히 가셔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진흙다짐도 단단히 해놓았으며 사방야계공사도 규모있게 해놓았다.

상세동리에서의 경험은 군내 다른 단위의 일군들에게도 많은것을 느끼게 하였다. 이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하는데 그 어떤 《독특한 형식과 방법》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누구나 다 명백히 알게 되였다. 문제는 일군들자신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짜고들어 진지하게 진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형식과 방법이라는것은 결코 고정불변할수 없으며 그것은 교양내용과 매시기의 혁명과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준비정도와 그들의 요구를 옳게 타산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하면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초보적인 경험을 놓고 볼 때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진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관철하는데로 사람들의 애국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여기에 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이 복종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진행하는것도 구경은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완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도 반드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당면한 생산과제와 밀접히 결부시키고 하나의 뚜렷한 계획밑에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여야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양사업은 하나의 뚜렷한 중심목적으로 지향하면서도 그것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진행할수 있다.

신창군 남흥리당위원회의 경험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한때 남흥리당앞에는 문성천바닥을 가셔내고 뚝을 쌓으며 땅을 정리하는 동협동농장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방대한 국토건설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당위원회는 우선 농장원들속에서 국토건설부문에 주신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침투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리당위원회는 국토건설에 돌려주신 어버이수령의 높은 은덕과 두터운 배려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는 한편 당면하게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하는데 사상사업을 집중시키고 여러가지 교양형식과 방법을 옳게 리용하여나갔다.

즉 리당위원회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여 마을을 사회주의적문화농촌으로 꾸리자》라는 제목으로 군중강연, 해설담화를 조직하고 어버이수령의 높은 은덕과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농장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려야 한다는것을 모든 농장원들이 깊이 깨닫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합창시극 《승리한 저수지우에 진군나팔 울린다》, 재담 《사회주의 우리 농촌 좋을시고》, 구연 《한그루의 배나무》 등 여러가지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해가는 사회주의적문화농촌을 보다 굳건하게 건설해나가는 정신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진행하였다. 또한 항일

탈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10여개의 제목을 선정하여 일터에서 목보, 연구발표회, 우등불모임 등을 조직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애국주의정신을 본받아 그들처럼 살며 일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렇게 교양사업의 내용을 당면한 혁명과업과 결부시켜 목적지향성있게,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진행한 결과 문성천제방공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셨고 항일혁명투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이 땅과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알뜰하게 다루며 기름지게 만드는것이 바로 수령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며 땅의 주인된 자기들의 혁명임무라는것을 깨닫고 일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키는데서 우리가 체험한 또하나의 문제는 근로자들의 준비정도와 그들의 요구에 맞게 교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항상 머리를 써야 한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내용을 통속화하여 학습시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근로자들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옳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군중의 심리와 준비정도를 알아야 하며 그들이 얼마만한 리해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거기에 알맞는 형식과 방법을 선택하고 그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것부터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군중이 알아듣고 감동되게 해야지 덮어놓고 내려먹이는식으로 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것은 물론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교양사업이 군중의 준비정도와 요구에 맞고 그들의 심리를 틀어쥐게 되자면 우선 일군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하여야 하며 늘 군중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준비정도와 요구를 충분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는 노래보급같은것이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많이 묽어운 내용을 가지고 대중앞에서 거저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수도 있지만 혁명사상을 담은 노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시였다.

경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사상을 보급하는데서도 좋고 사람들에게 집단주의와 혁명적락관주의의 정신을 키워주는데서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집단생활을 좀 싫어하던 사람도 노래에 취미를 부치면 남먼저 모임에 참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단결도 강화되고 생활의 분위기도 더욱 명랑해진다. 또 사람들은 우리 당 정책문제들을 집약화하여 만든 혁명가요를 통하여 당정책을 더잘 리해할수 있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모든 사람을 망라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것이다.

사상교양은 정상화될 때만이 큰 은을 나타낼수 있다. 어떤 사람의 의식수준이 좀 높다 하여 그에게는 교양이 더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깜빠니야식으로 하다가 중단해버리는것과 같이 해서는 안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개변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와는 달리 잘 나타나지 않는것이 특징이며 또 사람들은 오래동안 교양을 받지 않으면 변질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오랜 기간 참을성있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책임일군들,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강연, 해설담화 등에 자주 출연하는것이다.

특히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먼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혁명실천과 결부시켜 줄기차게 끌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양사업의 전망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군내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교양하는것을 중심으로 끌고나가도록 하면서 매부문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부문에서도 시기별에 따라 교양 내용과 방법을 옳게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례를 들어 농촌부문에서는 영농준비시기, 씨뿌리기 때, 모내기철은 서로 작업조건이 다른것만큼 그 교양방법과 교양내용도 다를수 있다. 영농준비시기에는 주로 내부예비를 찾아내여 농사차비를 제때에 끝내야 하는 조건에서 여기에 교양사업이 집중되여야 하며 씨뿌리기와 모내기철에는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 모두가 농장의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게 하는데 교양사업이 집중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서 군당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인군들을 일상적으로 만나 실정을 료해하고 그들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여 조장시키며 한개의 단위씩 나가 본보기를 만들고 일군들에게 하나하나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이다. 말로는 쉽고 뻔한것도 실천하자면 잘되지 않을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소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자료를 리용하는 방법, 선전실을 리용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흥미있게 조직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양 형식과 방법을 옳게 적용하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잘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잘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모든 조건과 자료들을 충분히 리용하여 교양사업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자신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며 수령의 혁명력사에 관통되고있는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따라배워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 드높은 혁명적자부심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며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영웅주의와 애국심을 발휘한 애국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의 긍정적모범을 본받고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사람들을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공동생활과 사회정치생활을 사랑하도록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진실로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려는 사상적각오를 높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군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이미 얻은 초보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군내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 력량으로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로동행정

서 승 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로동행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의 위치와 역할, 그 혁명적 본질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 빨리, 더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적으로 설정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의 새로운 문제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업의 하나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더우기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전면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긴장된 투쟁을 벌리고있는 오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로동행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행정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히시면서 그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며 그것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2페지)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다. 또한 로동력은 사회적생산의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이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근로대중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과학과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를 만드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 앞당기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근로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사회적로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리용하는가, 로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에 달려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기아와 채찍의 규률에 의하여 강요되는 자본주의적기업관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생산수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에 의하여 관리운영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로동정량을 옳게 설정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로동규률을 확립하는 등과 같은 제반 사업을 잘함으로써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할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사업을 비롯하여 기술 및 설비 관리, 물자와 재정 관리 등을 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기계를 움직이고 설비를 다루며 생산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들의 로동을 관리하는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오직 로동행정사업을 부단히 개선할 때만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적요구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은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람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게 한다. 그것은 또한 나라의 모든 로력부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사회적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합리화하고 로력배치에서 정확한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촉진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지식 수준을 높이고 인민경제부문간, 부문내부간 정확한 로력균형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축적과 소비의 원천을 이루는 국민소득의 체계적인 장성을 보장한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지 않고는 사회주의적생산의 확대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물적 및 재정적 자원을 보장할수 없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도 높일수 없다.

이와 같이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의 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것을 부단히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과 경제발전의 규모 및 속도와의 호상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행정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더욱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남아돌아가는 로력이 있을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공장들이 끊임없이 일떠서며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계속 창설되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늘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여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입니다.》(우와 같은 책, 49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며 경제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는 조건에서 로력의 긴장성을 풀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 고유한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중단되거나 사회적로동이 막대하게 랑비되는것과 같은 현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며 축적의 우선적장성과 그 합리적리용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하에서는 새로운 부문이 끊임없이 창설되며 이에 따라 로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새롭게 제기된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합법칙적현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조건에서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필연적이며, 로력의 합리적리용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보장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과정은 무엇보다먼저 로동행정사업을 부단히 개선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있는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여야만 사회주의제도가 열어놓은 생산확대의 거대한 가능성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긴장된 로력사정을 풀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기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의 혁명적본질로부터 출발하시여 로동행정사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인간개조의 령역에서 노는 역할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물건들을 생산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모두 로동계급화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놀고먹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모두가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여야만 전체 인민이 잘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계급화될수 있습니다.》**

로동의 역할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로동행정사업이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낡은 사상잔재를 낳는 사회경제적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기초를 쌓은 다음에도 로동의 차이가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뒤떨어지는것만큼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착취사회의 유물인 낡은 사상 잔재 특히 로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점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적로동과정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개변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는 원천인 동시에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 사상의식과 도덕풍모를 키우며 공고발전시키는 기본분야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실천적인 로동과정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만 보다 큰 성과를 나타낼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부단히 개변해나가며 로동과정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육성되게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

한 자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은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쌓을수 있게 할뿐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와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대중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투쟁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그들을 로동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공산주의건설자로 교양육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혁명정세의 요구로부터 방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과업이 제기된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나라의 공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우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집약적농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에서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기계화의 완성은 오랜 시일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농촌에서 공업에 끌어들일수 있는 로력원천이 많지 못하다.

더우기 우리는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는만큼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앞에 제기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한공수의 로력예비라도 더 얻어내며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임으로써만 이 방대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로동행정문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해결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혁명적본질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로력이나 채워주고 작업정량을 정하며 로임을 주는것과 같은 기술실무적인 사업으로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의 본질에 대한 창조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해명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이 사람과의 사업,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으로 되는것은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로동행정사업분야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해결하는것이 구경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는가, 다시말하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졌는가 못가졌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사상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의 성격, 생산력발전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에 대한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에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에서 열성을 낼수 없으며 더구나 로동에 대한 자각성과 창발성이란 있을수 없다. 이로부터 자본가들은 돈에다 로동자들을 얽매여놓고 오직 돈과 채찍으로써 로동자들을 부려먹으며 저들의 공장을 관리운영하는수밖에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인민대중이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다. 그들은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의 소유자도 아니며 압박과 착취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로동의 성격이 변화된다. 또한 로동의 결과도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며 생산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자각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전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자기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 빨리 축성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의 목적은 바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며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을 전사회적으로 랑비없이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 창조적사상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옳은 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임을 올리거나 물질적자극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로동행정사업을 풀려고 할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이에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떠나 그 어떤 다른 방도가 있을수 없다. 우리가 공장과 기업소를 잘 관리운영하며 탄광과 광산에서 더 많은 석탄과 광석을 캐자고 하여도 무엇보다먼저 그 주인인 사람들부터 움직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

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발휘될수 있다. 또한 대중의 이와 같은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는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참다운 공산주의적태도를 기를수 없다.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을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는 방법으로 풀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 가장 철저히 구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원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업방법이다. 군중이 각성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을 때 거기에서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가 발휘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혁과 비약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비결도 바로 정치사업을 잘한데 있다. 이것은 정치사업이야말로 대중을 위대한 창조와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옳은 공산주의적태도를 기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을 옳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이 로동과정에 지출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에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의식도 공산주의적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옳게 관철하여야만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생산자들의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의 제고를 자극하여 생산력발전을 추동할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줌으로써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가 생산실천에서 참다운 위력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오직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때만이 사회주의로동행정의 본질적요구를 관철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과업을 다같이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지 않고 경제기술적인 실무에 매달려 물질적자극일면만을 주장하면서 순전히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여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본질적요구를 관철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잘할수 없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서 정치도덕적자극만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홀시하게 되면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 난관을 조성하게 된다.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이에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적절히

매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서 로동행정사업을 혁명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가장 옳은 길이며 이 분야에서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과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고수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로동행정의 본질과 근본원칙들에 대한 창조적사상은 실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촉진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로동행정에 관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올해에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으며 도처에서 많은 로력을 요구하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가 못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이미 이 분야에 제시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바로 적용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사업질서를 세워 사람들이 모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며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기술혁명을 다그쳐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동의 차이를 없애나가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잘 보장하는것, 이것이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로동행정에 관한 그이의 창조적사상에 기초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다.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나라의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당면하게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로력의 절대적장성에 의하여 생산과제를 수행하려는 그릇된 사상관점을 철저히 없애고 있는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있는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새로운 로력원천이 많지 못한 조건에서 로력문제를 풀고 적은 로력으로 더많은 생산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방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자체의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동원리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로동정책을 철저히 해설침투시켜 그들모두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보다 긴장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들의 작업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로력을 가지고도 작업조건을 충분

한 자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은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쌓을수 있게 할뿐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와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대중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투쟁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그들을 로동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공산주의건설자로 교양육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혁명정세의 요구로부터 방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과업이 제기된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나라의 공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우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집약적농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에서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기계화의 완성은 오랜 시일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농촌에서 공업에 끌어들일수 있는 로력원천이 많지 못하다.

더우기 우리는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는만큼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앞에 제기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한공수의 로력예비라도 더 얻어내며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임으로써만 이 방대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로동행정문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해결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혁명적본질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로력이나 채워주고 작업정량을 정하며 로임을 주는것과 같은 기술실무적인 사업으로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의 본질에 대한 창조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해명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이 사람과의 사업,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으로 되는것은 로력랑비를 없애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로동행정사업분야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해결하는것이 구경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는가, 다시말하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졌는가 못가졌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사상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의 성격, 생산력발전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에 대한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에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에서 열성을 낼수 없으며 더구나 로동에 대한 자각성과 창발성이란 있을수 없다. 이로부터 자본가들은 돈에다 로동자들을 얽매여놓고 오직 돈과 채찍으로써 로동자들을 부려먹으며 저들의 공장을 관리운영하는수밖에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인민대중이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다. 그들은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의 소유자도 아니며 압박과 착취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로동의 성격이 변화된다. 또한 로동의 결과도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며 생산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자각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전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자기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 빨리 축성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의 목적은 바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며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을 전사회적으로 랑비없이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 창조적사상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옳은 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임을 올리거나 물질적자극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로동행정사업을 풀려고 할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이에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떠나 그 어떤 다른 방도가 있을수 없다. 우리가 공장과 기업소를 잘 관리운영하며 탄광과 광산에서 더 많은 석탄과 광석을 캐자고 하여도 무엇보다먼저 그 주인인 사람들부터 움직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

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없으며 로력의 랑비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재와 설비, 부속품 등을 제때에 대주며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 등 작업에 지장이 없게 함으로써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당의 모든 정책적요구들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이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우월한 체계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인 로동행정사업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갈수 없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우가 아래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업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때만이 로동계획화와 로력조직, 기술혁신과 자재보장,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정확한 관철 등 로동행정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대중과 진지하게 의논하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동원하여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오늘 로동행정부문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매개 초소를 담당한 지도일군들의 지휘능력과 책임성여하에 달려있다.

로동행정사업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책임진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만일 우리 일군들이 로동행정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경제관리를 잘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킬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력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로력도 짜주며 로동정량도 정확히 제정해주는 등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모범기준공장, 기업소들을 꾸려주며 그 모범을 모든 단위들에 일반화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기본열쇠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동정책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여 7개년계획의 모든 과업들을 넘쳐수행함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빛나는 승리로 맞이하며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여야 한다

전 기 홍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남반부자체에서 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반부에서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남반부인민들자신의 일인것만큼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남반부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일떠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인민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침략자들의 직접적인 압박과 착취를 받고있다. 따라서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는 혁명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또한 남조선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있으며 미제식민지통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것도 남조선인민들자신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일떠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

가장 흉악하고 간악한 미제를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는 남조선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일떠세워야 한다. 인민대중이 의식화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될수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고 혁명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을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진정한 애국주의, 이것은 바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기타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79~38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밝히시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진정한 애국주의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애국주의로서 거기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로동계급은 자기자신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

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삼는다. 로동계급은 이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국과 민족을 떠날수 없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제나라, 제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들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의 리익은 민족의 리익을 대표한다. 로동계급이 조국땅우에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진정한 인민의 조국을 건설할 때 그것은 자신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을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할뿐만아니라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것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이 자기들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것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인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가장 철저하고 진정한 애국주의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람들을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며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단합되게 하는 강력하고도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진정한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야만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일떠설수 있으며 모든것을 다바쳐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아갈수 있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반동적사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7페지)

《…인민들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애국, 애족의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8페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반동적사상공세를 강화하고있다.

교활한 신식민주의수법으로 남조선을 지배하고있는 미제는 남조선이 마치도 《독립국》이며 거기에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가 존재하는듯이 떠벌이고있으며 제놈들을 《원조자》로 가장하면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 외세의존사상, 《반공》사상을 퍼뜨리고있다.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철두철미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으면서 《애국주의》니, 《민족자주》니 하는 간판을 들고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하며 기만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나라와 민족을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송두리채 팔아먹으면서도 남조선인민들에게 리순신과 같은 충신이 되라고 파렴치하게 웨치고있다.

원쑤들의 악랄한 반동적사상공세는 미제의 침략정책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예속적 및 매국적 본질을 가리우고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기 위한것이다.

놈들이 입버릇처럼 떠벌이는 이른바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제침략자들을 구세주같이 여기고 매국적이며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괴뢰정권에 《충성》을 다하며 착취자들의 특권적리익을 위해 순한 양과 같이 복무할것을 강요하는 기만적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력대괴뢰통치배들은 모두 《애국》의 간판밑에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여 노예와 같이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애국주의》니, 《민족자주》니 하는

반동적구호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고 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을 촉진하며 그들의 혁명적의식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진정한 애국주의사상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이 로동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사정, 다시말해서 남조선혁명의 인민민주주의적성격과 관련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다.

남조선에서 이 혁명을 수행하는 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이다. 또한 민족자본가들도 반제반봉건투쟁에 참가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233페지)

오늘 남조선혁명은 자본가계급이 령도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과는 달리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전체 인민이 참가하여 반제반봉건적과업을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매판자본가들은 지주계급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노예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매국배족의 무리로 되여있으며 혁명의 대상으로 되여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압박과 착취에 시달리는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죠아, 민족자본가들 중에서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될수 있는것은 오직 로동계급뿐이다.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를 받는 로동계급만이 농민을 비롯한 모든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리익, 전체 민족의 리익을 대표하고 고수할수 있으며 각계각층 남조선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가장 용감하게, 가장 철저하게 싸울수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괴뢰통치를 짓부시는 영웅적투쟁에로 전체 혁명력량을 이끌어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농민들, 청년학생들, 지식인들은 훌륭한 혁명성을 지니고있지만 로동계급의 령도, 그것을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가 없이는 자기의 혁명적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없으며 끝까지 수행할수 없다. 애국적민족자본가들도 로동계급을 령도계급으로 하는 혁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만 민족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압박과 략탈로부터 벗어나 자기들의 살길을 찾을수 있으며 민족해방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은 이와 같이 가장 선진적인 로동계급을 령도계급으로 하고 맑스-레닌주의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가야만 한다. 남조선혁명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하에서만 전체 혁명적, 애국적 인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파쑈테로통치를 끝장낼수 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애국적인민을 해방하여 그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울수 있다. 이 길만이 진실로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완전해방을 이룩하는 길이다.

오늘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피압박인민들은 반미구국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마다에 진정한 애국주의정신이 불타올라야 한다.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 로동자, 농민들, 모든 겨레들이 겪고있는 기아와 빈궁, 압제와 모욕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피가 끓어야 하며 하루속히 원쑤들을 쓸어버리고 짓밟힌 조국땅과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을 해방하며 남조선에서도 인민이 주인이 되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지킬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세

우리는 애국적정열이 타번져야 한다.

이것은 곧 남조선인민들을 진정하고 철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전국적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은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혁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그때부터 장차 조선에서 온갖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것을 조선혁명의 종국적목적으로 삼으시였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있다.

남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대에 제기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계승이며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승리적으로 완수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의 계속이다.

남조선혁명은 전체 조선혁명의 한부분으로서 앞으로 북반부에서와 같이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를 수립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남반부인민들도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여야 한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는 4천만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필연적인것이다.

조선혁명의 이와 같은 전망으로 보아도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조국산천에 대한 불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진정한 인민의 조국,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하시려는 강철같은 지향으로 15성상 원쑤 일제를 무찌르는 투쟁에 모든것을 다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신 열렬한 애국주의, 선조들의 백골이 묻힌 조국강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흙 한줌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곧 근로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들을 위해 피흘려 쟁취하려는 미래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뜨거운 애국주의정신으로 전체 유격대원들과 혁명적 인민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곳, 어디서나 끓인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게 하며 동서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 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 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그것을 일제놈들에게 죄다 빼앗겼다.…

…원쑤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삼천리조국강산을 다시 찾아야 하며 2천만 동포를 피바다속에서 건져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바로 그이처럼 조국산천과 압박받는 동포형제자매들을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리익,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워이겼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항일유격대의 정신세계를 특징짓는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전통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남반부인민들을 교양함에 있어서도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것은 그들을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는 …지주, 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증오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의 우리 조국에 대한 강도적침략과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과 멸시,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가증스러운 재침책동을 철저히 폭로하여야 하며 놈들의 더러운 개노릇을 하는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남조선인민들이 미일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놈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불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자기들의 처지와 그 원인을 똑똑히 알게 될것이며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또한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똑똑히 알려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과 그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에 대하여 똑똑히 깨닫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사회제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접수하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8페지)

지주, 자본가 등 착취계급과 그들의 착취제도는 서로 뗄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주, 매판자본가 계급을 증오할뿐만아니라 그들이 주인노릇을 하는 착취제도를 미워할줄 알아야 한다.

남조선에서와 같이 근로인민이 나라와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있지 못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가지고있어야만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동정권과 반인민적인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 인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에게 남반부에 수립된 포악한 식민지파쑈테로통치제도, 부패몰락해가는 지주, 자본가 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철저히 발가놓는 동시에 북반부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거기에서 인민대중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남조선인민들은 어떤것이 과연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제도인가 하는것을 스스로 판단할수 있게 될것이며 그들이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려온것이 결코 그 어떤 《팔자》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남조선의 사회제도자체에 그 근원이 있다는것을 똑바로 깨닫게 될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선전의 여독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계급적처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것이며 하루빨리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도 공화국북반부에서와 같은 사회제도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에서 이러한 민족적자존심과 자신심은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민족은 망할수 있지마는 민족적긍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진 민족은 불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4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정서와 뛰여난 재능을 가진 인민이며 외래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 강의한 의지와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한 슬기로운 인민이다.

특히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였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 전통을 계승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적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높이 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락후했던 식민지농업국으로부터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의 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긍지이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렇게 긍지높은 인민이다. 이러한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은 비단 공화국북반부인민들만이 아니라 한강토에서 한조상의 피줄을 이은 전체 조선인민들이 다 같이 간직하여야 할 귀중한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여야만 숭미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외세의존사상,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하려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손때묻은 주구들의 음흉한 책동을 분쇄할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할수 있다.

어떤 인민이든지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적자주의식이 있어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불굴의 애국정신을 발휘할수 있고 민족적자주독립을 끗끗이 지켜나갈수 있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인민들에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를 똑똑히 알려주며 그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업적들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숭미사대

주의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남조선인민들이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우리 겨레를 함부로 짓밟고 모독하는 미제침략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모조리 죽쳐버리려는 드높은 애국적열정으로 충만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그들속에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배양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위업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의 전도를 락관하는 정신이 없다면 혁명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닥치게 될 곤난을 이겨낼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81페지)

사람들은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모든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영웅적으로 싸워나갈수 있다.

미제와 같은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제국주의의 괴수를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는 남조선혁명은 간고한 투쟁과 시련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싸우고있으며 원쑤들의 감옥과 교수대에서 피를 흘리고있다. 그러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흘리는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우리 인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치는 숭고하고도 성스러운 애국적투쟁인것이다.

모든 남조선인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애국적열정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어떤 곤난앞에서도 굴함없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일떠설때 남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혁명적락관주의는 낡은것은 멸망하고 새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발전의 법칙과 혁명위업의 정당성, 자기 사명의 중대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런것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간고한 투쟁과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혁명위업에 용감히 떨쳐나설수 있으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애국적지조를 꿋꿋이 지킬수 있다.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자기 수령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자기 수령을 무한히 흠모하고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인민만이 참다운 애국적열정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참다운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은 결국 그들에게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는데 돌려져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강도 일제와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시였으며 조국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동시에 남조선혁명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남반부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인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항상 심려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넓고도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지난날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던 탓으로 하여 어둠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그런 인민이 아니라 오늘은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당당한 인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시련도 곤난도 이겨내고 반드시 광명한 앞날을 앞당겨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은 날로 확대발전되여가고있다.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나가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반미구국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으며 그 전도는 의연히 간고하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도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는 없다.

* *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특히 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높아감에 따라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급속히 자라나고있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승리는 바로 그 직접적담당자인 남조선인민들이 자체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얼마나 튼튼히 꾸리는가에 달려있다.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자신의 사업으로서 대중이 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각오와 애국적 열정을 가지고 투쟁에 일떠설 때 비로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용감히 투쟁하여나감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공화국북반부인민들처럼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것이다.

근로자 제 2 호 (루계 33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1월 30일 발행 • 1970년 2월 1일

ㄱ—0320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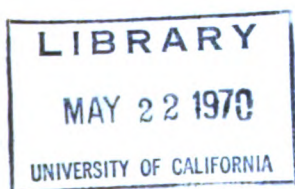
# 근로자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3호 (336)

## 차 례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지침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당 및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정치분야에서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립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으며 국제주의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을 견지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하고 국제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의 수많은 혁명의 벗들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지지를 받고있다.

자주로선은 우리의 혁명승리를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될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 파악하고 이 로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새로운 위대한 승리로 맞이하고 혁명의 전국적 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며 세계혁명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선의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5페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혀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과 인민이 자주성, 창조성 및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주체사상을 정치분야에 구현하신것이다.

자주로선은 우리 당과 인민이 정치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혀준것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위한 로선, 정책들을 우리 혁명의 현실과 그 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여나갈데 대한 원칙적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활동분야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52페지)

《우리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일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과 건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벗들과 단결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부합되고 배울만한것이라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

**디까지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하며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거나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은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것은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35~53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들에는 자주로선의 기본내용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리론과 대내외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함에 있어서 당과 인민이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선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의 결심에 따라 행동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들에 창조적으로 대하며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대할것을 요구하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압력에 굴함이 없이 자기의 신념과 존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을 고수할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우리 당은 대내외정책을 작성하며 집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시종일관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고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체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주로 하고있으며 그 누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자기의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본따는 일이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이와 같이 형제당, 형제나라들, 다른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립장,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우리 당의 근본로선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주로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제시한 자주성원칙, 창조성원칙이 우리 당과 국가의 실천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로선은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세계혁명발전의 현시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자주로선은 우선 로동계급의 당 및 국가 활동에서의 계급성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의 유기적통일을 반영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로선이다.

로동계급은 혁명적세계관에 따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자기 나라와 그리고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삼는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이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로서 그의 모든 활동은 계급성원칙, 계급적립장으로 일관되여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들은 어디까지나 계급적목적과 리상을 추구하는것이며 이 목적과 리상은 어디까지나 계급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과 국가의 활동이 단 한순간이라도, 어떤 사소한 문제에서라도 계급적립장과 계급성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해독을 끼치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의 리익, 그의 계급적사명의 실현에 복종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계급적목적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떠나서 실현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운동, 혁명운동이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있을수 없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살아나가고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혁명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무의미한것입니다.**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87폐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해방과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우선 매개 나라의 범위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여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끄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기본임무이다.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그의 당 및 국가는 자기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의 리익과 민족의 리익은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리익은 사실상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에 의하여 대표되며 수호된다. 민족의 예속과 불행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의 예속과 불행으로 되며 민족의 해방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의 해방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과 그의 당은 자기 나라가 남에게 예속되여있을 때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가장 큰 리해관계를 가지며 가장 열렬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는것이다.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민족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근로인민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적민족으로 전화된다. 사회주의민족에 있어서도 자결의 원칙은 보존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체의 민족적특성과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자체의 민족적존엄을 고수하고 민족적번영을 도모하는것은 그들의 자결의 권리이며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매개 나라에서 민족적특성과 리익에 맞게 실현되는 이외에 달리는 실현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관철해야 하는 동시에 민족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떠날수도 없다.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계급성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은 서로 뗄수 없이 통일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바로 이 합법칙적통일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계급성원칙을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실정에 알맞게 관철하여 가장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주로선을 견지할 때에만 사대주의와 같은 해독적 사상경향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민족의 리익과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민족적 권리와 존엄을 고수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며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면 결국 그 나라 민족의 혁명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할수 없을뿐아니라 지어는 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망칠수 있다. 사대주의의 위험성은 나라가 경제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을 때 더욱 크다. 이러한 위험한 경향들은 자주로선을 견지하여야만 극복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또한 자주로선에 의거함으로써만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원칙들에 담긴 계급적요구를 매개 나라의 실정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때라야만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소화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것을 나라의 구체적정세와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창발력을 발휘할수 있다.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것도 자주적립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은 정치, 경제적으로, 력사적, 지리적으로 각이한 환경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하고있으며 혁명의 주객관적정세를 제일 잘 아는것은 그 나라 당과 국가이다. 당과 국가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야만 나라와 민족의 특성과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할수 있으며 정확하고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또한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통일을 반영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에게 분공된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혁명을 잘해야 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것으로 됩니다.》**
(우와 같은 책, 487페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전세계에서 혁명의 승리,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그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유기적으로 통일되여있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이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잘하여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는것은 바로 그들이 지닌 국제주의적의무를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것으로 되며 세계혁명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분공된 국제주의적의무이며 따라서 세계혁명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성과적으로 건설되는것을 통하여 발전하는것이다.

또한 로동계급이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그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려면 민족들간의 불평등도 완전히 없애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여러 민족들의 경제적락후성을 실제적기초로 하는 민족적불평등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남아있게 되는바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전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면 모든 사회주의민족들이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잘하는것이 세계혁명에 가장 잘 이바지하는것으로 되며 사회주의민족들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이 전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길로 된다는 이것은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유기적통일을 말하여준다. 자주로선은 이 통일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 자주로선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된다고 가르치셨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자기 혁명의 주인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부대이며 그들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유기적으로 통일되여있는만큼 그들이 이 두가지 임무에 다같이 충실하려면 자주로선을 견지하고 혁명적인민들, 혁명의 벗들과의 협조와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립장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와 전체 인민이 견지하여야할 원칙적립장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결합되고 통일되여있다.

따라서 자주로선은 민족주의, 배타주의나 고립주의와는 인연이 없을뿐아니라 그와는 전적으로 대립되는것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

**당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제주의적 협조와 단결을 참말로 동지적이고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자면 모든 당과 인민들이 다 자주적인 립장에 서야 하며 그것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당과 당들 사이,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차이, 혁명과 경제문화 발전에서 앞서고 뒤떨어진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한에 있어서 평등한것이며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만 진정한 국제주의적협조단결이 있을수 있다. 실로 자주성은 평등의 전제로 되며 동지적협조와 단결의 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주로선을 견지하고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나라들,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참말로 공고히 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 독립의 공고화와 민족적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확고한 담보로 되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성과와 창조적경험들로써 형제적인민들의 혁명사업과 세계혁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의 로선, 정책의 정확성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독립의 공고화와 민족적번영도 역시 그것에 의하여 좌우된다. 더우기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 문화생활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사회생활이 당과 국가의 로선, 정책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주로선은 바로 당과 국가와 전체 인민이 정치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규정하여줌으로써 혁명과 건설, 나라의 독립의 공고화와 민족적번영을 위한 투쟁의 성과를 가장 확고하게 담보한다. 자주로선에 의거할 때라야만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모든 령역에 걸쳐 혁명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나라의 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그 성과를 확보할수 있다.

계급적사명이 민족을 떠나서 실현될수 없다는 이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고유한것이며 그 본성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과 자주로선은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성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다음으로 세계혁명발전의 현시대적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며 이로 하여 더욱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의 정세와 환경은 이전시기와는 크게 다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력량이 장성하였고 독립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이 있다. 또 이전과는 달리 오늘에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이 이미 승리하였거나 당면의 일정에 오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은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이전시기에 예견되였던바와는 달리 세계혁명은 개별적나라들이 각이한 시각에 자본주의체계로부터 떨어져나오는것을 통하여 발전하며 제국주의의침략세력과의 장기간의 대치상태에서 진행되고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리론으로부터 현실로 되였을뿐만아니라 세계적체계로 전변되였으며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리론실천적으로 창조적인 해결을 요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에는 반제민족해방혁명,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신생독립국가들의 투쟁이 일찌기 없었던 규모로 벌어지고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이 현실적문제로 되고 수많은 인민들과 민족들이 각이한 처지와 환경

에서 각이한 단계와 성격과 형태의 혁명투쟁을 벌리고있는 형편은 이전시기와는 달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들,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자주성, 창조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세계혁명발전의 중요한 현시대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로선은 이 시대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2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어둠속을 헤매던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정세는 처음부터 류달리 복잡하고 간고하였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혁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요구를 날카롭게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에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매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배우고 그 원리의 진수를 파악할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배운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당면한 우리의 혁명정세에 적합하게 적용할줄 아는 방법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의 혁명수행에서 확고한 신심을 가질수 없으며 옳은 로선을 선택할수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선혁명의 임무와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독창적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종파분자—사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시고 혁명수행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종파분자들의 반맑스주의적견해를 견결히 배격하시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는 조선혁명을 하는것이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힘있게 천명하시였으며 이 사상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을 무장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의 혁명정권문제를 비롯하여 혁명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해결에서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를 단호히 물리치시고 우리 혁명의 실정과 리익에 맞는 자주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관철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시였으며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철두철미한 원칙성과 자주적립장에 의해서만 혁명의 배신자들, 종파분자들의 좌경적, 반혁명적 책동으로 하여 반《민생단》투쟁행정에서 조성되였던 조선혁명의 일대 위기는 훌륭히 극복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자주적립장에 기초한 천재적인 령도로 하여 15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은 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력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있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은 해방후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거둔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결부되여있습니다. 자주로선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내외활동에서 로선상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과오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의 위신이 높아졌으며 공화국의 지위가 공고히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자기의 수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더욱더 많은 형제당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3페지)

자주로선의 위대한 힘은 우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권문제와 토지개혁,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가 창조적으로 해결되였다. 특히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 전혀 독창적으로 해결되였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길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천명되였다. 이 모든것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하게 견지하시는 자주로선으로 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을 견지함으로써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단 채택한 로선과 정책들을 끝까지 관철해낼수 있었다. 우리 당은 특히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경리형태의 개조를 앞세우는 협동화정책,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과 같은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내외의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과 견의에서 한걸음도 물려서지 않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수령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는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고도로 긴장된 정세밑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독창적인 로선을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대사변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면서도 인민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있으며 원쑤들의 그 어떤 위협공갈이나 전쟁소동에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고있다.

자주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자주로선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혁명기지로선, 자주적조국통일방안,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이 관철됨으로써 북반부사회주의력량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으로서 철옹성같이 꾸려지고있으며 남조선에서는 날로 더욱 세차게 벌어지는 반미구국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이 부단히 축적보존되고있으며 강화발전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의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점점 더 강력한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대외정책분야에서도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에 따라 우리 당과 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밑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경제적관계를 맺고있으며 반제반미투쟁과 다른 모든 대외활동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으며 언제나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고수하고있다.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려는 원칙적립장을 굳건히 지켜왔으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을 성심성의 지원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신념과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나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반제반미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확대발전시키며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과 혁명의 완성을 위한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이고도 과학적인 방침들을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정부가 견지하는 자주로선의 정당성은 우리의 대내외활동에서 훌륭히 검증되였다. 이로 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위신은 매우 높아졌으며 세계에서 우리의 벗들과 동정자들은 날로 더욱 늘어가고있으며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시여 세인을 놀래우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흠모와 존경의 정은 날을 따라 더욱더 두터워지고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가리켜 세계에서 제일 자주적인 나라라고 하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그것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은 오늘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서 귀중한 지침으로, 강력한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 *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한층 힘있게 추진시키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혁명발전에 더 잘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의 자주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혁명의 지도리론과 대내외정책들에는 자주로선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전당과 전체 인민이 자주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 정책들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밖에 다른 것은 모른다는 관점을 확립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것을 유일하게 정당한것으로 알며 우리 당 정책밖에는 그 어떤 다른것은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게 하여야 하며 우리 당 정책을 자로 하여 다른 모든것을 재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자주로선의 본질과 그에 기초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창조성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유일한 자로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보고 거기에 맞지 않는것은 쓸모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배격할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사상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일체 사상경향의 사소한 표현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자주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 문제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있고 자기의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혁명적자부심이 있어야만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길줄 알며 자기 당의 로선,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와 그 전통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여야만 그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줄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고무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61페지)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40여년에 걸친 우리 혁명의 자랑찬 업적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반제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선두대렬에 서나가는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를 높이 간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영도하시는 40여년간의 조선혁명의 력사는 우리 인민을 비참한 식민지노예의 처지로부터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유롭고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에로 이끌어올린 세기적변혁의 력사이다. 그것은 또한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과 국제로동계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기여로 되는 자랑찬 력사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영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정당성과 창조성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되여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보다 큰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다.

자주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자체의것을 성실히 연구하고 그것에 통달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체의것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그것에 통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행정에서 끊임없이 부닥치게 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66페지)

**《우리는 당간부들과 당원들이 창발성을 낼 수 있도록 교양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정책을 잘 알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실행할 때 독자적으로 사고하면서 사업을 발전시킬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0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는 동시에 조선의 현실과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통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당정책관철에서 창발적지혜를 내여 전개력있게 사업을 발전시킬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로선과 정책들을 더욱 원만히 관철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치에서의 자주로선은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로선에 의하여 안받침됨으로써만 그 위대한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대외관계에서 우리 당과 국가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철벽같은 자위적국방력이 있음으로 하여 가능한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독창적이고도 혁명적인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나아감으로써 정치적자주성의 물질적기초로 되는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을 따라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드높은 정치적앙양과 새로운 로력적위훈으로 맞이할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에 보다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 항일무장투쟁시기 발양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박 희 석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해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면하게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온갖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어김없이 점령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방대하고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올리며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두몫, 세몫일하여야 하며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혁명기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혁명적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자력갱생의 빛나는 전통을 따라배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자력갱생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 걸쳐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힘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주인된 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주체적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만 혁명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킬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발전에도 더 잘 기여할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혁명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해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만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면서 혁명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이러한 근

본원칙을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그에 의거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정예》를 자랑하던 일제침략군을 상대로 하여 주권도, 후방도 없고 그 어떤 외부적지원도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세계혁명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으로 전개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이 위대한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무장장비를 비롯한 식량, 피복 등 무장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첫시기부터 그의 간고성과 장기성을 예견하시고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없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오직 우리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그 힘을 조직동원하시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나가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엄중한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우리 나라 초기민족해방운동과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은 자기자신의 힘을 믿고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며 그에 의거할 대신 남만 쳐다보고 남에게 의존하면 혁명을 망쳐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우리 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함이 없이는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할수 없었으며 혁명운동을 발전시켜나갈수도 없었다.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이 절박한 문제는 오직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에 있어서 자주, 자립의 립장을 떠나서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채로 삼켜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온갖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시고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모든 전략전술, 그리고 그 구체적수행방도 등의 근저에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일제의 멸망을 앉아서 기다리거나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일제침략자를 격멸소탕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된 가장 혁명적인 로선이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그이께서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신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그 자랑찬 승리의 로정은 자력갱생의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혁명을 힘있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와 항일유격대의 투쟁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구현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무엇보다도먼저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그에 확고히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리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인민대중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는데 가장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내부적요인이며 무엇보다도 그 나라 인민의 힘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혁명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낼수 있으며 혁명투쟁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성과적으로 마련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선혁명의 주인이며 그의 담당자인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리심에 있어서 우선 손에 무장을 잡고 투쟁의 길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을 그 핵심으로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조선혁명의 핵심부대로, 혁명적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항일무장투쟁의 기나긴 나날 언제나 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사랑하시였으며 생활과 투쟁의 모든 면에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보살핌과 실천적모범을 따라배우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와 당조직 및 공청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혁명근거지와 적통치구역에서의 대중정치사업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주견을 확고히 소유한 참다운 혁명가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자신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기어코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고야 말겠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인민들을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혁명적대중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단결되고 조직된 대중의 력량이 없이는 우리 혁명은 한걸음도 앞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승리할수도 없는것이요. 인민대중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요.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어디서나 군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그들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오.

그러므로 군중정치사업은 곧 혁명전선에서 무장투쟁에 못지 않는 매우 중요한 혁명임무요.…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가는곳마다에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에 대하여 그리고 그이의 고상한 혁명적풍모와 높은 덕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들은 또한 군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올수 있다는데 대하여 꾸준히 해설하여주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결속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과 조선공산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결속과 사상의지의 통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항일무장투쟁과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사업 등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주체적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었다.

조선혁명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튼튼히 꾸리신 우리 인민의 이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계속 줄기차게 발전하였으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이 주체적력량이 있음으로 하여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또한 무장장비를 비롯하여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수단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간데서 높이 발현되였다.

간악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뿐아니라 그 무장장비를 부단히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유격대는 나라가 이미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여 주권도, 민족군대도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에서 그 어데서 무장장비를 방조받을수도 없었고 또한 그 누구에게서 무기를 넘겨받을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무기를 구하는 문제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가 처한 이러한 주객관적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무기획득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들은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수도 있고 또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이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죽음을 두려워 안하고 나서면 한사람한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누가 무기를 가져다주기를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쳐 그것을 쟁취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있고 혁명적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전개되였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한자루의 총, 한알의 탄알을 얻어내기 위하여서도 자기의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무장하였으며 피흘려 획득한 무기를 가지고 도처에서 원쑤를 치고 더 많은 무기와 탄알을 빼앗아 자체의 무장력을 급속히 확대하여나아갔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는 보총, 기관총은 물론 척탄통이나 박격포와 같은 위력있는 포화력까지 가지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또한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도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높은 창조적기풍에서 발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줄 아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혁명이 요구한다면 필요한 모든것을 제때에 만들줄 알아야 한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풍구, 메, 집게와 같은 변변치 않는 야장도구를 가지고 만드는것을 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조건에서도 여러가지 무기와 위력한 《연길폭탄》, 그리고 각종 무기부속품들까지도 자체로 만들어냈으며 보잘것없는 도구와 빈약한 재료를 가지고도 무기수리와 제작에서 부단한 혁신과 갱신을 가져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전투행동에 편리하면서도 위력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데서도 어떻게 하면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고 누구나 다 손쉽게 다룰수 있으면서도 적을 많이 소멸할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는가에 대하여 고심하면서 온갖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는 무기뿐만아니라 식량과 피복, 의약품과 학습도구 등 일체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해결하였다.

일제를 쳐부시는 가렬한 전투와 간고한 행군을 거듭하는 조건에서 이러한 모든것을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였다. 여기에는 비상한 혁명성과 창발성이 요구되였다.

1930년대 초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의 생활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내에 병기창을 차려놓고 무기를 제작수리하게 하시였을뿐아니라 피복창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체로 옷을 만들어 모든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에게까지 입게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자체로 농사를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극진한 보살핌에 무한히 고무된 혁명근거지인민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이 지른 불길에 모든것이 타버리고 빈주먹밖에 없는 극히 어려운 형편에서도 실망하거나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더욱 힘과 용기를 내여 제철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김을 매고 가을을 하였다. 그들은 때로는 풀을 뜯어먹고 맨물을 마시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사를 지었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와 혁명근거지인민들의 식량을 보장하였고 남새까지도 자체로 해결하였다.

항일유격대내의 병원에서는 백반과 소금으로 소독약을 만들고 와세링을 고약대신으로 썼으며 나중에는 《감장고약》, 《황납고》 등 훌륭한 외상약을 자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냈으며 산속이나 강가에 있는 자연약초들을 리용하여 병치료를 하며 의료기구도 자체로 만들어 외과수술을 하는 등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체로 출판기자재를 만들어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비롯한 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찍어냈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혁명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고도의 창조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모든 물자들을 계획적으로 극력 아껴쓰고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등 혁명적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또한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두려움을 모르고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맞받아나가면서 맡은 혁명임무를 이악하게 달라붙어 어김없이 끝까지 수행한 진취적이며 강의한 혁명적기백에서 높이 발현되였다.

일제의 강대한 무력을 상대로 싸워온 항일유격대원들은 오늘의 조건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난관과 애로를 헤치면서 하나하나의 혁명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만약 그때에 난관을 두려워하거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기를 바라면서 헐하게 일해보자는 안일성과 소극성에

조금이라도 사로잡혔다면 혁명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것이며 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도 없었을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조건이나 능력을 앞세워 생각한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이악하게 달라붙어 어떤 난관과 애로도 물리치며 맡은 임무를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혁명가로서의 더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재봉대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감명깊이 찾아보게 된다.

오직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자기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불같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어렵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혁명과업이라도 반드시 자체의 힘과 지혜로 제정된 시간내에 어김없이 수행해내고야 말았다.

불과 몇명의 대원들로써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조직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세주일도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내에 600여벌의 군복과 물자들을 마련한 이야기며 발 하나를 두고, 옥수수 한포대를 놓고 적과의 피어린 싸움이 벌어졌으며 식량포대를 부등켜안은채 발머리에서 동지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는 가렬한 환경에서도 굴하지도, 락심하지도 않고 마침내 800섬의 식량을 장만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주신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해낸 이야기 등은 항일유격대내에서 발양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높이와 그 거대한 힘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중상당한 몸으로 울창한 수림과 인적없는 바위굴속에서 수십일간씩, 때로는 100여일이상씩 홀로 남아있으면서도 오직 수령을 믿고 혁명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병마도, 굶주림도, 혹한도 이겨내고 불사조마냥 싸워 끝끝내 승리한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모든 감동적인 모범도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신 백절불굴의 혁명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이처럼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의 힘을 더욱 굳게 믿게 되고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혁명임무를 끝까지 관철하였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중중첩첩한 난관도 물리치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며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도 기적을 창조해내며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부단히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였다.

이것은 풀과 물이 있는데라면 그 어떤곳에서도 살며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생동한 모범이다.

항일유격대내에서 높이 발양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혁명임무를 제힘으로 끝까지 해내고야만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가적기풍속에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안받침되여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데서나 수령을 끝없이 흠모하고 신뢰하면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가슴불태웠으며 수령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들이였다.

그들은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이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고 그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된다는것을 심장깊이 느끼고있었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승리의 등대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싸웠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다하였다.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

한 무한한 충실성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모든 힘과 창조적지혜를 혁명과업수행에 남김없이 바치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높이 발양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조선혁명은 우리 인민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고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청사에 길이빛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 한그람의 철, 한줌의 세멘트, 한장의 벽돌도 없던 페허속에서 불사조마냥 일어나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였으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실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하여 오늘과 같은 웅대한 도시들과 기념비적건물들, 현대적인 공장들과 아름다운 공원, 유원지, 극장 등을 건설해놓았으며 지난날 세계지도상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세계인민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과 인민이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는 남반부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으며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속에서 날에 날마다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시고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조선혁명발전에서뿐아니라 전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로 되고있으며 공동의 재부로 되고있다.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의 근본요인의 하나였으며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굳게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면하게는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어렵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혁명적으로 사업을 벌릴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그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제기된 혁명과업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장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제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

황 룡 섭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한해가 지나갔다.

지난 한해동안의 생활은 김일성동지께서 이 로작에서 천명하신 모든 경제리론들, 특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탁월한 경제사상,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 1년간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특히 새해벽두에 우리의 강철전사들이 창조한 새로운 훨씬 더 높은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창시하신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특히는 7개년 인민경제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중요한 혁명임무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실천행정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경제리론, 특히는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탁월한 리론을 창시하시고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견지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는 이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생산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한 창조적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발전의 속도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이 무제한하게 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으며 또한 이 가능성은 사회주의경제가 심화발전할수록 더욱더 커진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경제발전속도의 본

질적특징은 자본주의경제발전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의 개인적리윤추구가 생산의 목적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제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제도자체의 본질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목적, 사회주의제도의 발전은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요구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데 대한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자면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야만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달성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줄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고 자립적민족경제로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것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생산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 동시에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어느때를 막론하고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는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요구할뿐만아니라 이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생산력발전의 속도는 무엇보다도 생산관계에 의하여 좌우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간의 모순에 의하여 생산관계가 생산력발전을 억제하는 제동기적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이와는 달리 생산력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한다. 생산력발전에 대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능동적역할은 사회주의제도가 공고화될수록 더욱 더 커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이 경제건설이 진척되고 생산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어떻게 더욱더 많아지는가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의 강화가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더욱더 많아지게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집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높은 생산장성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은 무엇보다먼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에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이며 이러한 우월성은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할수록 높이 발양된다.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가 심화되는데 따라 인민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이 더욱 강

화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의 강화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전문화, 협동화의 범위가 확대되여 인민경제부문들간, 부문내부간, 기업소들간의 생산적련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조건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강화하며 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인민경제계획화를 더욱 일원화, 세부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또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로력, 자연부원을 비롯한 생산의 제요소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가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지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여지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의 강화가 확대재생산의 원천인 축적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고 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합리적리용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에 따르는 로동생산능률의 체계적인 장성에 의하여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며 축적을 큰 규모로 늘일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사회주의국가의 계획적지도의 강화는 국민소득의 빠른 장성에 기초하여 인민생활향상에 더 많은 몫을 돌리면서도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할수 있도록 축적을 계획적으로 높이 조성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축적된 자금을 통일적이며 유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기본건설에 지출되는 기본투자의 효과성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리용률을 높이는 등 온갖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회적로동을 절약하여 추가적인 생산장성의 원천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국가의 계획적지도의 강화는 이와 같이 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더욱더 많아지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기술발전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적극적역할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더욱더 많아지게 한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우와 같은 책, 3페지)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열어주는 넓은 길을 따라 기술이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낡은 기술이 보다 높은 새로운 기술로 갱신되여가는 것은 합법칙적현상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지고 생산규모가 커지면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에 의하여 기술발전이 억제되는것이 법칙으로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한계가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이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생산관계가 열어놓

은 넓은 길을 따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장성하는것이 법칙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사회주의국가의 적극적역할에 의하여 더 빨리 촉진된다.

로동계급의 현명한 수령의 령도하에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국가는 기술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며 과학과 기술발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국가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기술발전에 요구되는 기술간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여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원료, 자재, 연료 등 로동대상이 합리적으로 리용되여 생산순환과정이 더욱 촉진되며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장성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발전의 기본추동력, 생산장성의 결정적요인을 천재적으로 정식화하시고 맑스-레닌주의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본능적역할에 의하여 이것이 더욱 강화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우와 같은 책, 3페지)

생산과정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과정이다. 사람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 결정적 요소이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며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생산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 기본원천으로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며 생산장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자기의 재능과 창발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휘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높은 사상의식에 기초하여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재능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오직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근로자들자신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고유한 본질적우월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매우 높은 속도로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가능성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본질적우월성에서 흘러나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맑스-레닌주의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본능적역할,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의식을 없애기 위한 사상혁명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혀준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근로자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더욱 촉진되고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이 더

욱더 높아진다.

사람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경제관리에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생산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놀게 되며 경제관리운영전반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질 때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가 강화되게 되며 로동조직도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지면 기술발전에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이 더 높이 발양되여 기술혁명이 더빨리 추진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역할에 의하여 생산발전의 기본추동력인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가지고있는 모든 우월성들, 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기술의 계획적인 빠른 발전,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 등을 전명하시고 이 우월성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 계획적지도와 기술발전에 대한 그의 적극적역할,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본능적역할 등에 의하여 더 높이 발양되게 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가지고있는 생산장성의 무제한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길도 명확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놓쳐도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9~10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안받침해줄수 있으며 그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실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켜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 그 발전전망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생산의 높은 발전속도의 본질적특징과 객관적필연성, 그 실현조건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이 경제리론은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종래까지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론증되여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가 어느정도의 높이에서 끊임

없이 견지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명확히 밝혀져있지 못하였다. 더우기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가 끊임없이 견지될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과 그 실현조건은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있었다. 따라서 종래까지의 사회주의경제리론에서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계속 견지될수 있다는 혁명적인 결론이 주어져있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제국주의 특히는 미제국주의의 로골적인 침략책동과 반동적인 사상공세가 날로 격화되고있으며 사회주의가 승리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경제의 규모가 훨씬 커진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것을 초미의 문제로 요구하게 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매개 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카로운 문제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결정적우월성과 그 필승의 신념을 확고히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명확히 천명하시고 우리 시대가 제기한 이 절실한 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그 발전전망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사회주의경제의 규모와 속도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생산발전속도의 본질적특징과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요인,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발전의 무제한한 가능성이 더욱더 증대되는 근거, 그것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조건과 방도에 대한 고전적해명을 주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리론은 완벽하게 창조되였다. 이것은 실로 맑스-레닌주의발전에 대한 불후의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혁명실천이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빛나는 공헌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론박할 여지없이 완전히 확증되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지난 기간 세상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였다.

지난 기간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책동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방해하는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확신성있게 달려나아감으로써 오늘과 같은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게 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후 지난 1년간에 우리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혁명적인 경제리론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낡은 기준량, 낡은 공칭능력을 마사버리고 새롭고 훨씬 높은 기준량을 창조하고있으며 지난날의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내달리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이 창조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는 사회주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증산예비는 더욱 많아지고 따라서 생산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는 새로운 혁명적인 경제리론의 정당성을 론박할 여지없이 확고히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경제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항상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특성과 현실적조건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경제발전의 기본 방향과 방도를 가장 정확히 제시하신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곧바르게 인도하신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5개년계획의 첫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일으켜 세인을 경탄케 하는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었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미제의 발광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된 7개년계획기간에도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였다.

오늘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돌격전에서 우리 인민이 창조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도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새로운 합법칙성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을 부단한 전진과 부단한 앙양에로 확고히 인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장성의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데서도 결정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으로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작성된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실천활동에서 풍부한 경험을 체득하고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소유한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객관적경제법칙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진척되는 구체적조건에 맞게 현명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한다. 또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변하는 로동계급의 수령은 광범한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제시하며 그 수행에로 그들을 고무하고 발동시켜 맑스-레닌주의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그리고 철저히 집

행하도록 곧바르게 인도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활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을 높여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켜주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높이 발양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깊이 자각한 인민대중은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한다. 그들은 특히 기술발전분야에서 새로운 창안과 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로동수단의 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진시켜 현존설비의 낡은 공칭능력을 마사버리고 새로운 로동기준과 새로운 공칭능력을 창조하기 위한 집단적기술혁신을 일으킨다. 또한 그들은 인민경제에 깊이 숨어있는 생산의 모든 잠재력과 온갖 예비를 남김없이 찾아내고 동원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이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경제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복구기뿐만아니라 그 규모가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훨씬 커진 오늘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돌격전에서도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는것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확고히 령도하고계시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현명성과 그이께서 새롭게 밝히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또한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한층 더 풍부히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리론실천적무기》로, 《사회주의경제리론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적문헌이며 사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문헌》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또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대하여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못하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의 탁월한 경제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창시하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기한 강철고지를 비롯한 7개년계획의 모든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한 마지막돌격전은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높이 발양시키며 생산자들의 증산투쟁을 어떻게 지휘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

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높은 계획성과 균형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하며 인민경제에 깊이 숨어있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은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술혁명은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와 함께 기술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기술혁신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고 보다 적은 로력으로 더 좋게, 더 값싸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긴장된 정세하에서 진행되고있다.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더 발광적으로 미쳐날뛰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 새로운 전쟁의 위협이 계속 떠돌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도취하지 말고 한층더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새로 만들어내여 모든 생산조건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투쟁정신과 사업방법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시대의 천리마기수들의 혁명적인 사고방식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발전의 속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마지막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의 결정적열쇠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의 모범을 따라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달려나아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가장 혁명적인 경제사상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7개년계획의 고지마다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승리자의 무한한 긍지를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자.

# 사로청사업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로 키우자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오늘의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고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이 나아갈 휘황한 길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력사적교시는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조선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전원회의에서 주신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로청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은 우리 당의 후비대로서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사람들을 키워내는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을 강화하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강화하며 혁명위업을 계속 줄기차게 전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이처럼 중요한것은 우선 사로청조직에 망라되여있는 청년들이 혁명과 새 사회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청년들은 새 사회건설의 돌격대이다. 생기발랄하고 원기왕성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것은 청년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청년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훌륭한 자질로 하여 그들은 사회혁명과 새 사회건설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청년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 관철에 적극 조직동원할 때 그들은 실로 태산도 떠옮기는 위대한 힘을 내게 되며 새 사회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청년들은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들로서 우리 혁명위업의 직접적인 계승자들이다. 혁명은 대를 이어가면서 해야 할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사업이다. 혁명의 대를 이을 사람들은 다름아닌 청년들이며 따라서 우리 혁명의 장래발전과 조국의 앞날은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단련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날 때 우리의 혁명위업은 계속 힘있게 전진할것이며 조국은 더욱더 륭성하고 번영할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을 새 사회건설의 선진투사로,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유일한 대중적혁명조직이며 공산주의적사상교

양단체인 사로청조직이다. 사로청사업이 잘 되여야 청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우리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가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랄수 있다. 따라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키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의 후보자는 민청에서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민청을 조선로동당의 후비대라고 하는것입니다.**

**민청은 당원의 후비를 키우는 학교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19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또한 사로청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로청은 당원후비육성의 학교이며 당장성의 저수지이다. 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사로청생활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에 그들은 당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사상적 및 도덕적 풍모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사로청조직들이 사업을 잘 해야 더좋은 당원의 후비들이 양성될것이며 당은 이들로써 자기 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나갈수 있다.

사로청은 당원의 후비뿐아니라 당 및 국가 간부의 후비를 키우는 학교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간부들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진다. 당 및 국가의 간부대렬이 새로운 젊은 간부들에 의하여 부단히 보충되는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따라서 간부의 후비를 육성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런데 간부의 후비는 사로청대렬에서 자라며 사로청은 그 후비를 키울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원의 후비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유능한 당 및 국가 간부의 후비를 성과적으로 키워 우리 당을 더욱 위력하고 전투적인 부대로 공고발전시키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위업수행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사로청조직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사로청조직이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은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 끝없는 신뢰와 기대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오늘의 긴장한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사로청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시대, 전세계적범위에서 혁명적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준엄한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특히 우리들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인류의 흉악한 공동의 원쑤인 미제와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있으며 놈들의 날로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당면하게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켜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놓은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벅차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은 우리 청년들과 그의 유일한 정치적 조직인 사로청에 각별히 무거운 임무를 지우고있으며 그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로청이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는 청년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킬 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조국보위초소는 철벽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될것이다.

실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 및 혁명 발전의 근본리익과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것으로서 당 및 사로청 조직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소년사업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의 총적임무이며 그들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롭고도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청소년사업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한 사로청조직들의 사업에서 기본은 수령께서 가르치신대로 내부사업을 위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 조직사업에 모를 박으며 이에 경제사업과 대외사업을 결합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사로청의 기본사명과 그 사업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로청은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사로청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즉 사로청간부들과 핵심들, 사로청원들과의 사업으로, 동맹조직을 전투적인 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청년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으로 철저히 전환시킬것을 요구한다. 사로청조직은 오직 내부사업을 위주로 하고 이에 경제사업을 결합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만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경제과업수행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청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여기서 사로청조직들이 중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04페지)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인 동시에 사회혁명과 새 사회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놀아야 할 청년들의 무거운 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서 청년시절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특히 날카롭게 나선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으며 혁명의 길을 계속 굿굿이 걸어나갈수 있다. 청년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 일생을 바치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없이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견결히 옹호하도록 하며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사상을 계승하고 우리가 내세운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창건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투쟁하는 혁명적인 청년조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의도를 떠난 사로청활동이란 생각할수 없다. 오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감으로써만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선청년운동을 계속 힘있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로청조직과 청년들이 혁명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의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사로청의 모든 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이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 우리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움직이며 온갖 반당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조직들과 청소년사업에 주신 그이의 강령적교시로 청년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그 관철에 온갖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청년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이다. 혁명전통교양은 청년들속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빛나는 업적,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끝없이 고매한 덕성을 체득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혁명적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모든 사로청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철천지 원쑤 미제와 지주, 자본가를 끝없이 미워하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보위하며 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은 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직진행하는것은 그 효과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혁명화를 촉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그것은 정서가 풍부하고 흥성거리기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청소년교양의 전통적인 사업방법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 사업에 구현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조직생활이 강화되여야 맹원들의 사상개조도 혁명화도 다 잘되고 당이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이 잘 관철될수 있습니다.》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청년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로청조직생활은 청년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혁명적수양과 사상단련을 적극적으로, 실속있게 할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이다. 청년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는 정치사상적각오가 확고해지게 되며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릴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참다운 혁명가적품성을 갖추게 된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청년조직의 한 성원이라는 드높은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원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분공을 옳게 조직하고 동맹생활총화와 총회를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조직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혁명적교양과 함께 지덕체교양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계속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다방면적인 지식, 그리고 공산주의적도덕품성과 튼튼한 체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학생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거의다 학교에 다니고있으며 그들은 모두다 학교를 거쳐서 사회로 나갑니다. 이런 사정을 놓고 볼때 민청사업에서 절반이상의 힘을 학생사업에 돌려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2권, 12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은 사로청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들은 수령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청소년시절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있으며 거기를 거쳐서 사회에 나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사로청조직들앞에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이에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수령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높은 정치적식견과 지식을 가진 준비된 혁명가로서 사회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답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선봉적이며 돌격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부문에 언제나 앞장서고 나라의 기술혁명과업수행에 자기의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 바치게 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사로청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기본고리는 각급 사로청위원회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사로청조직들의 지도기관인 사로청위원회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청년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그들이 인민경제와 조국보위의 모든 초소에서 청년적인 선봉적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는 사업도 다 성과적으로 풀수 있다.

사로청위원회들은 깜빠니야사업일면에만 치중하는 낡은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내부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사로청조직들을 혁명하는 조직, 움직이는 조직, 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을 산 조직으로 만드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로청간부대렬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의 핵심들, 지식있고 용감하며 청년다운 성격과 자질을 가진 생생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이는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사업에 주신 수령의 력사적인 교시들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청소년사업의 전통적방법을 지침으로 하여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로청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그를 산 조직으로 되게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로청생활의 거점인 초급단체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특히 공산주의적청년핵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단련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은 대중적인 청년조직체이기때문에 공산주의적핵심을 길러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이 없는 군중조직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없습니다.

…모든 청년들을 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로,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며 사로청조직이 위력한 전투대오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공산주의적핵심을 길러내여 그들이 청년들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03페지)

공산주의적청년핵심을 많이 길러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모든 청년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며 동맹조직을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서 사로청 건설과 활동의 기본원칙이다.

사로청조직들은 공산주의적청년핵심대렬을 계급적원칙에서 부단히 확대하고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청년핵심들에게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알려주고 군중공작방법을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배워주며 일상적으로 정치적분공을 주어 그들이 청년군중속에서 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당단체들의 지도가 결정적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당단체들은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지도방법들을 연구하며, 당적지도수준을 높이며, 매 시기마다 사업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며, 능력있는 간부들을 선발, 배치하며,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검열지도하며 결점들을 시정하도록 방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55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로청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사로청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그가 지닌 사명과 임무, 그 앞에 나선 벅차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그것은 또한 사로청조직들의 과도적특성으로 말미암아 동맹원들과 일군들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사로청조직은 다른 근로단체와는 달리 청년조직인만큼 일정한 기간 동맹생활을 한 사로청원들은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고 반면에 청년기에 들어선 수많은 청년들이 동맹대렬에 부단히 새로 들어오게 된다. 또한 간부들도 청년조직의 특성에 상응하게 꾸려져야 하는 만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간부들이라 하더라도 오래동안 사로청대렬에 있을

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로청사업에 깊은 당적주의를 돌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당조직들은 청년사업, 사로청사업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사로청을 통하여 청년군중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로청조직들의 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어 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자립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직업적인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운동은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조선청년운동이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강력한 일환으로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 빛나는 기여를 할수 있은것은 오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의 빛나는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동안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청년사업이 혁명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청년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당을 창건하신후 곧 그의 후비대인 민주청년동맹을 직접 창건하시고 그를 조선청년들의 대중적인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새로운 현실과 청년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민청을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로청사업과 청년들의 생활을 언제나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온갖 뜨거운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으며 또 돌려주시고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사로청은 우리 당이 가장 신뢰하는 혁명적인 청년조직으로 자라났으며 혁명위업수행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사로청은 앞으로도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운동을 계속 힘있게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자랑찬 기여를 할것이다.

모든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라는 드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한다.

당 및 사로청 조직들은 사로청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와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사로청사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혁명과업수행에서의 빛나는 성과로 맞이하자.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들끓는 환경속에서 우리의 지방주권을 일층 공고히 하는 경사스러운 선거가 진행된다.

금번 지방주권기관선거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는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선거의 빛나는 승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와 우리의 인민정권,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구한 기간 빛나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세우시였고 공고발전시켜오신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무한한 행복과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는 이 제도하에서 생활의 보람을 느끼면 느낄수록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이 땅우에 보다 휘황찬란한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이 제도하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모두의 영예로운 의무로 된다.

*　　*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 목적밑에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에게는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8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명제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우선 정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손에 있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된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정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것으로 되여있는것,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지금까지의 모든 착취계급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며 여기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모든 우월성과 생활력이 흘러나오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정권을 자기의 손에 쥐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소수 착취자들이 정권을 틀어쥐고 근

로자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들이 누구나 다 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며 자기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국가주권을 떳떳이 행사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으면서 누구나가 다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껏 일하며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있다. 특히 가장 선진적인 무료교육, 무상치료 제도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배울수 있고 병나면 누구나 다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행복한 생활은 우리의 인민정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정권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튼튼한 정권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7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자신에 의하여 세워진 정권으로서 계급적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뿌리를 박고있으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정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이것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사회를 이룩해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로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이와 같은 훌륭한 정권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안기고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영예롭게 수호한 슬기롭고 영웅적인 인민으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을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라는것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으며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키게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9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근본추동력을 천재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오늘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의 경제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여있음으로 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가 영원히 없어지고 근로자들간에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형성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근로자들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동시에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한다. 사회와 집단의 번영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생활의 확고한 담보이다. 이런데로부터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재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일하며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에 전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언제나 여기에 주인답게 참가한다.

그리하여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 창조적적극성이 모든 령역에 걸쳐 비할바없이 높이 발양되며 그들은 참말로 의식적인 력사의 창조자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이에 기초하여 그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이루어졌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혁명적열의는 우리 나라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케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바로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국가가 생산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우리의 경제를 비상히 촉진시키는 물질적힘으로 전환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기업소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음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공황이 없어지고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부문과 기업소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룸으로써 경제를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다.

이것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로 된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의 계획적발전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여기에서는 생산수단이 독점자본가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기때문에 경제발전의 자연발생성, 무정부성이 필연적이며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

되며 생산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자본주의경제의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청산한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주의국가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의식적으로 리용하여 경제에 대한 전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경제를 발전시킨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민주주의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국가는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경제발전법칙을 옳게 리용하면서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실현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훌륭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의 계획성, 균형성은 더욱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 생산의 모든 잠재력이 가장 합리적으로 훌륭히 동원리용되고있으며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은 끊임없이 큰 규모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국가의 계획적지도의 위력은 특히 기술발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바뀌고 새로운 기술은 보다 새로운 기술로 계속 발전하여나가는 과정이 비상히 빨리 추진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회경제적지반이 청산되고 모든 생산자대중이 기술발전에 직접적리해관계를 가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 로동을 헐하게 하고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며 그에 따라 자신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부단히 향상된다는것을 자각하고 온갖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여 낡은 설비들을 개조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국가는 근로대중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기술신비주의와 소극성, 보수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기술발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있다. 또한 수령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철저히 관철되여 생산과 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지도는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리하여 기술혁명이 급속히 추진되고있으며 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제도라는것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도 없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생산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집니다.》(우와 같은 책, 39페지)

생산물이 소수 착취자들에게 독점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오직 기아와 빈궁만이 차례지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있고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에게는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하는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이 실현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이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몫도 결국은 그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적생산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리용된다. 따라서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사회가 부유해짐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도 계통적으로 높아진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면서도 매해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돌리고있다.

당과 국가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건, 후생, 문화 시설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자금을 지출하고있으며 도시와 농촌에 해마다 더많은 문화주택들을 건설하고있다. 당과 국가는 또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계통적으로 높여주면서도 해마다 물가를 낮추고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의복을 공급해주고 특히 전문학교와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면서 모든 학생들이 인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돈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할수 있는 철저한 인민적시책을 실시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먹고 입을 걱정, 아이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고 누구나 다 훌륭한 일터와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오늘과 같은 륭성발전과 이 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한 생활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두터운 배려가 있었기때문에 이루어질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주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며 신뢰하고있으며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께 의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인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이 성스러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여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전체 근로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 사상혁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내외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잘하는것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우리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수호하여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기초를 보다 튼튼히 다져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

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적대적요소들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계급투쟁이 더욱 치열히 벌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온갖 반혁명세력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수호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인민정권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으며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도 없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각급 정권기관들을 계급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우리의 정권기관이 계급적으로 굳건히 꾸려져야만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금번 선거를 통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유능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튼튼히 뿌리를 박고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경각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적대분자들을 제때에 적발폭로하며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킴으로써만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기초를 공고히 하고 이 제도의 무궁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할 때에만 부단히 공고화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의 확고한 기초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이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기본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확고히 무장하기 위하여 우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구현되여있는 우리 당의 로선,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고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이 제도의 물질적기초를 보다 튼튼히 다져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야만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알려줄수 있으며 그들에게 활기있게 일하며 행복하게 생활할수 있는 훌륭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해줄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4페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

활을 한층 더 높이고 이 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보다 훌륭히 보여주는 영예로운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더 공고히 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쌓아놓은 경제적밑천을 가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생산토대를 계속 확대하여야 하며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같이 급속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전반적으로 빨리 추진시키는데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강력히 밀고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만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보다더 높일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내원료로써 공업생산을 발전시키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전체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전군중적운동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앞에는 당과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지난날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놓은 그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뚫고나가며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걸린문제를 이악하게 풀어나가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기 위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며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것으로 전변시키면서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자랑찬 인민이며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위대한 혁명적전취물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한층 더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 돌격전에서 있는 지혜와 힘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더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원가를 낮추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김 덕 순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원가저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가저하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이며 과학적인 경제사상과 방침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과정을 힘있게 촉진하며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할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훌륭히 실현하며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경제적공간으로서의 원가를 옳게 리용하여야 할 필연성과 원가저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경제관리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이지만 결코 우리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물질적자극을 전혀 필요치 않은것으로 여기거나 경제운영에서 가격공간리용을 도외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높이 받들고 나아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경제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도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는데 1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는것이 기본이라고 하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원가, 가격 등 경제적공간의 리용을 홀시하거나 필요없는것으로 인정하여도 된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적분업이 있으며 특히는 소유관계가 분화되여있기때문에 상품화페관계가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공산주의의 첫단계인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력과 사람들의 의식이 다 공산주의적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로동이 사람들의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공장, 기업소들에는 독립채산제에 기초한 경영상 독자성이 부여된다.

상품화폐관계가 남아있고 기업소들에 경영상 독자성이 부여되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계산의 도구로서의 원가도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생산물의 원가가 기업소 전체 사업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적지표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제일군들에게 그들의 사업을 비단 생산계획의 수행정도에 의하여서만 평가할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원가저하와 기업소의 수익성에 관한 과제의 수행에 의하여서도 평가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123페지)

원가는 상품화폐관계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독립채산제원칙에 기초하여 관리운영된다. 공장, 기업소들은 자체의 수입으로써 생산에 대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어야 한다. 기업소들의 생산활동과정에 지출된 일체 비용을 화폐적으로 반영하는 원가가 옳게 계산되여야 그에 기초하여 가격을 정할수 있고 생산물의 등가교환을 실현할수 있다.

원가에는 기업소들에서 생산과 판매과정에 지출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며 따라서 생산물의 원가수준은 기계설비, 원료, 자재, 로력을 비롯한 모든 지출의 절약정도와 생산자원의 효과적리용정도 그리고 제품의 실현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리하여 원가는 기업소경영활동의 질을 특징짓는 기본지표로서 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리용되는 경제적공간으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기업소들에 대한 화폐자금공급을 생산계획수행정도에 철저히 의존되게 함으로써 기업소들로 하여금 기업관리운영에서 결함과 그 원인을 제때에 정확히 찾아내고 계획화사업, 생산과 로력 조직, 기술관리, 자재공급, 재정관리 등 경제관리의 전반적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며 보다 적은 생산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내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자극한다. 공장, 기업소들은 국가계획의 량적지표뿐만아니라 모든 질적지표들을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되며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원가는 특히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계산의 도구로 리용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에 지출된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생산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할수 있고 생산확대와 인민생활향상을 과학적으로 예견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원가가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필수적인 하나의 경제적공간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물의 원가저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물의 원가저하는 공업의 내부축적을 형성하는 원천이며 상품가격인하의 기초이며 인민의 물질적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12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생산물의 원가저하가 나라의 경제건설의 촉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서 가지는 의의를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이 경리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되고있는만큼 생산에 대한 모든 지출을 반영하는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인민경제내부축적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원천은 인민경제내부축적이며 그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공업내부축적이다. 이것은 공업생산물의 생산증대와 원가저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생산이 장성하고 원가가 낮아지면 사회순소득의 몫이 커지며 따라서 국가는 소비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축적에 더 많은 몫을 돌릴수 있다.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나라의 축적을 끊임없이 늘여야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가저하는 또한 물가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상품가격을 유일적으로 제정한다. 생산에 지출되는 사회적필요로동의 크기는 상품가격제정의 기초의 하나이다. 원가저하는 사회적필요로동지출의 절약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에 상응하게 생산물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만 축적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키면서도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할수 있다. 원가를 낮추어야 근로자들의 로임도 높일수 있으며 상품가격도 낮출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에게 사회문화적혜택도 더 많이 줄수 있는것이다.

원가저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아주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원가를 낮추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 마련된 거대한 생산잠재력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전후 10여년동안 방대한 건설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또한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많은 공업제품과 농산물을 생산하고있으며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9폐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그리고 발전된 사회주의적농촌경리가 마련되였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전례없이 방대하여졌으며 인구 1인당 생산량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1968년에만 하여도 우리의 공업생산은 1946년에 비하여 무려 55배로 늘어났다.

경제규모가 방대하여지고 그 생산량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원가 1%의 저하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커졌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생산을 많이 내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만 우리 나라에 마련된 거대한 생산토대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실제적으로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원가를 낮추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의 은을 더 크게 나타내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광란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원가를 낮추어야만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서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실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물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진보를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로동조직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기풍을 길러주어 모든 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로동수단을 더 잘 리용하고 전력, 석탄, 철재, 목재 그밖에 다른 물자의 소비를 백방으로 절약하며 비생산적지출을 줄여 생산물의 원가와 건설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35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고정재산리용률을 높이며 물자와 자금을 절약하고 비생산적지출을 줄이는것이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가르치고 있다.

원가를 낮추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이다. 로동생산능률의 제고는 단위시간내에 보다 많은 제품이 생산되는데서와 단위제품생산에 보다 적은 로동시간이 드는데서 나타난다. 이것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가 결국은 로동시간의 절약에 귀착되며 개별적제품생산에 드는 로동시간의 절약은 그만한 원가의 저하를 의미한다.

기술혁신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기술혁신을 해야 당면하게 긴장되여있는 로력사정을 풀고 한사람당 생산액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이고 원료, 자재도 절약할수 있게 된다.

특히 생산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기술혁신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지금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더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생산공급하며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기계화, 자동화하는것과 함께 선진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모든 기계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때려부시고 집체적힘을 발휘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나간다면 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날것이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은 생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를 높이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주어진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며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등 로동행정사업을 잘해야 있는 자재, 있는 로력,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싸우려는 로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이다. 기술진보를 다그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로동조직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등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구경은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자각적열의에 달려있다. 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것이며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것이다. 그러므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

설비리용률을 높이는것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계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이다. 군대에서 무기없이는 적과 싸울수 없는것과 같이 공장에서 설비없이는 생산을 할수 없으며 자연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다.

지금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공작기계, 보이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설비들이 많으며 그것들은 다 우리의 귀중한 재산이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은 지금 있는 기계설비들이 나라의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더 잘 쓰이도록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휴사장된 설비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예비부속품을 앞세워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들로 하여금 기계설비를 알뜰히 거두고 사랑하도록 하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또한 원료, 자재 등 모든 자원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생산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원가구성에서 원료, 자재비의 몫은 더욱더 커진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원료, 자재의 합리적리용과 최대한의 절약은 원가저하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개의 못, 한장의 벽돌, 한줌의 세멘트라도 다 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제재소, 제철소, 제강소, 기계공장 등 많은 공장들에서 잔여물들을 리용하기 위한 부속직장을 건설하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나무쪼각, 톱밥, 쇠쪼각 같은것도 랑비하지 말고 남김없이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07페지)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과 함께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며 부산물과 페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재, 원료, 연료를 비롯한 모든 물자의 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모든 페설물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원가에서 자재비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생산공급하며 생산에서 오작품과 불합격품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비싼 자재를 값눅은 자재로 대용하며 수입자재를 국내산자재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물자의 보관시설을 잘 정비하고 취급규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귀중한 자재를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하며 자재를 사장시키거나 류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 엄격한 절약제

도를 확립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온갖 예비를 동원하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489페지)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워 랑비를 없애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에 대한 지출계획인 원가계획을 옳게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자대중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 자재, 운수, 로력의 세부계획과 원가계획을 정확히 맞물리며 자재, 로력, 자금에 대한 기준화사업을 강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원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원가계획지표를 최대할뿐만아니라 그를 직장, 작업반에까지 세분하여 내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대중에게 절약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줄수 있으며 그들을 절약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랑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가계획을 정확히 세울뿐만아니라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옳게 세워진 원가계획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랑비를 방지할수 없다.

생산에 지출된 모든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는것만큼 원가를 똑똑히 계산하는것은 생산자원의 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가를 낮출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정연한 원가계산체계를 세우고 단위당생산물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가검토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와 결함을 옳게 가려낼수 있게 하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명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매달 생산총화와 함께 원가검토회를 직장, 작업반 단위로 조직진행하며 기업소적인 시기별 재정결산심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원가저하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다른 하나가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비생산적관리비지출은 공업생산물의 원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업소들의 관리비지출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그것을 극력 줄이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절약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필요이상의 비품을 사들이거나 불필요한 출장을 조직하여 국가재정을 랑비하는것과 같은 현상을 없애며 특히 계약규률위반과 관련한 자금지출 등을 결정적으로 없애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원가저하를 위하여 제시하신 이 방침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원가저하방도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주신 그이의 강령적인 교시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그이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경제사상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실제사업에서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

리운영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가저하를 위한 사업에서도 반드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모든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시킬데 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원가를 낮출수 있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할수 있으며 적은 지출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더 잘 관철할수 있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제시하신 모든 과업들을 정확히 실현해나가는것은 경제관리운영전반을 개선하여 원가를 낮추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더욱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실현하고 특히 기업관리운영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나라의 계획규률과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며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랑비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더 잘 진행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옳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것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당이 제시한 원가저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원가저하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등 온갖 부르조아사상요소들과 사소한 랑비현상과도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통제를 옳게 배합하는것은 우리 당의 원가저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절약과 재정적통제 및 반탐오, 반랑비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기관들과 경제기관들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50페지)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산관리리용의 제반 규정들을 옳게 제정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그것을 잘 해석침투시켜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며 그

를 위반하는데 대해서는 사회적 및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량계측수단들을 잘 갖추어 생산과 분배, 소비의 전행정에 대한 과학적인 계산통계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는 경제를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적게 한 사람이건 다 경제지식, 경영학을 배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경제관리에 구현한것이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철저하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체계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대안체계의 본질적요구를 실현할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다.

경제관리운영에서 지도일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오늘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그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것은 원가저하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관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경영학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생산일면에만 관심을 돌리는 그릇된 경향들도 막아낼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은 오직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틀어쥐고 지도통제하며 이에 생산자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해당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모든 일군들이 당과 국가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나라의 축적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차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된 귀중한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앞당겨 점령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빨리 앞당겨나가자.

---

#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화는 남조선 혁명승리의 주요담보

남 인 혁

오늘 남조선에서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유리한 정세가 더욱더 성숙되여가고있다.

날로 성숙되여가는 남조선의 혁명정세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각성이 높아지고 광범한 대중이 조직적으로 뭉쳐 영웅적투쟁에 떨쳐나선다면 남조선혁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며 혁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대중을 혁명화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데 대하여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면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켜 단결된 힘으로 원쑤와 싸워야 한다.**

**대중의 혁명화—여기에 혁명의 승패가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을 혁명화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적요구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혁명이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을 동원하여야 하며 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혁명은 승리한다. 인민대중은 사회를 변혁하며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력량이다.

인민대중의 이러한 힘은 그들을 의식화, 혁명화할 때에만 충분히 발휘될수 있다.

인민대중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그들을 계급적 및 민족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하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나서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인민대중이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나서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워야 한다.

대중은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에 따라 계급적인 눈으로 사회현상을 보게 되며 계급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게 된다. 계급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깊이 인식할수록 그들은 적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가지게 되며 그리하여 불공평한 사회제도를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각오를 굳게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다. 나아가서 사람들은 혁명을 하자면 힘을 합쳐야겠다는것을 깨닫고 조직에 뭉치는것이다. 그들은 조직에 뭉쳐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며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그가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낡은 사회의 상층부를 폭파하는 피어린 투쟁에 몸바쳐나설 때에만 참다운 혁명의 주력군이 될수 있고 사회발전의 참다운 동력이 될수 있으며 새 력사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다.

결국 혁명이 승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거기에 얼마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며 그들의 정치사상적각성과 조직화정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는 바로 거기에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결정적요인이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정치사상적으로 각성하고 혁명화되여 조직된 력량으로 될 때 그것은 무비의 힘을 나타내는것이며 원쑤들의 어떤 아성도 짓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된다.

남조선혁명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정권을 수립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힘을 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남조선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기 위한 혁명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사업이며 남조선인민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3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인민이며 남조선혁명의 기본동력도 남조선자체 력량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신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남조선혁명가들이 자기의 힘으로 혁명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투쟁속에서 혁명적핵심들을 육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남조선혁명은 승리할수 없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한 부분으로서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의 강력한 지원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지 않는다면 혁명은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여야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암흑통치를 때려부시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며 새 력사를 창조하는 참다운 동력이 되게 하자면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인민대중을 그 어떤 곤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똑똑히 인식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불같은 증오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동원하게 될 때 그들은 수십배의 힘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더구나 남조선혁명은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그와 결탁한 악질적인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탄압과 전쟁도발소동을 어느때보다도 로골화하고있으며 인민들의 민주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반동사상공세를 더욱더 강화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야만적인 파쑈테

로 통치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사소한 민주주의적요소도 말살하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물론 무고한 인민들까지 닥치는대로 잡아가두며 야수적으로 학살하고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정세는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남녘땅을 짓밟고 인민들을 무서운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는 성스러운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설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원쑤들에게 짓밟히고있는 남녘땅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바쳐 나서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남조선에서 원쑤들을 쫓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조선인민의 력사적사명이며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이 력사적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뭉칠때 남조선혁명은 더욱더 빨리 전진할수 있으며 반혁명을 결정적으로 타승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은 빨리 확대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각성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원쑤들과 굴함없는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조선혁명의 원동력인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가 불패의 력량으로 꾸려지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혁명력량의 지지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혁명의 결정적승리는 결국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반혁명세력을 타승할 정도로 더욱 빨리 준비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남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여러차례의 유리한 계기가 있었으나 남조선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각성이 혁명정세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였고 반혁명을 제압할 정도로 남조선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지 못하였기때문에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4.19봉기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아주 유리한 좋은 계기였다. 그러나 당시 남조선에 아직 강력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인민투쟁은 혁명의 결정적승리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 모든것은 오늘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더욱 빨리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며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것을 말하여준다.

* *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그들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만이 혁명하자는 사상이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몰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을 완성하자는 가장 정당하며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며 전체 남북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에로 확고하게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인도할뿐만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물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남조선인민들의 보람찬 앞날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화에서 근본문제이다.

남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혁명이다. 오직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혁명가로 준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남조선인민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거기에 담겨져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체득하며 자신을 남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훌륭한 혁명가로 준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에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로선과 방침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수령의 로작들을 통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진수를 깊이 파악할수 있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화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조선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를 알게 되며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떤 곤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든든히 가지게 된다.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에서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암흑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직접 혁명투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혁명투쟁 한 사람들과 같은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의 하나입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실천투쟁에서 구현된것으로서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을 혁명화하는데서 거울로 삼아야 할 비상히 풍부한 내용을 포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반특짜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가장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이룩되였으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직접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어려운 투쟁을 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승리를 담보하는 무진장한 힘의 원천으로, 투쟁의 본보기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투쟁을 연구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이란 누구나 결심하고 하면

할수 있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에 몸바쳐 싸우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으며 혁명사업이 비록 간고하지만 혁명적각오와 혁명정신만 든든하면 능히 적과 싸워나갈수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그들은 혁명을 하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자부심을 간직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느끼며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만이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조하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실천적투쟁경험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고 혁명가로 준비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조하신 대중혁명화의 경험은 오늘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남조선의 인민대중을 혁명화하는데서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대중을 혁명화하며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대중정치사업에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었으며 그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유능한 군사간부들로 키우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대중정치사업도 훌륭히 하는 준비된 정치일군으로 키우시었으며 대중정치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하시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우선 자신을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견결한 혁명가로 단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자기 가정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들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쉬임없이 정치사상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대중의 계급의식과 반일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점차 혁명대오에 묶어세웠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대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처지, 정치적준비정도, 풍속과 관습 등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였다. 즉 가정을 혁명화하는데서는 가정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고 권위있는 사람부터 각성시키거나 또는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로부터 교양하였다. 그들은 항상 군중이 아파하는 문제,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혁명조직에 끌어들이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대중을 혁명화하는데서 모든 가능한 기회를 리용하였고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생동한 경험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을 하여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옳게 인식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미제야말로 조선인민의 민족적원쑤일뿐아니라 가장 흉악한 계급적원쑤라는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

Digitized by Google

는것은 그들의 완전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질 때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놈들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때려엎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사람만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혁명가로 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만 미제와 그 주구들이 미친듯이 불어대는 《반공》나발의 허위성을 똑똑히 알며 놈들의 책동을 주동적으로 분쇄하여버릴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야말로 인류의 참다운 미래이며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 보람찬 생활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애국적감정과 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특히 남조선 로동자, 농민 대중에게 북반부사회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8페지)

남조선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은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며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다는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고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며 참다운 인민의 조국이란 어떤것이며 인민들이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회제도를 세워야 하는가를 깊이 자각하게 한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지주, 자본가들이 인민들의 피땀을 짜아 배불리는 남조선과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결코 근로인민의 행복과 자유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꽃필수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인식하며 장엄한 현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원쑤들의 삼엄한 폭압속에서도 공화국북반부를 자유와 행복의 상징으로, 희망의 등대로 무한히 동경하면서 남조선에도 바로 그러한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더욱 적극 투쟁하게 될것이다.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 주구들이 미친듯이 퍼뜨리는 《반공》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민족적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주는것이다.

참다운 민족적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이 없는 인민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할수 없으며 혁명도 할수 없다. 민족적자주의식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진 인민만이 자기 조국과 민족의 영예, 민족적자주권과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조선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부심을 높이 간직하게 될 때 그들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불타는 감정을 가지며 외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적자주의식을 높이는것은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하며, 높은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해나가는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퍼뜨리는 반동사상의 영향을 뿌리뽑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화를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며 〈반공〉사상을 뿌리뽑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7페지)

남조선인민들속에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 《반공》사상 등은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사상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일제가 패망한 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남조선의 친미반동세력에 의하여 깊이 부식되였다.

미제에 대한 환상, 사대주의사상, 《반공》사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인민들의 각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노예로 만들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다. 미제와 남조선의 친미반동세력들은 인민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 민족허무주의사상 등 반동사상을 미친듯이 퍼뜨리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발광적으로 퍼뜨리는 반동사상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그들을 혁명화할수도, 혁명투쟁에 나서게 할수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을 이러한 반동사상의 영향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고 놈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발가놓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정책을 똑똑히 간파하고 놈들의 기만책동을 주동적으로 짓부실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는 이 모든 사업은 반드시 혁명적실천과 결부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적실천이 대중을 의식화, 혁명화하며 그들을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는데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혁명적실천을 떠난 대중의 혁명화, 혁명력량의 장성이란 생각할수 없다. 대중은 혁명적실천을 통해서만 단련되고 검열되며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나는 것이다. 혁명투쟁은 대중을 평상시보다 몇배나 더 빨리 각성시키며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운다.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각종 투쟁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대중운동과

투쟁을 옳게 조직전개함으로써 원쑤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화하고 혁명력량을 믿음직하게 준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조직에 묶어세워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폭압통치와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만 인민대중을 혁명화하며 그들을 조직된 력량으로 준비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조건에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것은 현실적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방법, 높은 창발성을 요구한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의 정치사상사업, 즉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은 높은 혁명적정열과 창발성을 가지고 대중의 준비정도, 그들의 특성 등 구체적실정에 맞게 낮은데로부터 점차 높은데로 올라가면서 인내성있게 진행될 때에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 *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과 온갖 기만술책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은 더욱더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여가고있으며, 혁명력량은 빨리 자라나고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이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와는 판이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살판치는 암흑천지에서 살고있지만 항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을 가슴 가득히 안고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에서 힘을 얻고 의지를 키우며 투쟁의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4천만 겨레가 위대하신 수령님의 두리에 뭉쳤고 그리고 그이께서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태양과 같이 계시니 무한한 힘과 용기가 막 솟아오른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또한 그들속에서는 《그 어떤 곤난이 있더라도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나서겠다.》는 투쟁결의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흠모와 경모의 정은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더욱 믿음직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강력한 힘으로 뭉쳐 혁명의 길에 떨쳐나설 때 원쑤들의 아성은 부서지고 혁명은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투쟁의 결의를 가다듬고 영웅적투쟁에 일떠서서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란 없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게 되면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실현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그처럼 흠모하여 마지않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

고 송 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는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세계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매개 나라들이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데 대한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특히 오늘 세계혁명이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례없는 발전을 이룩하고있으며 각이한 부류의 혁명력량이 세계혁명의 대조류속에 합류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전선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매개 나라의 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반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감으로써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빨리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운동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해야 할 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매개나라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6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국제적성격과 그리고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호상관계를 밝혀주고있으며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해야 할 필연성을 가르쳐주고있다.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의 철쇄를 끊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그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국제자본은 온 세계를 예속시켜보려는 흉악한 야망으로 하여 련합된 세력을 형성하고있으며 세계 모든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압살하려 하고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의 세력을 짓부시기 위한 혁명투쟁은 자본의 직접적인 예속하에 있는 나라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

세계 모든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국제자본의 힘이 더욱 약화되고 그 지반이 허물어질 때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된것이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된것이다.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긴밀한 뉴대로 련결되고 국제적범위에서 힘을 합침으로써 국제혁명력량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제자본의 련합된 세력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지구상에서 온갖 착취와 억압을 없애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공통한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국제자본을 반대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며 그것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의 직접적인 동맹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만 그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국제적지원은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승리를 용이하게 하여주며 또한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의 사회주의건설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들의 혁명운동에 유리한 국제적국면을 마련하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들이 굳게 단결하여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따라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이미 혁명이 승리한 나라이거나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이거나 할것없이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혁명투쟁에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먼저 혁명이 승리한 나라들은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가 있음으로써만 이미 얻은 혁명의 승리를 공고발전시키고 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또한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먼저 혁명이 승리한 나라들의 실천적경험과 강력한 사상정신적 및 경제군사적 지원이 있음으로써만 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운동발전과 세계혁명력량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특히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혁명이 승리한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을 잡은 매개 나라의 인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믿음직한 후원을 받아야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참다운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을 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자기 나라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유리한 국제적국면을 이루어놓을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성과적발전을 보장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이와 같이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근본적리익으로부터 흘러나오며 그것은 개별적나라들과 세

계혁명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현시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기 위한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제기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성된 전반적정세는 세계 모든 반제력량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하자》, 173~17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력량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 그렇기때문에 놈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세계혁명력량의 단결을 방해하며 세계혁명력량을 분렬하여 각개격파하려고 악랄하게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세계혁명운동의 핵심력량인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리간과 반목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며 국제혁명력량을 약화시켜보려고 온갖 음흉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 굳게 뭉치는것은 미제의 각개격파전략을 짓부시고 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날카롭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국제혁명력량이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된 대오로 나갈 때 그 힘은 참말로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세계혁명력량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지역과 나라들에 힘을 집중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며 그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전략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국제혁명력량이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3대혁명력량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를 위한 국제적요인을 강화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과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혁명력량이 강화될뿐아니라 국제혁명력량도 더욱 자라야 한다.

물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이다. 그러나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은 국제적지원이 있을 때 더욱 힘있는것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패망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놈들의 패망과 밀접

히 련결되여있다. 국제혁명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갈수록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지반은 더욱 약화되게 되며 조국통일의 위업에는 더 좋은 정세가 조성되게 된다.

우리 인민과 온 세계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의 강화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며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더 많이 얻게 함으로써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침략자들을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고립약화시키며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원을 더 많이 얻어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는 이와 같이 세계혁명과 개별적나라들의 혁명발전의 근본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개별적나라들의 혁명과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데 대한 그이의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집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나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라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되여야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통일되여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국제주의적인것이며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불가분리적통일을 이루고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의 혁명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세계혁명은 그에 합류하고있는 개별적나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을 강화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세계혁명의 발전을 바랄수 없으며 세계혁명의 발전을 떠나서는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이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없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전반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세계혁명의 련관된 고리를 이루고있는 매개 나라들의 혁명운동을 적극 발전시키고 그 승리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앞당기자면 우선 매개 나라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져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의 지원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에 유리한 국제적조건을 조성하여주며 그 승리를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데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매개 나라들은 국제혁명운동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혁명투쟁도 잘 도울수 있다.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다른 나라 혁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세계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결국 자기 나라 혁명도 잘할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매개 나라 로동계급은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수행하여야만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참말로 공고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과 국제주의원칙을 정확히 결합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4페지)

오늘 세계에는 각이한 나라와 혁명력량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혁명투쟁을 벌리고있다. 매개 나라와 혁명력량들이 처한 위치와 활동하는 조건, 구체적임무가 서로 다른 형편에서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정확히 결합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고 다른 나라 혁명도 잘 도울수 있으며 또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실현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주성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중요한 요구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국제적련대성의 기초로 된다. 따라서 자주성을 강화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한것으로 되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자주성과 결합될 때 튼튼한것으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자주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민족리기주의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배반하여도 안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시종일관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가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다같이 훌륭히 이바지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또한 그이의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공동으로 미제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재촉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미제를 반대하여 세계의 광범한 반제반미력량이 공동으로 투쟁하는것은 국제혁명력량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 반미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범위에서 광범한 반미력량을 동원하여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큰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저한 반제반미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오늘 세계에는 사회주의국가도 있고 중립주의국가도 있으며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들의 투쟁은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

든 당파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력량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반제반미혁명력량을 수배, 수십배로 강화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짓부시는데서 불패의 힘을 발휘하게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의 반제력량이 공동전선을 이루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놈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할 때 이르는곳마다에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수 있으며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야망을 힘있게 짓부실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을 내놓고는 모든 력량을 다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일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국제반제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뜨며 놈들의 각개격파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뜨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들이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서로 힘을 합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력량으로 아무리 강대한 원쑤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국제적범위에서 련대성을 강화하고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전선에서 함께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뜨면 놈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 녹아나고야 말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미제의 각을 뜨는 투쟁에 유리한 국제적국면을 마련하여주며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시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계 모든 혁명력량이 반제반미투쟁의 기치하에 단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세계 모든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은 지구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체계의 전면적붕괴과정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빨리 이룩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속에서 날이 갈수록 빛나게 확증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사상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국제주의적의무라고 인정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우와 같은 책, 30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

시는 첫시기부터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 및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시였으며 국제적으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운동을 벌리는데서 선구자적모범을 보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정이였을뿐만아니라 그이의 위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이 빛나게 구현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 언제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철저히 서시여 중국인민과의 반일공동투쟁을 벌리시였으며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위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은 강도 일제를 성과적으로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의 해방을 앞당김에 있어서뿐만아니라 린접국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이 빛나는 전통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의 확고한 뿌리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자주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튼튼히 다지시였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들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뉴대를 더욱 강화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언제나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확고한 원칙과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 나라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진보적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의 우호적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는 적도기네, 챠드, 수단,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문화적교류도 더욱 확대발전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의 70여개의 나라들과 경제문화적교류를 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 우리 인민들간의 교류도 날로 활발하여지고 있으며 그들과의 친선적관계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지지는 계속 강화되고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은 국제관계분야에서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국면을 열어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혁명사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

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더욱 많은 나라들이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단결하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들에 대한 국제적지원은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력량이 굳게 뭉쳐 반제반미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세계혁명운동에 이바지하고계시는 위대한 공헌으로 하여 더욱 많은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받들면서 그이를 무한히 흠모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아갈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85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참다운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계속 강화하여나갈데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국제적으로 더 많은 벗들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도 세계혁명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국제혁명력량의 전투적련대성을 깨뜨릴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 세계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합된 힘으로 나아감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다.

근로자 제 3 호 (루계 33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2월 25일 발행 • 1970년 3월 1일
ㄱ—0367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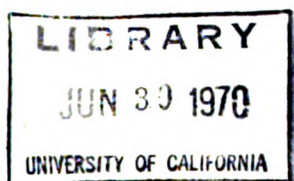
# 근로자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호 (337)

차 례

#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웨. 이. 레닌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김 일 성

오래지 않아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며 인류의 영재인 레닌은 자기의 온 생애를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쳤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남겨놓았다.

레닌은 온갖 기회주의적조류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맑스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고수하였으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화시켰다. 레닌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극도에 이르렀던 제국주의시대에 활동하면서 맑스가 발견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및 몰락에 관한 법칙에 따라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이며 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본질과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론증하였으며 처음으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에 관한 리론을 내놓았다. 그는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형의 맑스주의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와 전술적원칙들을 정식화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령을 만듦으로써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착취, 피압박 근로대중을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결전에로 불러일으켰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시기의 창조적맑스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리론과 전략전술이며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위력한 무기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현실은 세계를 변혁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학설로서의 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

있다. 레닌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는 지구우의 가는곳마다에서 높이 휘날리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더욱더 힘있게 추동하고 전인류를 광명한 미래에로 믿음직하게 이끌고있다.

레닌의 학설에서 식민지—민족문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레닌은 금융자본의 지배에 기초한 민족억압의 시기인 제국주의시기의 민족—식민지혁명리론의 정연한 체계를 창조하였다. 독점자본주의시기에 와서 세계는 극소수의 제국주의렬강들과 지구상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피압박민족들이 살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들의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레닌은 민족문제를 식민지문제와 결부시켰으며 그것을 구라파의 《문명한》 나라의 민족들에 국한된 부분적문제로부터 제국주의기반에서의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에 관한 전반적문제로 확대하였으며 식민지—민족문제를 프로레타리아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전반적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레닌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예비군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동맹군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로동계급은 사회배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어제까지 력사밖에 서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수억만 피압박민족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레닌은 민족—식민지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인 민족자결에 관한 맑스의 과학적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어느 한 민족에도 특권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소수민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조치를 불법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모든 민족은 국가적분리의 자유와 정치적자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선 민족들의 참다운 단결을 제창하였으며 《말로는 민족의 평등권을 인정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 민족의 몇몇 특권을 고집하며 (흔히는 인민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항상 〈자기〉 민족을 위하여 (즉 자기 민족의 부르죠아지를 위하여) 더 많은 리익을 얻는것, 제 민족을 리간시켜 그들사이에 장벽을 쌓는것, 민족적배타성을 발전시키는것 등등에 노력》(《레닌전집》, 조선문판, 제19권, 682페지)하는 협애한 민족리기주의와 부르죠아민족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레닌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특히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쳐 동방나라들은 세계제국주의렬강들의 식민지로 분할되였으며 아세아대륙은 세계자본주의렬강의 원료원천지, 자본수출지,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제국주의의 광대한 후방으로 전변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봉건사회내부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적지않게 싹트고있던 동방나라들의 경제는 자기 발전의 정상적길을 크게 저지당하였다. 동방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렬강의 압박과 착취의 강화, 아세아나라들의 사회경제발전의 억제는 불가피적으로 제국주의렬강과 이 지역 인민들사이의 민족적모순을 첨예화시켰다. 동방인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인민들보다 이중삼중의 혹심한 착취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민족적, 인종적억압을 당하였다. 제국주의렬강의 동방에 대한 침략의 강화와 아세아나라들의 식민지, 반식민지화 과정의 촉진은 이 지역에서의 계급적모순도 극도로 첨예화시켰

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은 토착반동지배계급들의 착취와 결합되여 더욱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식민지 리권과 세력권을 쟁탈하며는 제국주의렬강들 및 독점자본집단들 호상간의 모순도 이 지대에서 심하게 충돌되고있었다. 참말로 이 지대는 혁명을 분만하는 여러가지 모순의 집결처였으며 제국주의전선의 련쇄가 가장 약한 고리였으며 세계정치투쟁의 결전장이였다. 동방은 민족—식민지문제의 중심으로 되였다. 동방인민들은 세기적잠에서 깨여났으며 19세기말엽부터 아세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방이 각성하는 시기에 뒤이어 현대혁명에서는 모든 동방인민이 치부의 대상으로만 되지 않기 위하여 전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참가하게 될 그러한 시기가 가까와오고있다. 동방민족은 실지로 행동하며 매개 민족마다 전인류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가하기 위하여 잠에서 깨여나고있다.》(《레닌전집》, 조선문판, 제30권, 181페지)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10월혁명의 승리는 지금까지 중세기적정책에 의하여 몽매하여졌고 자본주의문명을 위한 거름으로만 되여온 동방인민들을 더욱 각성시켰으며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과 결합시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식민지—민족문제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에서 끝없는 힘과 용기를 얻고 10월혁명의 승리에서 투쟁의 옳바른 길을 찾은 동방인민들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단호하고도 과감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동방에서는 위대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아세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중국인민은 오래동안에 걸치는 반제해방투쟁끝에 마침내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뒤집어엎었다. 중국혁명의 승리는 그 의의로 보아 위대한 10월혁명의 다음가는 큰 국제적사변이였다.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민이 제국주의멍에를 벗어던지고 사회주의길에 들어선것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또하나의 커다란 돌파구를 낸것이였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력량관계를 사회주의편에 결정적으로 리롭게 전변시켰다.

영웅적월남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벌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동남아세아에서 첫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였다. 오늘 월남은 반제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되고있다. 바로 월남땅에서 반제혁명력량과 미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이미 국토의 5분의 4와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고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세웠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눈이길수 없는 심대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주고있으며 미제와 남부월남괴뢰들을 진퇴량난의 막다른골목에 몰아넣고있다.

라오스인민들은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국주

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날에날마다 투쟁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일본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반미, 반독점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타이와 말라이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필리핀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미제에 의한 나라의 정치, 경제적 예속을 반대하여 항쟁의 거리에 용감하게 떨쳐나서고있다. 캄보쟈인민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하여 싸우고있으며 인도, 쎄일론, 버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대렬에 합류하여 전진하고있다.

간고한 시련과 영웅적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전행정은 영생불멸의 레닌의 기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이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레닌의 사상에서 해방의 무기를 찾았으며 그 기치밑에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왔으며 창조와 승리의 력사를 개척하여왔다.

민족적비운이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혁명사상을 전략전술적지침으로 삼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15성상의 영웅적무장투쟁을 벌림으로써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8.15해방후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북반부에 믿음직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만적인 무력침공을 영웅적으로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그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세력도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미제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고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싸워 얼마든지 이길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주체적로선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완전한 자결권을 가진 그리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강한 자위력을 가진 사회주의 나라로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은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륭성발전하는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왔다. 1946년 10월 인민항쟁과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1960년 4월의 대중적인민봉기를 비롯하여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짓부시며 현남조선위정자들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련이어 일어난 남조선인민

들의 줄기찬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지금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반미, 반괴뢰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적인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심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 지역은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로,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고 만신창이 되였으며 사면초가에 빠지고있다. 수억만 인민들을 가난과 굶주림에서 헤매이게 하던 치욕스러운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오늘 동방에서 자기의 마지막시각을 살고있으며 그 완전한 청산이 일정에 오르고있다.

세계인구의 과반수와 방대한 자연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아세아대륙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를 격화시키고 제국주의를 그 후방으로부터 타격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지위를 강화하며 국제로동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외래침략자들의 억압과 략탈을 당하였으며 혹독한 민족적멸시와 인종적차별을 받아온 동방민족들이 오늘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류의 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동력으로 되였다.

레닌은 일찌기 《…박두하는 세계혁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최초에는 민족해방을 지향하였던 세계인구의 대다수운동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되여 우리가 기대하는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은 아주 명백하다.》(《레닌전집》, 조선문판, 제32권, 629페지)라고 하였다.

혁명적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인류의 현대력사는 날이 갈수록 레닌의 예언의 정당성을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아세아에서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는 반제혁명력량에 겁을 집어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고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고 뒤흔들리고있는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해외군사원조비의 대부분을 쏟아넣고있으며 여기에 숱한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해외침략무력의 3분의 2를 투입하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우고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

로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손쉽게 달성하려고 어리석게 망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가지고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축으로 아세아《반공》군사동맹을 꾸며내려고 발광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손아래동맹자, 침략적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아세아침략에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공공연히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미제의 웰남침략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로골적으로 다그치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아세아에서 이미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자기들의 처지를 구원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들은 아세아인민들의 더 큰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동방인민들은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이며 결사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종국적으로 무너뜨리고야말것이다.

쏘련인민은 레닌때부터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쏘련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의 우리 인민의 해방위업을 도와주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물심량면으로 커다란 원조를 주었다. 우리 인민은 쏘련인민이 준 국제주의적 지지와 원조를 잊지 않고있다. 조선인민은 반제반미투쟁전선에서 쏘련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쏘련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졌으며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은 앞으로도 계속 공고발전될것이다.

백전백승의 레닌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뭉친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혁명위업 만세!

#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7개년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으며 온 나라가 전례없는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면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협동농민들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난날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오늘도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를 세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뒤덮고있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현실은 바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으며 끝없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새생활을 마련하여주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영원히 그이의 명도를 받들고 살며 싸워나아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결의를 온 누리에 과시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40여년간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명도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과 번영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승리적로정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이 땅우에 빛나게 구현되고 우리 나라의 면모와 우리 인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영광찬란한 로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발아래 우리 인민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였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는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뿌리박힌 철석같은 신조, 그것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있을뿐이며 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진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할수 있다는것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받들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열의에 가득차있다.

## 1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40여년간 조선혁명을 명도하시는 전행정

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철두철미 로동계급의 계급적선으로 관통되여있으며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가장 철저한 혁명적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인 단계를 열어놓은 탁월한 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모든 력사적단계들에서 그 필승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위대한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확고한 초석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모든 사상과 리론, 방침들은 모두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의 근본원칙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훌륭히 풀수 있게 하는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창조적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해방후 20여년동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전개하여왔는데 확실히 이 사상이 조선혁명을 가장 승리적으로 이끌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상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을 견지할 때에만 리론과 실천에 대한 교조주의, 사대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여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혁명의 전략전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구체적방도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을 견지할 때에만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민족적특성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실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립장과 원칙적태도를 규정하여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운동은 그 휘황한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는 불패의 사상적기치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이와 같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는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고 그것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에 그처럼 위대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

상이 위대한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의 모든 발전단계—반제민족해방투쟁단계, 민주주의혁명단계, 사회주의혁명단계,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과정에서 축적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리론실천적 업적과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한 사상이며 혁명투쟁의 모든 근본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사상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선 민족적독립을 위한 해방투쟁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이며 전략전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것은 식민지나라의 인민이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무장투쟁을 벌려 민족적해방을 실현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이 처음으로 창시되고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이 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혁명적폭력으로써 제국주의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여야 한다는것, 무장투쟁을 정치투쟁과 결합시키며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것,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광범한 반제력량을 단결시켜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등이다.

반제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력사상 전례없이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의 폭풍속에서 이룩되고 승리한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완성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이며 전략전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이 자유와 행복,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 가장 빨리 힘차게 나아갈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입니다.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버림으로써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0페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나라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이 민주주의적변혁을 처음으로 가장 철저하게 실현한 우리 나라의 위대한 경험을 일반화한 심오한 사상을 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이 고전적으로 천명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분쇄할데 대한 문제,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의 소유를 청산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할데 대한 문제, 근로자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여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민족간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자립적인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

풍이며.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유와 행복, 번영을 이룩하는 참된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는 자본주의적관계가 늦게 발전하고 생산력발전이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한 력사적경험이 일반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식민지농업국가의 매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하였으며 세계에 자본주의가 아직도 상당한 힘으로 남아있는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0페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생산력발전수준이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사회주의적변혁을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기술적개조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할데 대한 문제, 자체의 경험을 창조하여 실정에 맞는 협동화의 형태와 방법, 속도를 옳게 규정하는 문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결합시켜 관철하는 문제, 협동화운동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문제, 자본주의상공업을 리용하고 제한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경리로 개조하는 문제, 경리형태의 개조를 인간개조와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등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위대한 사상이며 특히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근본방도를 명시해주는 창조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이며 전략전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완전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이 주어져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환되였으며 일련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은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일정에 올려놓았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리론과 방법, 전략과 전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집대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이 명백히 천명되였으며 리론실천적으로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와 계급투쟁,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새롭게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력사적과업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의 본질과 계선문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문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의 그의 임무에 관한 문제 등을 창조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하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시고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다는것을 밝히시였으며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력사적근원과 본질,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과학적으로 천명되였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천명되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문제를 처음으로 밝히시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천명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원칙적방도를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문제에 정연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제국주의와 대치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조건하에서 전략적요구로 제기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문제를 새롭게 천명하시였으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제국주의침략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어떠한 정황하에서도 확고한 자위적태세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셨다. 특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당건설, 당의 령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이께서 창조하신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의 전투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은 바로 이와 같이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에 걸치는 혁명과 건설의 완성된 리론이며 정치, 경제, 사상, 문화, 군사, 대외사업 등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정책에는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사상사업을 하는 방법, 군중과의 사업방법, 반혁명과의 투쟁방법도 있으며 공산주의교양에 대한 문제, 공업정책, 농업정책, 문예정책, 교육정책, 대외정책 등 없는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해명되여있을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밝혀져있습니다.》

참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의 전략과 전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그리고 당건설, 국가건설 등 혁

명과 건설의 전반적분야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리론실천적해명을 주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과학적인 리론이며 전략전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40여년동안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싸운 피어린 투쟁의 력사적총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40여년동안 공산주의운동을 위하여 싸웠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여러번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서 나타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서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투쟁을 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0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혁명은 가장 악독하고 흉악한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온갖 기회주의적조류들과의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견결한 반제혁명사상과 40여년간의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쌓으신 고귀한 투쟁경험에 기초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문제가 천재적으로 해명되였으며 세계혁명에서 사회주의진영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미제의 세계전략을 명철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철저하게 혁명적이며 가장 정확한 반제반미투쟁로선과 투쟁전략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미제에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 등이 새롭게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견결한 반제적립장과 혁명사상을 구현한 반제반미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은 전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 멸망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 민주주의와 평화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투쟁로선이며 전략전술이다. 바로 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되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방침들은 맑스-레닌주의와 국제혁명운동발전에 대한 불후의 공헌으로 되며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혁명리론의 위대성은 또한 그것이 실천에서 나왔고 실천에서 검증된것이며 우리 나라와 국제혁명의 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고있는 사상이며 리론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든 탁월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우리 나라 혁명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한것이며 그것을 집대성한것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혁명운동의 발전법칙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원쑤들과의 준엄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독립되고 번영룽성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장래를 구상하시였으며 엄혹한 피의 교훈과 경험을 통하여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혁명리론을 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시기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 그리고 해방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가장 과학적인 리론과 로선, 방침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로작들에서 내놓으신 천재적사상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리론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세계혁명 발전에 관한 방침들도 모두 우리 당의 실천활동경험을 개괄하여 천명하신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와 세계혁명운동의 현실이 제기하는 시대적문제들에 대한 천재적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든 리론적해명들은 그것이 실생활에서 검증된 그이의 심오하고 탁월한 사상과 리론, 방법 그리고 오랜 혁명투쟁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불패의 진리성, 어떠한 힘으로도 극복할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이와 같이 혁명실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있으며 산 경험을 집대성한것이기때문에 그것은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의 수립으로부터 그를 관철하기 위한 방도와 일군들의 사업방법, 사업작풍등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해명을 주며 실천에서 그처럼 위대한 성과를 낳고있는것이다.

오직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해결하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장투쟁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였으며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이 일어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해방직후 우리 당이 재빨리 창건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짧은 기간내에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북반부에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가 축성된데서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온갖 착취의 근원을 청산하는 사회주의혁명이 단시일내에 철저히 수행되고 우리 나라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데서, 일제와 미제의 파괴로 페허로 되였던 이 땅우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이 마련되고 과학, 교육, 문화가 개화발전한데서 찬란한 열매를 맺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목창적으로, 가장 정확히 해결하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하여나아가고있는 우리 현실속에서 날로 더욱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우리 혁명발전의 전력사는 우리 인민이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확고히 관철함으로써만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지난날 뒤떨어지고 남에게 수모받던 우리 나라를 세계인민들이 우러러보는 《주체사상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되게 할수 있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준엄한 난국을 헤치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불멸의 위대한 사상이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에게 백전백승의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며 혁명적 정열과 지혜를 주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 2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몸을 바쳐 싸울것을 굳게 다짐하여나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최고의 의무이며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이다.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수령의 참된 전사로,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어떤 모진 풍파속에서도 확고한 진로를 알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전진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당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전개하여나갈수 있다.

그리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전사회의 혁명화를 다그치고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반석같이 다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할 때 우리 당과 인민은 어떠한 시련도 박차고 백전백승할것이다.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와 내외의 정세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아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

당면하게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발동되여 다가오는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함으로써 1970년대의 첫해를 우리 혁명발전에서 또하나의 력사적인 승리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으며 놈들의 침략책동이 격화되고있는 긴장된 정세하에서 방대한 과업을 해결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수령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때만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를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그 위대성과 정당성을 똑똑히 파악할수 있다.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밖에는 그 어떤 다른것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있으며,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만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자신을 혁명화할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당이 내세운 모든 문제를 훌륭히 관철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해서는 그이의 교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알수 있으며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든지 옳바른 자를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다.

누구나 할것없이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무엇보다먼저 학습을 잘하여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수령께 어떻게 충실하며, 당과 혁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주신 교시들로부터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주신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자기 부문에 주신 교시는 물론 수령의 모든 교시들을 전면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모든 연설들과 보고, 결론들, 수령의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거기에 제시된 방침들을 빠짐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에는 해당시기뿐만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위대한 로선과 정책, 방침들이 천명되여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한 학습을 심화할수록 더욱 새롭고 풍부한 혁명의 량식을 얻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학습하는것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위하며 그와 배치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과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견결히 투쟁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고 우리 당의 정책과 어긋날 때에는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줄 아는 사람,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바쳐싸우는 사람만이 수령과 당에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때 어떤 환경에 부닥쳐도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여나가는 혁명가적품성을 가져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것은 수령의 혁명력사, 그이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연구하며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

는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여 민족적번영의 새시대, 로동당시대를 마련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학습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이께서 장구한 기간의 혁명투쟁, 특히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위대한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심오히 학습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한 령도와 천재적인 전략전술,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덕성의 산 모범을 배우며 거기에 빛나게 구현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체득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연구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이께서 해방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우리 혁명의 보위자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리고 전후의 폐허우에서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승리에로 령도하신데 대하여 깊이 학습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을 이끄시고계시는데 대하여, 또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침략을 격파하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으며 오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로선과 전략을 제시하시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데 대하여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의 로정을 더듬으면서 거기에 빛나게 구현되여있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며 스승이신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심장깊이 느낄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학습하고 따라배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리하여 자신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할뿐아니라 우리 당이 영원히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령도되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며, 우리 나라가 영원히 그이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위대한 국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대를 이어가면서 투쟁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튼튼히 무장하고 전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나운 풍파가 밀려오고 어떠한 난관이 닥쳐와도 다 물리치고 혁명과 ·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이며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4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전력사가 실증하여주고있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밝게 비쳐주는 한길을 따라 전진하는 조선혁명은 승승장구할것이며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오직 더욱 큰 승리와 보다 행복한 미래만이 약속되여있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 레닌의 기치는 영생불멸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전세계 진보적인류와 함께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며 전세계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수령이며 스승인 울라지미르 일리치 레닌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웨. 이. 레닌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모든 나라 피압박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치시였다.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인류력사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피착취, 피압박 인민대중의 근본적리익과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해방투쟁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었다.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레닌의 이름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하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일 레닌이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를 새로 내놓고 그것으로 로씨아로동계급을 무장시키지 않았더라면 로씨아에서 10월혁명은 승리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따라서 10월의 산아인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일정에 오른 시기에 활동한 레닌은 맑스, 엥겔스의 학설을 계승발전시켜 레닌주의를 창시하시고 그것으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무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 10월혁명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고 세계혁명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웨. 이. 레닌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정력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레닌주의를 창시하시고 발전시켰으며 그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제국주의전쟁과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 제2국제당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함이 없이는 자본주의,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레닌은 그 누구보다 도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깊이 이것을 통찰하시고 대중적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적《리론》과 행동, 그들의 사회배외주의, 사회평화주의, 그들의 변절행위를 여지없이 폭로하시였다.

웨. 이. 레닌은 불요불굴의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제2국제당기회주의의 진탕속에 파묻혀있었던 맑스주의의 혁명적진수를 부활시키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시였으며 자본주의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웨. 이. 레닌은 제2국제당기회주의와 국내에서의 그 변종들인 《경제주의》, 《멘쉐위즘》 등등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기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혁명적맑스주의당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고 새형의 맑스주의당을 창건하시었다.

레닌은 혁명적맑스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선봉대로, 조직된 부대로,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로 되여야 하며 그것은 그 대렬의 확고한 조직사상적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이 있어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고 기회주의도 극복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웨. 이. 레닌은 처음으로 새형의 맑스주의당인 볼쉐위크당을 창건하시고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로동계급과 수백만 근로대중을 그 주위에 묶어세우시였다.

레닌은 맑스의 학설을 발전시켜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으로 당과 로동계급을 무장시키시였다.

레닌은 자본주의발전의 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본질과 모순, 그 력사적지위와 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반동적, 략탈적, 침략적 본성을 폭로하시면서 독점자본주의의 정치적특징은 민주주의로부터 전면적반동에로의 전환이며 한줌도 못되는 제국주의렬강의 식민지략탈은 서방세계를 수억의 비문명민족들의 피를 빨아 살찌는 기생충으로 전화시켰다고 강조하시였다.

레닌은 당시에 이미 인민들에 대한 강도적략탈과 야만적인 살륙, 끊임없는 침략속에서 자라난 미제국주의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그 야수성과 파렴치성을 신랄하게 폭로하시였다. 그는 제국주의전쟁을 통하여 더욱 비대해진 미제국주의 억만장자들의 재부의 한딸라, 한딸라는 전쟁에서 흘린 수천만 사람들의 피로 젖어있다고 규탄하시였으며 미국에서처럼 그렇게도 자본의 권력, 전사회에 대한 한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의 권력이 란폭하게 행사되는 나라는 없다고 발가놓으시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려는 일체 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시였다. 그이는 국제적독점이 형성되는 조건에서 그 어떤 《조직된 세계경제》를 실현할수 있고 전쟁을 피할수 있는듯이 떠벌인 변절자 카우쯔끼의 《초제국주의론》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시였다.

웨. 이.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의 법칙을 발견하시였으며 이로부터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레닌전집》, 제21권, 409페지)

레닌은 제국주의단계에서는 자본주의가 비교적 약하게 발전한 나라들에서라도 세계제국주의전선의 약한 고리에서 이를 돌파하고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레닌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승리의 가능성과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새로운 혁명적인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당과 로동계급에게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이 리론은 세계혁명발전에 대한 전망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본의 전선을 격파할 혁명적결단성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웨. 이. 레닌은 볼쉐위크당을 령도하고 로동계급과 수백만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로씨야에서의 두차례의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영명한 령도로써 혁명의 주객관적정세가 조성되자 때를 놓치지 않고 무장폭동을 일정에 올리고 직접 혁명의 폭풍우의 진두에 서시여 그 승리를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웨. 이. 레닌은 력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전선의 련쇄를 끊어버리고 사회주의10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로씨야에서 첫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였다.

사회주의를 리론으로부터 현실로 전변시킨 사회주의10월혁명은 세계혁명의 시초, 세계에서 자본주의멸망과 사회주의승리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사변이였다.

웨. 이. 레닌은 맑스의 사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정연한 리론을 제시함으로써 주권을 전취한 당과 로동계급에게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레닌의 리론은 레닌

주의의 초석을 이룬다. 레닌은 자본의 철쇄를 분쇄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낡은 국가기구를 혁명적으로 파괴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철저히 진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본질을 밝히면서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무기이며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폭력에 의거하는 진압의 기관이며 새로운 조건에서의 계급투쟁의 계속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는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며 그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시였다.

레닌은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로 되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순수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카우쯔끼도배의 궤변을 무자비하게 폭로하시면서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된 로동계급상층부의 변절자적리론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그는 계급투쟁의 승인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승인에까지 확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맑스주의자라는것을 강조하시였다.

레닌은 또한 《좌익》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소아병적 언사와 행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실로 레닌의 사상과 업적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정신과 투쟁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정치적우매성, 비속성, 기회주의 등을 반대하는 끊임없는 투쟁, 이것은 자기의 운명이라고 그이는 말씀하시였다.

웨. 이. 레닌은 영웅적로씨야로동계급과 수백만 피압박, 피착취 대중을 볼쉐위크당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워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요람에서 압살하려던 제국주의강도들의 무력간섭과 국내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10월의 전취물인 쏘베트국가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레닌은 외국무력간섭과 공민전쟁에서 승리한 쏘베트정권앞에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집단화, 문화혁명 등 사회주의건설강령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쏘련인민은 위대한 레닌이 창건육성한 공산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포위속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내외의 원쑤들의 발악적인 반항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업집단화의 어려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웨. 이. 레닌은 쏘베트국가를 창건하고 육성강화함으로써 지주, 자본가의 지배는 영원한것이 아니며 근로인민의 락원은 그들자신의 투쟁에 의하여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주시였으며 이리하여 전세계 피압박대중의 심장에 해방에 대한 희망이 불타오르게 하시였다.

레닌은 민족문제에 관한 맑스의 학설을 제국주의시대의 력사적환경에서 가일층 발전시켜 민족—식민지문제에 관한 과학적리론과 전략전술을 작성함으로써 전세계 식민지나라피압박인민들의 해방의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그이는 제국주의시대에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전쟁이 불가피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은 그들을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레닌은 민족—식민지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인 민족자결에 관한 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면서 어느 한 민족의 특권도,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레닌은 민족—식민지문제를 제국주의 전복문제와 련결시켰으며 그것이 세계 프로레타리아혁명이라는 전반적문제의 한 구성부분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레닌은 세계력사의 래일은 식민지나라인민들이 자기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벌리게 될 그러한 날로 될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특히 동방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것이 앞으로의 세계혁명발전에서 비상히 큰 혁명적역

함을 놓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웨. 이. 레닌은 또한 제국주의의 불가피적멸망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당하고 압박받는 로동자들의 혁명적공세가… 수억만 사람들, 즉 이제까지 력사밖에 서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오던 수억만 사람들의 혁명적공세와 결합될 때 세계제국주의는 타도되고야말것이다.》(《레닌전집》, 제31권, 272페지)

프로레타리아혁명과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결합시킬데 대한 웨. 이. 레닌의 사상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와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었다.

실로 레닌의 사상은 낡은 착취사회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학설이며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혁명적인 학설이며 국제로동계급과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 국제주의적학설이다.

위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이신 레닌은 로씨야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다른 나라 로동계급과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할데 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고 무장시키시였다.

레닌은 쓰면 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결코 그자체가 최종목적인것이 아니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전제로 되는것이며 따라서 먼저 승리한 나라 로동계급은 자기 한 나라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것을 실현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서의 혁명발전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까지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로동계급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라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웨. 이. 레닌의 사상은 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자본의 요새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거대한 혁명적변혁을 이룩하게 하였다.

레닌의 기치밑에 동방과 서방의 수많은 나라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이 해방투쟁의 길에 떨쳐나섰다.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혁명이 승리한 이후 세계혁명은 앙양의 일로를 걸어왔으며 제2차세계대전을 거쳐 사회주의는 세계적체계로 전변되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의 지배와 전횡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은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다.

세계혁명의 전반적발전은 계급해방과 식민지민족해방에 관한 레닌의 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일제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레닌의 사상, 10월의 기치에 고무되면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레닌의 불멸의 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해방투쟁의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찾았으며 혁명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조선혁명의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작성하시였으며 세계식민지나라들중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조선혁명을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자주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무장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

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로선이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당시 조선혁명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적성격과 민족해방의 당면임무에 알맞게 혁명정권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독창적로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를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추진시키시였으며 무장투쟁과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통하여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하여 모든 반제애국력량을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를 격멸소탕하는데 총동원할데 대한 가장 정당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구현하심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민족통일전선문제를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의 해독적책동을 반대하는 비타협적투쟁을 통하여 구현하신 이 모든 탁월한 로선과 전략은 조선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기치로 되였으며 나아가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식민지피압박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였으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무한히 고귀한 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도 일관하게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항상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하에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혁명발전의 전도를 천재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주동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짧은 시일에 가장 철저히 해결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북반부를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강력한 기지로 만들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군사과학을 새롭게 발전시키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원쑤격멸의 성전에 조직동원하심으로써 미제침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한 우리 인민은 국제주의적지원을 받으면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자유와 독립,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인민들에게 미제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혁명투쟁의 폭풍속에서 세련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력사적승리에로 이끄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기를 열어놓으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실로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강의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진개력을 가지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모범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사회경제발전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천명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은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과 협동화에 관한 레닌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신 탁월한 모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인 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인 로선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21~22페지)

실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 혁명적로선이며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처지에서 사회주의를 가장 빨리, 가장 훌륭히 건설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비교적 낮다 할지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또한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였을 때에는 사회주의적개조를 미룰수는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7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실시할데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방침은 먼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며 북반부혁명기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천리마대진군을 일으킴으로써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나라의 공업화의 토대를 훌륭히 마련하였으며 이리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해명을 주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신다.

일찌기 웨. 이. 레닌은 아직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시기에 활동하면서 로동계급의 손에 주권이 있고 로동계급과 수백만 농민대중과의 튼튼한 동맹이 있는 한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할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었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면 착취계급을 청산하여야 할뿐아니라 계급자체를 폐절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바로 어떤 로정을 밟고 어떤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무계급사회,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천재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있어서의 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과학적인 규정을 내리시였으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는 로정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방도들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면서 우선 계속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였다.

웨. 이. 레닌은 계속혁명에 관한 맑스의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전화성장에 관한 창조적인 리론을 작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혁명을 포기함이 없이, 중단함이 없이 자기 나라와 세계에서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혁명적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를 천재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와 레닌의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완성시키고 계급폐절의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는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올리는데 있으며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계급투쟁이 있는 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는 새로운 창조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이 사상은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가일층의 발전완성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가장 훌륭한 길로 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로선과 그 실현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시면서 공산주의는 쏘베트정권에 전국의 전기화를 가한것이라고 하신 웨. 이. 레닌의 사상에 심오한 해석을 가하시고 이를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레닌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다음 쏘베트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말하면서 쏘베트정권에다 온 나라의 전기화를 가하면 공산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레닌의 이 명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완수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완수하여 매우 높은 생산력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아야만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9페지)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문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고 당의 령도방법과 령도체계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 당건설리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이 로동계급의 전위대, 조직된 부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가장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혁명위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탁월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진압하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와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그리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올리는데서 실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또 창조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뒤떨어졌던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고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북반부혁명기지를 반석같이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이 모든 거대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 독창적인 로선, 정책의 빛나는 구현이며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발전시켜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수행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천명하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20여년에 걸치는 투쟁력사는 바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1946년 10월인민항쟁과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1960년 4월인민봉기를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시위하였다. 이 투쟁과정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걷잡을수 없이 허물어져가는 식민지통치체계를 유지하며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매국역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발전시킴으로써 조만간에 자체의 힘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며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위업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고야말것이다.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

고는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혁명적폭풍우의 시대,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시대라고 규정하시였다.

레닌이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론증한 제국주의는 바야흐로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멸망하여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의 세계제국주의의 특징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기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자면 무엇보다도 세계제국주의의 괴수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길잡이로 복무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비롯한 그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반제력량이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현시기 미제의 침략적인 세계전략과 반미투쟁의 현상태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반미투쟁의 근본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혁명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전략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놈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페지)

이 전략은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을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전환시켜 사방에서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그 숨통을 죄여들어가는 명철한 전략이며 미제의 세계전략전반을 좌절시키는 진공적전략이며 인민들이 매전선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침략자들을 때려눕힐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전략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생동한 경험에 기초하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인 전략적방침으로서 전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왜, 이, 레닌이 그처럼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실천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신데 기초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의 하나로 규정하시였으며 민족해방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과 그를 완수하기 위한 력사적과업 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식민지예속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폭력에 의거함으로써만 원쑤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짓부시고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새로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반미

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형제당들과 형제나라들이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진영전체를 옹호하여 투쟁하며,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자주성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튼튼히 고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고 반제반미투쟁과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의 길,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그 모든 탁월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들,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그 밑에서 이룩된 우리 인민의 모든 성과들은 그이께서 창시하시고 시종일관 견지하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8～21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매개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은 혁명의 주인이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창조적적용과 창조적발전을 보장하며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최대한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협조와 단결을 진실하고 공고한 것으로 되게 하는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혀준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 혁명적인민들의 경험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이며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공헌을 하시였다.

*　　*

레닌의 사상, 레닌의 이름은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오늘 지구상에는 레닌이 기대한바와 같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쓸어버리고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혁명의 대조류가 홍수처럼 밀려오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나 그 어떠한 힘도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모든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력사의 장엄한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며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굳게 단결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 전세계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력사적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 특히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이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이 있고 인민주권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이 있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장래가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그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혁명의 길에 그 어떤 사나운 풍파가 닥쳐오고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갈수 있다.

## 1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전통은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혁명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발전한다.

로동계급이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혁명의 근본인 혁명전통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마치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부단히 영양소를 얻어 무수한 아지를 뻗으면서 싱싱하게 자라듯이 혁명투쟁은 혁명전통이 억세고 튼튼해야 어떤 풍파도 시련도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인 로동계급의 주권도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솟아나고 공고발전되는것이다. 또한 혁명전통은 후대들에게 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의 드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 책임감을 간직하게 하며 대를 이어 선렬들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아갈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혁명전통의 창시와 그 계승발전에 관한 문제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위업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전통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반대로 혁명의 온갖 배신자들은 례외없이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반드시 혁명의

근본이고 뿌리이며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남아있게 되는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서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전통은 결코 아무때나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전통은 철저하게 로동계급의 계급적성격을 띠는것만큼 그것은 로동운동, 공산주의운동이전시기에는 이룩될수 없다.

또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과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을 담고있는것만큼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떠난 로동운동, 공산주의운동행정에서는 이룩될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전통은 오직 그 나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로동계급의 수령들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모든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인민대중에게 정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끕니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들은 투쟁무대에 등장하면서 선행한 혁명운동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혁명승리의 모든 요인들과 조건들을 마련한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자기나라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킨다.

또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꾸리며 대를 이어 계승할 업적과 경험을 마련한다.

이러한 수령은 또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지도 원칙과 방법을 창조한다.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항구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위대한 수령은 바로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재부인 혁명전통을 창시한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추대되는것이며 대대손손 영원히 경모하는 위대한 수령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유일한 혁명전통이 창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2페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인민은 오랜기간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투쟁하여왔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도 있었으며 3.1봉기와 같은 전민족적반일항쟁도 있었다. 이 운동들은 부르죠아민족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의 장성을 반영하여 공산주의운동도 벌리였다. 그러나 이 운동 역시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였고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운동들에서는 우리 당이 계승할만한 그 어떤 업적도 징신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우리 인민이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바로 그때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나서시였다.

조선혁명은 오직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된 때로부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승리적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세고 튼튼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 그리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난국을 뚫고 승승장구할수 있었으며 이 승리적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다섯살 때에 벌써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령도하시여 간악한 일제를 타승하고 마침내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전력사적행정은 곧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형성되는 위대한 행로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된 력사적터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운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그것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의 쓰라린 고통을 심각히 체험한 가장 전형적인 혁명적가정이였으며 또한 온갖 시련과 풍파속에서 혁명의 위업을 대대로 계승해나간 불굴의 혁명적가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반일애국사상과 혁명적계급의식이 강하시였으며 부모님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숭고한 혁명사상을 이어 원대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로, 절세의 애국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자라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찬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이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철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사업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몸소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군중을 혁명화하시고 대중을 조직적으로 단합시키시였으며 대중지도의 원칙과 방법의 원형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에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4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진행된 력사상 최초의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가

장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매단계, 매시기마다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과 과업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으며 친히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그리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담겨져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사상,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종일관 조선혁명은 오직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조선혁명이 령도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결합되게 되였으며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적독립을 달성하며 장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데 대한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지도로선과 전략전술, 방침들이 제시되고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투쟁하는 철저한 반제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실현할수 없다고 가르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철저한 혁명정신으로 강도 일제를 무자비하게 족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천재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면서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며 그 어떤 곤난도 뚫고나아가는 위대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구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 및 혁명적의리,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결합시킨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은 이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빛나는 구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존경하였으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또한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내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격멸소탕하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루어놓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혁명로선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와 당사업경험, 인민정권건설을 위한 확고한 기초축성과 인민정권사업경험, 근로단체건설과 그 사업경험, 혁명무력건설과 군사활동의 풍부한 경험, 통일전선운동과 그 사업경험 그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총체를 령도하신 경험 등 조선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히 귀중한 업적과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철저한 혁명적 군중로선과 군중관점,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구현하시여 우리 당이 계승한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전통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다바치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이 구현된 결과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와 같이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 특히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유일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대를 이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2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것으로 하여 가장 위대한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심화발전시킨 사상이며 제국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일관하고있으며 그 진수를 이루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체확립문제를 조선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시고 시종일관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도록 령도하시였으며 그처럼 어려운 조건하에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는 또한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철저한 반제사상,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철저하게 반제적이며 혁명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고있기때문에 그처럼 위대한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또한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계최초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혁명업적과 경험을 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들이 군중속에서 선전사업, 교양사업은 어떻게 하고 각계각층군중들과의 통일전선사업은 어떻게 하였는가, 유격대조직은 어떻게 하였는가, 유격대가 처음에 일을 어떻게 시작하였고 투쟁은 어떻게 하였는가, 부대내에서 정치교양사업은 어떻게 하였으며 대원들에게 적에 대한 경각성과 적개심은 어떻게 높여주었는가, 적군을 와해하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하였는가, 반간첩투쟁은 어떻게 하였는가, 반민생단투쟁경험 즉 반민생단투쟁에서의 과오는 무엇이며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침은 어떻게 세웠는가, 적이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할 때 대응조치는 어떻게 취했는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투쟁경험을 쓸수 있는 제목은 아마 수십, 수백가지라도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투쟁 경험과 업적들이 혁명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적으로 풍부하게 창조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 그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하려는 력사적과업의 성격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단순한 군사활동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종국적목적으로 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인민대중의 정치, 경제적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을 가장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위대한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초석이며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인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으로부터 당, 정권, 근로단체, 혁명무력건설과 통일전선사업, 사회경제적개혁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혁명업적과 경험들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이와 같이 혁명투쟁의 모든 령역을 다 포괄하는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업적과 경험들로 충만되여있기때문에 그처럼 위대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은 또한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력사상 가장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이기때문에 가장 심각하고 감화력이 크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들만이 소유할수 있는 가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한히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며 겸손하시고 소박하신 진정한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바로 이처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이끄시였기에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시련을 이겨나갔으며 가장 준엄한 시련속에서 더없이 심각하고 감화력이 큰 혁명정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투쟁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형용할수 없습니다. …빨찌산들은 온갖 곤난을 이겨내면서 1~2년도 아니고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김일성서작선집》, 제2권, 7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세계혁명력사에서 그 류례가 드문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매걸음은 어려운 풍파를 뚫고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는 준엄한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거느리시고 이 엄혹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완강한 혁명적의지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이겨나가시였으며 항상 대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들과의 혈연적인 련계속에서 살며 일하며 싸우는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및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자들의 동지적관계,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이처럼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고 근로단체를 조직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할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통일전선경험과 대중전취사업경험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모든 민주력량을 혁명의 편에 전취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을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이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처절한 반제투쟁, 인민의 원쑤를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세계평화와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내에 확고한 정치적자주성과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 전인민적방위체계에 기초한 자위적국방력, 그리고 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내외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도, 우리의 벗들이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한없이 부러워하는것도, 적들이 우리를 그처럼 두려워하는것도,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깊고 억센 혁명의 뿌리가 있으며 거기에서 솟아난 불패의 맑스-레닌주의당, 조선로동당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매우 심각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그리고 반제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거기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영생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들과 투쟁정신, 풍부한 경험들이 담겨져있다.

그러기에 오늘 전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더불어 그이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있으며 그것을 혁명실천의 거울로 삼고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 본질적특성과 보편적의의로 하여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며 혁명투쟁의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며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큰 영광이며 더없는 자랑이며 의무이다.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그 어떤 간악한 책동도, 투쟁의 앞길에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다 물리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당의 투쟁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며 당이 이루어놓은 투쟁업적을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1페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는것은 바로 그것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하는것으로 되며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고수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이 바로 당의 존망,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하고있는 유일한 혁명전통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뿐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은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진정한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았고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 로동당시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가르치심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게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였다. 우리는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음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하며 일편단심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더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담겨져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학습을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하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대대손손 영원히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나아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 계급교양사업의 옳은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

정 해 섭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열다섯해전 당중앙위원회 1955년 4월전원회의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전원회의가 소집된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있었다. 이 력사적변혁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공화국의 위력이 불패의것으로 장성강화됨에 따라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도 또한 우심하였다.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서 온갖 기회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정책을 시비하여나섰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천재적인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을 가지시고 혁명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큰 혁명과업을 앞두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대중을 각성시키며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시는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교시는 계급교양사업의 필요성과 계급적정치교양사업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내용, 구체적인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혁명이 처한 간고하고도 복잡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우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한 장기적인 투쟁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우리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여 그들을 근로대중의 선두에서 투쟁하는 철저한 혁명투사로 단련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선진적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그리고 낡은 사회에서 넘겨받은 자본주의적사상잔재를 사람들의 머리에서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 사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0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조국을 통일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식으로 튼튼

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 앞에는 조국이 분렬된 상태에서 전국적범위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과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장기적이고 복잡하며 간고성을 띤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조국의 분렬은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뿐만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행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기본적인 장애로 되였다.

세계제국주의의 원흉 미제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남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전변시켰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장기성을 띤 간고한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하여야 하였다.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놈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조국의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위한 전민족적투쟁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전체 근로인민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날카로운 계급투쟁이다. 바로 이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투쟁에로 궐기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칠저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에서 우리 혁명발전의 이와 같은 요구와 함께 특히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당시의 조건과 과거 우리 나라 로동운동발전의 력사적특수성,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내부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주위에 집결된 전체 근로인민의 창조적열성을 동원하여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각성을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9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할 때라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어떠한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근로대중의 의식수준과 계급적각오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계급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혁명적자각이 높지 못한 군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놀수 없다.

대중의 이러한 계급의식과 혁명적자각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이 그들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야할 요구는 더욱 높아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각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이는 우리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임무를 제기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99페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그 이전의 다른 모든 혁명과는 달리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영원히 청산하고 모든 인민의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하는 력사적변혁과정이며 광범한 근로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기때문이

다. 이 시기 착취계급은 제놈들의 종전의 지위와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발악하여 나선다. 특히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민주개혁의 결과 청산된 지주계급과 예속자본가,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기타 반동분자들은 자기의 옛처지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려는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여나섰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은 또한 오랜 력사적기간을 통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와 낡은 습성들을 완전히 없애는 치렬한 투쟁이며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들은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데 커다란 장애로 되지 않을수 없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을 끊임없이 침투시키며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적대분자들을 사촉하여 각종 파괴암해책동을 강화하는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에서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반동사상의 영향을 철저히 막고 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계급적각성이 요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발전의 객관적현실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계급적각성을 요구하고있으나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임무에 비추어볼 때 아직 뒤떨어져있었다.

더우기 우리의 로동계급은 과거 자기의 전위대인 혁명적당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우리의 적지않은 당원들은 실지투쟁에서 단련되지 못했으며 사상리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로작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계급교양사업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계급교양사업의 기본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은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천과 투쟁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학설과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하여 연구할것이며 당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우리 나라의 생동한 현실생활과 실지투쟁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1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당사상사업, 계급교양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사상사업을 혁명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는것을 밝히신 위대한 사상이다.

계급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상교양사업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이 근로대중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는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있어서의 각 계급들의 처지와 호상관계 등을 로동계급의 계급적

립장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기 위한 정확한 관점과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당사상사업, 계급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맑스-레닌주의당의 대중교양사업은 자기의 목적을 다할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동원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사상사업, 계급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 자기 인민의 혁명투쟁력사를 가지고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학습에서 자체의것을 많이 배우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자체의것을 잘 배우려 하지 않으며 마치 자체의것은 맑스주의와는 거리가 먼것 같이 생각하고있습니다. 자체의것이 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산 맑스주의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력사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력사를 배우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538페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산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철두철미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체현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에 걸치는 빛나는 투쟁력사이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력사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승리의 력사이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온 력사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은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데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워주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증오하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증오하며 그것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적대계급들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그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에 대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며 그것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할수 있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원칙성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75페지)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다.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철천지원쑤이며 우리와 직접 맞서고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우리 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이며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미일제국주의를 극도로 증오하고 그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본성과 반동적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이자들은 제놈들의 옛처지를 되찾기 위하여 언제나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로작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원들을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유물변증법적세계관을 확립하도록 하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1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확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 발전에 대한 일반적합법칙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특히 자본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본질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멸망,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필연적승리에 대한 과학적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로 하여금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계급적견지에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로동계급의 리익,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급적원쑤들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을 전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단체들은 매 당원들로 하여금 로동은 가장 영예로운것이며 인간생활의 필수조건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며 사회적소유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며 당과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1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집단주의교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자본주의사상잔재를 없앨수 있으며 그들을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와 인민의 모든 재산을 적극 애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적극성과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는 훌륭한 공산주의역군으로 키울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계급교양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명백히 밝혀주시었을뿐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신지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방도와 대중교양에서 출판물들과 선전선동일군들 특히 당단체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 모든것들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다.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력사적계기로 되였으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치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대중의 계급의식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려는 그들의 각오와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전후시기 당앞에 나섰던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천리마의 대고조가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는 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당사상교양사업의 당면한 과업뿐만아니라 먼 장래의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불후의 로작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합법칙성과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은 정치사업,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동시에 사상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상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이 각이한 력사적환경에서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계급교양사업이 주체성있게 진행되여야만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 성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또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계급교양이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처음으로 명백히 밝힘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공산주의교양사업에서 계급적선을 명백히 세우고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하는 과정이라는것을 철저히 반영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시킬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 불굴의 혁명투사로 되게 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가지는 의의는 또한 제국주의와 오랜 기간 대치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게 되는 력사적조건에서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전개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끝까지 철저히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토의 한부분에서만 혁명이 승리하고 전국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에서의 계급교양문제와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계급교양문제는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6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인민들이 제국주의를 완전히 때려부시고 세계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하며 세계혁명이 오래 끌면 끌수록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제국주의와 장기간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되는 조건에서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화롭고 안일한 생활에 물젖어 지난날 간고한 투쟁을 하던 시기에 가졌던 혁명정신과 계급의식을 잃어버리고 제국주의도 증오하지 않게 되며 제국주의의 침략성도 보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생겨날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그들을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함이 없이 자기 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는 실로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천재적으로 예견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준 력사적로작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우리는 계속 심오하게 연구하고 끝까지 관철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키움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최 창 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또다시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지방공업을 더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다시한번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규모중앙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경공업부문에서는 그 경제기술적특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의 공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전반적인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은 또한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특히 공업을 농업에 접근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경공업의 경제기술적특성과 우리 나라 경공업발전의 구체적실정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과학적으로 반영한 탁월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공업은 온 나라에 널려있는 여러가지 원료를 가공하여 모든 지방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대규모중앙공업만 가지고는 이러한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다.

더우기 지방공업을 널리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와 같이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은 가장 뒤떨어진 부문의 하나였으며 그것마저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었다. 이런 형편에서 대규모경공업공장들을 한꺼번에 많이 지을수도 없었고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는 경공업의 락후성을 빨리 퇴치할수 없었으며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도 없었다. 대규모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고 전반적공업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옳은 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가일층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원래의 계획보다 더 빨리 향상시킬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지방공업의 대대적인 건설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지방의 원료와 자재, 유휴로력을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빨리 장성시킴으로써 인민경제내부축적의 원천을 확대하고 중공업과 대규모경공업,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나라의 축적을 급격히 장성시킬수 있게 하며 인민경제부문간,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며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생산을 소비지에 접근시키고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더잘 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촉진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생산하여 해당 지역내의 농촌들에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에도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부업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게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업의 발전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 기술을 농촌에 더잘 보급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공업의 지도적역할과 농민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며 도시와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련결하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녀성들을 생산과 건설에 널리 인입하고 로동계급의 대렬을 늘이며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촉진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그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전시에도 능히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대규모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신생독립국가들과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모든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튼튼히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규모중앙공업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창조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정확히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위대한 구상을 구현하시여 해방후 첫날부터 현대적경공업기지를 창설하시는 한편 중소규모의 도영공

장들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온갖 가능성을 다하여 중소규모지방공업을 확대강화하도록 세심한 지도와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전후 사회경제적변혁이 이룩된 새로운 환경과 인민들의 생활상 절실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여 1958년 6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함께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업발전의 단계설정과 지방공업기업소들에 대한 지도체계와 관리운영사업의 개선 등 지방공업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는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이미 있는 공장들에 부산물직장을 설치하고 일용품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둘째로는 오막살이집도 좋고, 한간짜리집도 좋고, 어떤 창고 한귀때기도 좋으니 이런데서 독이나 몇개 놓고 채소가공공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전원회의후 불과 6개월동안에 우리나라 도처에는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된것과 관련하여 그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1959년 5월 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여시고 지방공업관리체계를 새로 내오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지방공업의 관리 및 기술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찾으시여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로동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지방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62년 8월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 결정실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지방공업을 현대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창성과 삭주에서 창조하신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우리 나라 지방공업은 오늘 총소비품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있으며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만약 우리가 지난 기간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없었을것이며 해마다 높은 경제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며 오늘과 같은 소비품생산의 거대한 장성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 우리의 원료와 자재,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필요한 모든 소비품들을 만들어쓰고있다.

일제의 강도적략탈정책에 의하여 수공업의 전통마저 마사지고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서 베틀 몇개를 차려놓고 지방공업창설에 착수하였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긍지높이 세상에 자랑할만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지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이러한 거대한 변혁과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

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신 그이의 극진한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지방공업발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야 하며 이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에 상응하게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까운 년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훨씬 높이고 소비품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대폭 낮출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이 토대에 의거하여 지금보다 인민생활을 더한층 높일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문제는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며 전국이 달라붙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더한층 높일수 있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일련의 교시들에서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있는 지방산업공장들과 중앙공업기업소들의 생활필수품직장들을 더욱 강화하는것과 함께 특히 나라의 도처에 중소규모지방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지방공업부문에서 가까운 년간에 생산을 2～3배이상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공업발전에서 지방의 책임성을 높이고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을 지방에 떼주고 소비품에 대한 도내 근로자들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해당 도에서 충당하는 원칙을 세우며 지방의 특성을 살려 지방특산물생산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이 방침은 지방정권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지방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소비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가장 옳은 방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구현되고 가격의 일원화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무엇보다먼저 중앙집권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이에 지방의 창발성을 합리적으로 결합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입세출을 지방에 떼주고 소비품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자체로 충당하게 하는것은 모든 지방의 경제활동이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엄격히 복종되도록 당과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보다 강화하면서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지방의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이다.

실로 이 새로운 방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내놓으신 가장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위한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더우기 지방공업은 그 생산소비적특성으로 하여 반드시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어야만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전국적 및 지역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이 사업에서 우리의 모든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이 받들고나아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가 및 경제 기관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사상적각오를 더욱 튼튼히 다지도록 하며 혁명적기풍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0~2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위대한 로선이다. 이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 인민은 보다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더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 최근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주신 강령적인 교시와 지방공업부문에 주신 모든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를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또한 소극성과 보수주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언제나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일용필수품생산을 2~3년내에 2배이상으로 빨리 높이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도처에 중소규모일용필수품공장을 꾸리며 중앙공업기업소들의 생활필수품직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철제일용품, 수지제품, 도자기 및 유리 제품, 목재일용품, 직물 및 종이 제품 등 질좋고 다양한 일용필수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식료가공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를 발전된 공업국가로 만들수 없습니다.

우리 공업분야에는 사실 녀성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녀성들을 부엌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널리 생산에 끌어들이려 하여도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할수 없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의 장성도 식료가공공업의 발전과 떼여서 생각할수는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2～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식료가공공업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나라의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녀성들을 부엌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도처에 저장설비와 가공설비를 늘여 대량생산되는 남새, 고기, 물고기와 과일 등을 하나도 허실함이 없이 가공처리하며 용기와 포장재 생산을 앞세워 생산을 정상화하고 가공품의 질과 생산문화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 필요하다.

특산물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은 지방의 창발성을 높여 지방원천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지방공업을 전반적으로 더욱 높이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진다는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45페지)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키는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갖추어야 할 공정을 다 갖추어 이발이 빠진 공정이 없게 하며 품종을 고착시키고 표준조작법과 모든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며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비하여 기술장비도가 낮고 특히 녀성로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는것은 소비품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고리이다. 우리는 모든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훨씬 높이고 제품의 원가를 결정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자체의 설비생산 및 수리기지를 마련하며 각 도마다 지방산업종합기계공장들을 꾸려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당면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킬뿐아니라 매 공장마다 한가지 이상의 수출품을 내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 가지수를 훨씬 늘이고 더많은 외화를 벌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소비품의 질을 쑥 올리고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장비도 더욱 개선할수 있다.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며 원료, 자재의 보장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산과 바다들에서 나는 풍부한 자연산물들을 적극 리용하며 또한 지방자체에서 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에 지장이 없게 항상 원료를 순조롭게 공급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이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지방원료를 널리 리용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방공업을 창설한 본의에 맞게 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이다.

모든 군들에서 이미 당이 제시한 방

침대로 200정보이상의 원료기지를 전망성있게 마련하며 산과 바다에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을 널리 동원리용하며 중앙공업기업소들에서 나오는 폐설물과 남은 자재를 모조리 회수하여 원료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화학약재생산기지, 수지일용품소재기지, 칠제일용품생산에 필요한 규격소재생산기지, 연료기지 등을 튼튼히 꾸리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소비품생산은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밑에서만 빨리 발전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데 더욱 큰 관심을 돌리며 경공업의 원료와 자재를 계획대로 제때에 생산보장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지방공업자체로 생산할수 없는 필수품소재들과 설비들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원만히 대주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적경제관리체계이다.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공업부문에서도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기업관리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지도일군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창발성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세부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에 예견하고 보장조건을 잘 맞물리며 전반적생산과정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 생산지도체계와 정연한 보장사업체계를 세움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부문 지도일군들은 경제관리의 중심적사업의 하나인 로동행정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과 함께 로력을 고착시키고 로동자들의 작업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관리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방 당 및 정권 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지방정권기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새 기구에 상응한 사업체계를 시급히 확립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공업전반을 튼튼히 틀어쥐고 기업소들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와 물자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협소한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언제나 당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지방공업발전과 지방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지도하는것이 중요하다.

최근 진행된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모두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방공업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

#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앙양

전 대 영, 권 광 성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새해벽두부터 총돌격전을 벌리면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창조하였으며 날에 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충성을 담은것으로 하여,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적 맥박이 힘있게 뛰는것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혁명적불길로 타번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초소들에서 장엄한 투쟁의 구호로 되였다. 이 구호밑에 불꽃튀는 강철전선에서, 동서해의 약동하는 어로전선에서, 수천척지하막장에서, 공업의 심장 기계전선에서, 농업전선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우람찬 천리마적대진군이 벌어지고있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헤아릴수 없이 크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감으로써 력사적인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고 당 제5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운동의 첫봉화를 몸소 지펴주신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창조한 《강선속도》는 지난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창조된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훨씬 릉가하는 1970년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이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리정표를 제시해줄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할것을 굳게 다짐하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새해벽두부터 모든 설비, 모든 기대들에 만부하를 걸고 총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생산과 모든 기술지표들에서 세인을 경탄케하는 새로운 기적,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영광의 땅 청산리사람들은 공업에

서 일어난 《강선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농업에서도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하여 년초부터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창조하였다.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수령의 교시대로 당대회에 만풍년의 황금벌을 선물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빨리 하면서도 농업의 특성에 맞게 깐지고 실속있게, 과학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는 우리 시대 붉은 농업전사들의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높은 혁명적자부심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이미 마련된 거대한 생산잠재력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그것은 남이 한걸음 나갈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려야 할 시대적요구를 자각한 우리 근로자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집중적표현이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영웅적기개의 뚜렷한 발현이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단순한 수자적개념만으로써는 잴수 없는 끊임없는 높은 속도이다.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올해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에서 처음부터 불꽃튀는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어제의 하루작업기준량을 오늘에는 불과 몇 시간동안에 해제끼며 오전동안에 하루할 일을 400~500%, 1,000%로 넘쳐수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어제의 기록은 오늘의 보다 새로운 기록앞에 자리를 내여주며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실들은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적대진군속도가 도대체 가늠할수 없는 높은 속도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하는 높은 속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경제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되며 일시적으로 개별적부문에서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늦어지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는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기초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가능성에 엄격히 서있을 때에는 결코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높은 속도는 균형을 전제로 하며 정확한 균형에 기초한 높은 속도만이 끊임없는것으로 될수 있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간의 적극적균형에 기초하고있으며 또한 그것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생산단위들에서는 현대적혁신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모든 생산고리들이 서로 빈틈없이 맞물고 빨리 발전하는 과정에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담보로서의 적극적균형은 확고하게 이루어지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련관된 고리들이 앞선 고리에 보조를 맞추어나가며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달려나가는것, 이것이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에 구현된 높은 속도이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또한 모든 생산활동에서 높은 질적수준을 동반하는 끊임없는 높은 속도이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

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모든 생산활동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자기들앞에 맡겨진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책임감 그리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흐르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의 략적장성에서뿐아니라 그 질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모든 로동활동과 제품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전인민적운동이다.

⁂ ⁂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었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관하여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대중을 믿으시고 대중에 의거하시여 사업하시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시여 모든 난관을 뚫고나아가시는 그이의 탁월한 인민적령도방법과 군중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지난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혁명적앙양과 천리마운동도 바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인민적령도방법과 군중로선의 결실이며, 오늘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창조될수 있은 결정적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나 로동계급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미제침략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야 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고 더욱 높은 속도로 달려나가도록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새로운 혁명적앙양의 위대한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혁명의 영명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5일과 6일 량일간에 걸쳐 강선제강소 일군들을 부르시여 친히 자리를 같이하시고 로동자들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 공장의 생산정형을 알아보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점령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야 할 필요성과 정치사업을 잘하고 로동자들에게 자기가 할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를 똑똑히 알려주며 후방사업을 잘하는 등 이 전투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원칙들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강선속도》로 내달리는 공업에 보조를 맞추어 농업전선에서도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청산리의 전체 농장원들에게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그들의 중요한 임무를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면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모든 초급간부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고 모든 농장원들이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떨치여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할

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강선과 청산리에 대한 직접적지도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나라의 구체적형편과 난관을 타개할 방도를 가르쳐주시며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전반적앙양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산 모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위대한 혁명적앙양의 불씨로 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붉은 농업전사들은 자기들을 그처럼 믿어주시고 사랑하여주시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우리 인민의 자애롭고 위대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끝까지 충실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모든 기대, 모든 설비에 만부하를 걸고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하였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덕성의 빛나는 열매이며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의 표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인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시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신것은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낳게 한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도 바로 이와 같은 통일에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66~36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깊이 체험하였으며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영예와 긍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이 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휘황한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천리마적진군을 다그치고있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시위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뚜렷한 발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경제토대의 거대한 생산잠재력과 그것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휘시키기 위한 그이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들은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낳게 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5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은 경제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해

진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생산장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과학적방침이다. 그이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정비보강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시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그 발전전망에 알맞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에 구현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심으로써 지난날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자기의 은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사회주의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모든 독창적인 방침들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더욱더 증대되고있는 무진장한 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장성의 천리마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게 하였으며 오늘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창조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보다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개조,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자연을 개조하는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때 더욱 촉진된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달려나가는 보람찬 천리마적진군속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께서 가리키시는대로만 하면 그 어떤 요새도 점령할수 있으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차례진다는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며 따라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그이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이를 위하여 일생을 몸바쳐 싸우리는 불같은 각오와 견결한 혁명사상을 가지게 된다.

강선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전에는 진두초소에서 물러설수 없다.》, 《수령의 교시, 당의 요구가 곧 우리의 공칭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대중적대진군운동을 벌리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달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더욱 공고화되고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사람들간의 동지적협조와 호상방조의 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따라서 천리마운동은 이 요구를 옳게 반영한것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3~4페지)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달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 앞서고 그것이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그리하여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더 빨리 앞당겨 점령할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질풍처럼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인민적천리마진군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된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그이의 천재적리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는 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하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특히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점차 없애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아진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시킨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 하여도 생산을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밝히신 탁월한 경제리론의 위대한 승리이며 혁명과 건설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전진하고 계속혁신할데 대한 그이의 혁명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그것은 또한 대규모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 《리론》의 전면적파산을 의미한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와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으며 그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서는 바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것인가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    *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튼튼히 틀어쥐고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로력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7페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낳게 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술관리, 설비관리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군대에서 무기없이는 적과 싸울수 없는것과 같이 공장에서 설비없이는 생산을 할수 없으며 자연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습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9페지)

설비관리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에 정통하고 그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설비를 끊임없이 개조하여 그 능력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설비관리사업과 함께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자재보장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대안의 자재공급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자재를 우로부터 생산현장에까지, 기대앞까지 날라다주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 자재공급사업에서 세부계획화사업을 강화하며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후방공급사업은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계속 견지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계를 다루는것은 사람이며 생산의 주인공은 근로자들입니다. 기대를 정비보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세심하게 돌보는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어머니당의 일군답게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과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생산에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1970년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실로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계속 견지하며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승리자의 영예드높이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자!

# 남조선인민들은 4월봉기의 력사적 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자랑찬 애국투쟁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을 그처럼 격동시켰던 영웅적 4.19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4.19인민봉기는 지난 1960년대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4.19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는 실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류례없는 파쑈폭압밑에서도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을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왔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기어코 이룩하고야 말 굳은 결의가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아가려는 투쟁결의, 이것은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확고한 신조이며 의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려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악당의 군사파쑈테로통치를 수습할수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영웅적 4.19봉기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던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10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줄기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　　　　*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큰 타격을 주고 놈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던 1960년 4월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대중적투쟁이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이 원쑤들의 총칼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만고역적 리승만괴뢰정부를 뒤집어엎은 4월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첫승리이다.

10년전 4월, 남조선의 모든 지역을 항쟁의 불길로 뒤덮었던 이 대중적인민봉기는 바로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괴뢰도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되였으며 드디여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쟁에 일떠섰습니

[1.》(《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0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미명하에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제놈들의 군사적목적에 복종시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락된 남조선경제는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되였고 인민들은 빈궁의 도탄속에서 말할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였다.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극악한 파쑈테로통치를 감행하여나섰으며 전례없는 부패와 학정에 매달리있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괴뢰도당이 지배하는 남조선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여지없이 말살당하고 무서운 테로가 횡행하는 무법천지로 전변되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정책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심각한 불만과 격분을 자아냈으며 그들을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추동하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하고있는 위대한 성과에서 무한한 고무를 받으면서 1960년 4월 드디여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대중적봉기에 떨쳐나섰다.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괴뢰도당의 썩은 통치를 반대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일어난 4월봉기는 처음부터 폭동적성격을 띠고 진행된 대중적인민투쟁이였다.

력사상 류례없는 사기와 협잡으로 날조된 악명높은 리승만괴뢰도당의 3, 15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마산시민들의 투쟁을 도화선으로 하여 일어난 4월봉기의 세찬 불길은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쓸었다. 이 대중적인민봉기에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백만의 광범한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썩은 정치 물러가라!》, 《경찰국가 타도하자!》,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잡자!》라고 높이 웨치면서 괴뢰도당들과의 대결에로 나아갔다.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항쟁의 거리를 붉은 피로 물들이면서 총칼의 바리케트로 뒤덮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원쑤들의 아성에 육박하여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로서 오래동안 온갖 매국배족적죄행을 저지른 리승만도당의 괴뢰정권을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총칼로 비호하던 만고역적 리승만괴뢰정권이 파멸된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일대 붕괴를 의미하는것이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명높은 《북진》소동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3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항쟁을 계기로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국주의에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남조선혁명을 선진시킴

에 있어서 실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어떠한 총살의 위협으로나 기만술책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을 오래동안 노예로 얽매여둘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봉기는 또한 인민들이 단결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설 때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처부실수 있으며 인민들은 오직 자기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얽매여두려고 악랄한 파쑈폭압에 매여달렸으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분노한 인민들의 투쟁기세와 그들의 단합된 힘을 꺾을수 없었으며 결국 괴뢰정권의 붕괴를 모면할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4월봉기를 통하여 만고역적 리승만괴뢰도당을 뒤집어엎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자기들의 투쟁을 끝까지 철저히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적당이 없었고 뚜렷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널리 참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4월인민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142페지)

남조선인민들은 영웅적4월봉기에서 그처럼 용감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을 힘있게 령도할수 있는 혁명적당이 없었고 따라서 뚜렷한 투쟁강령이 없음으로 하여 자기들의 숭고한 뜻을 이룰수 없었다.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의 령도하에서만 남조선인민들은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4월봉기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당이 없었기때문에 남조선인민대중을 의식화할수 없었고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을 조직화할수 없었으며 그들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나가지 못하였다.

또한 혁명적당이 없음으로 하여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이 투쟁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투쟁은 끝까지 철저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완전한 승리에로 이르지 못하였다.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명확한 투쟁강령을 가지고 로동자, 농민이 투쟁에 적극 참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보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으며 투쟁이 철저한 반제반봉건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충실한 개 박정희도당에 의한 권력찬탈를 막지 못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결정적반격을 조직하지 못하였고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념원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4.19봉기는 비록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으나 항쟁의 거리를 붉게 물들였던 4월용사들의 붉은 피는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맥박치고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은 남조선인민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주고 있다.

❊　　　❊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간악한 파쑈폭압속에서도 원쑤들을 반대하는 반미구국투쟁을 굴함없이 줄기차게 벌려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4월봉기가 있은 뒤에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대중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3페지)

4월인민봉기이후 남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남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수습할수 없으며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4월봉기이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정권》교체놀음을 벌려놓고 극악한 군사불한당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로 나갔으나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었다.

4월봉기이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확대되였으며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기 위한 6.3투쟁과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한 8월투쟁, 6.8부정《선거》를 반대하는 투쟁,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인 《3선개헌》책동을 반대하는 투쟁들은 4월봉기이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는 대중투쟁이였다. 이 투쟁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와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반제, 반파쑈애국투쟁으로써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괴뢰정권을 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점차 투쟁의 예봉을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미제침략자들에게 더욱더 돌리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들의 대렬이 빨리 자라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혁명조직을 꾸리고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더욱더 높아가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보다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특히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표시하고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의 빛나는 현실에서 통일된 조국의 행복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그리고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남조선무장유격대들은《우리는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들고 싸우는 무장유격대》라고 긍지높이 말하면서 도처에서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고무되면서 로동자, 농민, 어민, 군인, 청년학생,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량심있는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시기가 다가오고있다.

날로 확대되고 적극화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질겁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 조성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더욱더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

달리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남조선에 조성된 현실은 미제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있는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따라서 놈들을 철저히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찾을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놈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8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실권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으며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위한 하나의 련병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사회는 말그대로 폐허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끝없는 고통과 무서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를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 파국적인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오직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남조선에서 놈들의 저주로운 식민지통치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4. 19봉기이후 남조선정세발전은 오직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들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놈들의 앞잡이로서, 안내자로서 복무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지지하고 그에 추종하고있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다. 놈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억압하며 착취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반대하며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놈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투쟁과업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무력을 증강하고 대량살륙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괴뢰군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그 장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들을 침략전쟁준비에 동원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체제》를 확립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침략전쟁의 참화속에 끌려들어 희생물로 될수 있는 극히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빚어지는 동족상쟁의 참화를 방지할수 있으며 남조선의 청장년들과 인민들을 범죄적인 침략전쟁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수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쟁정책의 일환으로 강화하고있는 군사파쑈폭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남조선을 뒤덮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군사파쑈독재정책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악당은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어놓고 남조선 전지역을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이 감행하고있는 반동적인 장기집권책동과 인민들에 대한 류례없는 탄압책동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파쑈통치가 얼마나 악랄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민족적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 학살하고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사회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보정치, 여론을 무시하는 강권정치》가 살판침으로써 《공기없는 천지, 숨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침식당한 폐허》로 전락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짓밟히고 파쑈적폭압이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할수 없고 혁명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악당의 군사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하며 생존의 권리와 생활개선을 요구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할 때에만 오늘의 저주로운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4월봉기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철저히 때려부시고 인민들이 자기의 손에 정권을 튼튼히 틀어쥐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지배가 존속되는 한 미제의 한 괴뢰가 다른 괴뢰로 바뀌여지는것으로써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으며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매국적이고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박정희괴뢰정권을 철저히 때려부시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

산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여야만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과 북반부사회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은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4월봉기의 쓰라린 교훈을 되풀이 하지않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시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혁명적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혁명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들을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며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결속하여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남조선혁명은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킨 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며 그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앞길에는 물론 어려운 난관과 준엄한 시련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전반적정세는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그 앞길은 휘황하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40여년간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와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성원이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악당들을 쓸어버림으로써 반드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며 4월항쟁의 거리를 붉은 피로 물들이면서 그처럼 바라던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그들의 념원은 실현되고야 말것이다.

근 로 자 제 4 호 (루계 33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4월 15일 발 행 • 1970년 4월 20일

ㄱ—3132 값 50전